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보시를 베풀어 뜻을 고르고
계율을 지키어 분함을 이기고
집착없는 정진을 거듭하면서
상에와 지혜로 으뜸을 삼으라
-무량수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3월 29일 수요일(주간) 제 26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만약 서울에 주소가 없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에도 도메인이 없다면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홈페이지를 찾기는 커녕 접속부터 할 수 없다. 도메인은 인터넷에서의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주소이다. 정확하게 도메인이란 컴퓨터 숫자로 표시된 인터넷 주소(IP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IP주소는 숫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IP주소를 입력해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편리성을 내세워 만들어낸 것이 영문도메인이다. 인터넷을 처음 개발하고 사용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도메인에 대한 뜨거운 이슈는 단연 매매가격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웬만한 도메인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것이 시장관세라고 한다. 인터넷 사업에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면 이미 등록한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사와야 한다. 그래서 신종 사업으로 도메인 장사가 생기기도 했고 도메인 거래는 앞으로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년에 3만원 안팎의 도메인 유지 수수료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도메인이 아이디어에 따라 수천만배를 웃돌아 이윤을 내니 도메인 작명소까지 생겨나는 실정이다.

도메인 선점 경쟁

불교계도 관심 필요

교계도 모 사이트는 도메인 작명 매매 입대 사업까지 하고 있다. 석가모니불(sakyamunibuddha.com) 미륵불(maitreyabuddha.net) 마야부인(mahamaya.net) 스님(samgha.org) 이뭐꼬(imwokko.com) 등 40여종을 확보해놓고, 1천만원 판매 혹은 월사용료 5만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날로그식 정서의 불자들에게는 '세상에...' 하는 탄식도 나올만한 세상이 된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물장수 김선달'식의 장사라는 비난의 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미 인정한 상태로 되어있다. 인터넷 포교에 관심과 함께 우선 도메인부터라도 선점해 두어야 하겠다.

위영란 기자(yryu@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사찰 납골시설과 포고



수도권 10년내 3배이상 수요 는다

〈글 싣는 순서〉
上. 화장 후 갈곳 없다
中. 시설운영 문제있다
下. 납골문화, 불교가 선도

화장률 가파른 상승세

영탑공원 등 20여곳 운영

불교계의 납골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크게 늘고 있는 화장률에 비해 이를 수용할 납골시설은 갈수록 부족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사찰 납골시설은 화장문화 선도뿐만 아니라 불자들의 신행생활은 물론 포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화장률은 20%를 밑돌던 93년에 비해 95년 22%, 98년 27.8%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 해에는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98년 이전까지 30% 안팎에 머물렀던 서울의 화장률은 지난해 43%로 증가한데 이어 올 1~2월에는 54.3%를 기록했고, 경기지역의 경우도 95년 23.8%였던 것이 98년 34.2%에서 지난 해에는 40%에 육박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납골시설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월말 경기도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경기도 장묘시설 수급전망'에 따르면 모두 3만7천여기의 봉안 능력이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2005년까지 3만기, 2010년까지 8만기가 각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서울지역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10년 이내에 납골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넘쳐나는 수요를 흡수시키고 신행활동과 조상추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불자들이 많음을 감안할 때 사찰 납골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사찰 납골시설은 크게 부족하다.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사찰 납골시설은 부천 석왕사, 능인선원, 백양사, 한마음선원 금왕지원 등 20여 곳으로, 수용능력은 모두 1만2천여기에 불과하며, 서울·경기지역의 사찰 납골시설도 모두 11곳에 약 8천여기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곳 10여 곳을 합한다 해도 모두 30여 곳에 불과하며, 이들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곳도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화장증가율과 납골시설 수요분을 고려할 때 공설 납골시설이 늘어난다고 해도 적어도 10년 이내에 사찰 납골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3배인 20여기 이상 늘어나야만 불자들과 납골을 희망하는 일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도 사찰 납골시설은 대폭 늘어나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납골시설의 총 봉안능력은 55만여기로, 이용률이 30%임을 감안하면 지방의 사찰 납골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2면으로 계속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조계종 초파일 표어

조계종총무원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를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로 정하고 자비실천정을 널리 결쳐줄 것을 각 사찰과 단체에 당부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22일 '봉축행사 지침'을 통해 "부처님오신날에는 축제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자비의 손길을 펼치자"고 당부하고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자매결연 또는 봉사조직을 결성해 지속적인 자비실천정을 과 불교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올해 사용될 봉축캐릭터 25종 가운데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수화동작을 취하고 있는 수화동자상(사진)을 주캐릭터로 정해 자비실천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사회부는 자매결연, 봉사조직 결성을 위한 실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조계종은 또 이날 봉축행사와 홍보에 쓰일 봉축디자인집을 발간하고 사찰과 단체에 배포키로 했다. 봉축디자인집에는 96년부터 봉축디자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비회장, 아기부처, 동자캐릭터와 올해 새로 개발한 연등축제 회장, 어린이용 캐릭터 등이 실려 있다.

올해 봉축디자인집에서는 주색을 주황(불교기에서 인욕을 상징하는 색)으로 정하는 한편 불교기에 사용하는 청·황·적·백·주황의 색도 지정, 6종의 현수막 장식 문양을 제시해 봉축행사 이미지의 통일성을 유도했다. 정성운 기자

'고은칼럼' 6면

국토이용법 개정 긍정 검토

건교부, 곧 국회제출

국토이용관리법과 이 법 시행령이 사찰의 고유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보도(본지 263호 1면)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이 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교부 토지정책과와의 한 담당자는 23일 "조계종과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조계종의 요청에 따라 건교부에 국토이용관리법령 개정 의견서를 냈다"고 알려왔다. 조계종은 자연환경보전지구 내 건축허가 적용 사항에 전통사찰 경내지 추가,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 후 종교용지로 전환가능 등을 국토이용관리법령에 포함해줄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의견을 문화부에 냈었다. 정성운 기자

종헌개정 '다음 종회로'

조계종 146회 종회 폐회

조계종 중앙종회는 146회 임시종회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사면을 실시하기 위해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의 건을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에서 심의한 후 다음 종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총무원은 종헌 개정 제안설명을 통해 "화합종단의 구현을 위해 대폭적인 사면조치가 필요하나 현 종헌 규정으로는 멸빈자의 사면이 불가하다"며 "멸빈자까지 포함하는 사면의 추진을 위해 종헌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정책중심 선거운동"

7대 종교지도자 '호소문'

7대종교 지도자들이 4.13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단협의회 회장 정대스님을 비롯한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23일 서울힐튼 한국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바르고 깨끗한 선거 실현을 위한 우리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종교지도자들은 호소문에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특히 지역감정 유발을 배격하고 △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각자의 역할과 압투수행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제한 역 준수와 정견·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정부의 선거개입 자제, 선거관리기관의 엄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호소했다.

정성운 기자



봉정사 후불벽화 '국내 最古'

경북 안동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의 후불벽화가 1428년에 제작된 국내 최고(最古)의 후불벽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해체·보수 중인 봉정사 대웅전서 불단에서 '지정이십일년(至正二十一年:1361년)에 봉정사 불단을 만들다'라는 묵서가 발견돼 대웅전 건립 연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문화재청은 23일 "대웅전 지붕 속 종보받침 장설(長舌)에서 '무신년(戊申年:1428년)에 미륵하생도를 그렸다'는 묵서가 발견됐다"며 "전남 강진의 무위사 극락전 후불벽화(1476년)보다 48년 앞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사찰 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팔모주름등 (핑크)



⊙ 팔모주름등 특징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 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팔모주름등(빨강) 팔모주름등(연두) 팔모주름등(노랑)
팔모조립등 팔모주름등 보관형태 육각등
조립팔모등 원통등 차결이등

찬덕의 연잎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특허 제 122168호 찬덕 비단 연 잎으로
사찰에서 완성되는 공단 등을 보급합니다.

연등 전문 제조업체인 찬덕 연등에서 스님들께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공단 등 연잎으로 신도들의
불심을 모아 연등 불사를 할 수 있는 길을 펼쳐 드립니다.

〈납품형태〉 ■ 비단 연잎 ■ 등통+ 비단 연잎
■ 완성비단연등(법당용) 빨강·노랑·연분홍

공단(비단) 연잎등 완성과정



찬덕 연등제작사 김기찬 합장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춘궁등 180-1

디자인 : 대구 여래기획
전화 : 053)426-3395~6

어린이·청소년법회 줄고있다

직할교구 5곳 법회중단…단체도 15곳 해체

조계종 포교연구실 조사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해줄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이 최근 57개 직할교구사찰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어린이, 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던 사찰이 96년 30곳에서 25곳으로 5개사찰이 법회를 중단했으며, 총 58개에 이르던 어린이, 청소년단체도 3년간 15개가 해체돼 총 4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참가 평균인원도 96년 53.3명(어린이)명과 31.5(청소년)명에서 45.33명과 25.2명으로 각각 15%, 19%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어린이법회가 없어지고 청소년법회만 남아 7~8명의 회원으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있는 사찰도 4곳에 이르러 2~3년내 학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경우 해체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사찰에서의 인식부족과 지도교사 확보의 어려움, 사찰지원 열악등을 꼽고 있다.

또 타종교와 달리 학업을 강요하며 청소년법회의 참가를 꺼리는 불자부모들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종단적 차원에서도 유치원, 어린이회, 청소년회, 대불련, 청년회, 신도회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 시스템도 빠른 시일내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단체들은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 양성 △사찰의 어린이 청소년법회 운영 의무화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원 확대 △종단차원의 어린이, 청소년 법문자료 개발 △어린이, 청소년단체간 교류강화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파라미타의 경우 프로그램이 부재한 사찰의 청소년법회가 감소추세인 반면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불교학생회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교에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계종포교원 양진수주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96년 조사시에 비해 어린이, 청소년법회가 침체되고 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종단차원에서 일선 사찰과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포교지도서 작성, 포교인력양성, 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현황파악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정치인 발길잦은 불교행사장

4.13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교행사장에 정치인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22일 서울부암동 모 음식점에서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연수회. 이날 행사에는 애초 이종찬 임채정씨 등 두 사람이 참석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김근태 유재건 부총재, 이석형 은평을지구당 위원장 (장재식 의원은 행사가 끝난 직후 도착) 등 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주최측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종로구에 출마하는 민주국민당의 여익구위원장도 참석해 인사했다.

이인제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희망을 향한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다른 사람



◇22일 열린 조계종 직할교구 주지연수회에서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이 인사를 하고있다.

총선앞두고 정당마다 지지호소
종무안내 10분-정치인 인사 30분

들은 저마다 불교와의 인연을 거론하며 자기를 소개했다. 김근태씨는 대각사 옆에 살며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스님의 권유로 학생회에도 나갔다고 말했다. 은평을에 출마하는 이석형 변호사는 불광동의 지명을 설명하며 "부처님의 은덕으로 우리나라가 화합상생하도록 스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건씨는 미국에 있을 때 설조스님과의 교류를 강조했다.

직할교구 주지 연수에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예전에는 주지 연수를 조계사 문화교육관이나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치렀으며, 정부 인사의 참석은 없었다. 박 장관의 인사말은 종교관련 주무장관이어선지 공식 식순에 포함돼 있었다.

박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재 도난 대책, 비지정문화재 보호, 서울·경기지역 성보박물관 건립을 위해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하겠다"며 "민족의 웅비는 스님들의 협력과 지도가 있을 때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는데, 행사의 목적인 종무계획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안내는 10여분만에 끝났고 정치인들의 인사가 더 많은 시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불교행사에 정치인들이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으니, 한 사람 정도의 인사는 탓할 것이 없겠지만, 너무 후하게 인심(?)을 쓴 꼴이었다"고 꼬집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146회 종회 32개 안건 처리

문수사등 3개사찰 직영 해제

14일 개원해 이틀간의 종정감사 후 17, 18일 다시 열린 조계종 146회 중앙종회는 문수사 해남사 관룡사 등 통도사 3개 말사를 직영사찰에서 해제하고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을 상대로 종책질의를 벌이는 등 모두 32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17, 18일 열린 종회의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기 2543년(1999) 중앙종무기관 추경예산안 및 결산 승인.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대책특위 해체 및 결의문 채택 : 김포학사 대책 특위를 해체하고 이후 집행부와 종회의원, 교계 중진스님들로 구성하는 대책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했다. 또 김포학사 대책 특위가 제안한 불필요한 건축비의 삭감(특위 보고서 80억7000여만원) 촉구, 승가학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삼보정재 유실에 따른 관계자 의법조치 등을 결의했다.

△포교법 개정 통과. 계단법 승려법 지방종정법 총림법은 종헌·종법 제·개정특위 논의 후 다음 종회의 논의 △원명스님을 원로의원으로 추천 △조계종-선학원 관계 정립 위해 재협상 추진 △재정분과 위원장은 간사가 대행.

△중앙승가대학 법인사무처장 중징계 촉구, 동국학원 이사 사퇴 및 이사 추천 동의,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 동의, 동국대 불교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특위 구성, 은해사 계율도량 시행 촉구 등의 안건은 폐기했으며, 종단 구조조정 특위 구성의 건은 철회했다.

정성운 기자



포교사 전문화 교육

포교사단, 5월13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길기병)이 18일 포교원 강의실에서 개최한 포교사 전문화교육에 70명의 포교사가 참석, 불교상담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5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포교전문화 상담교육은 '아동과 청소년 심리' '불교와 상담' '부처님의 교화사례' '중년과 노년의 심리' 'MBTI성격검사' '사례역할' 등의 강좌가 다채롭게 열린다.

김원우기자

태고종사 발간위 모임

편집방향·일정등 논의

한국불교 태고종사 발간을 위한 준비위원회(위원장 수열스님)는 15일 제주 선광사에서 모임을 갖고 태고종사 발간에 따른 편집방향과 추진 일정 등에 관해서 논의했다. 12명의 준비위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태고종사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꾸준히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편집방향을 정리, 종단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태혁 동방불교대학장 등 전문학자들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섭외해 나가기로 하고 섭외위원으로 수열·만춘·법성·지상·일로 스님을 선임했다.

태고종사 발간준비위원회는 발간을 위한 기금마련을 꾸준히 진행시켜 현재 1천6백만원의 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숙 기자

분당불교신도회 창립

경기도 분당불교신도회(초대회장 배종욱)가 4월 3일 12시 뉴타운호텔 5층 대연회장에서 창립총회 및 암도스님 초청법회를 갖고 공식 발족한다.

배종욱 초대회장은 "앞으로 지역 전법사육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법포교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1면 '매장'서 계속

그러나 가까운 사찰 납골시설을 이용하려는 불자들이 겪는 불편을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강모련 화보살(50, 경북 구미시 사곡동)은 얼마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찰에 모시려고 했으나 인근에 납골시설이 없어 결국 매장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국 각 사찰에 납골시설이 있는지를 문의해오는 불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사찰 납골당은 불교의 전통 장법(葬法)인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납골을 불교복지의 전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과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신행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또 기존 사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비용절감효과와 함께 환경보존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모범적으로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는 능인선원의 한 관계자는 "신도들이 명절때마다 멀리 공원묘지나 선산으로 나갈 필요가 없고 절에 와서 조상참배와 함께 신행생활을 할 수 있어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불교계 주요 영탑·납골당 현황

시설자	종류	현황	연락처
한마음선원 금월지원	영탑	분양	044)-877-5000
한마음선원 천주지원	영탑	분양	0591-749-8163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영탑	분양	064-721-4662
한마음선원 경남지원	영탑	분양	0523-342-6639
장성 백양사	납골당	분양	0685-392-7824
사천 영각사	납골당	분양	0345-496-7700
태고종공제회 월성사	영탑	분양	0055-832-4113
영천 만불사	영탑	분양	0563-335-0101
부천 석왕사	납골당	분양	032-667-3404
상락원 영묘전	납골당	분양	0349-941-3416
서울 능인선원	납골당	분양	02-577-6800
밀양 부은사	납골당	분양	0527-353-8033
고양 장안사	납골당	분양	0344-965-4222
서울 삼보사	영탑	분양	02-352-6406
보현원 양평공원	납골묘	분양	02-738-4255
강화 전지정사	납골당	분양	032-932-6989
연천 오봉정사	납골당	분양	0355-834-2140
포천 다보정사	영탑	분양	0357-531-0560
대전 구암사	납골당	분양	042-822-2377
고양 극락사	납골당	분양	0344-963-9152
양산 통선사	영탑	공사	0523-382-5074
의령 융국사	납골당	공사	0556-572-0022~3
양산 전통사	납골당	공사	0523-382-1403~4
태고종 브륜정사	납골당	공사	02-939-2550
동국대	영탑	계획	02-2260-3794
울성 고심사	영탑	계획	0446-878-5408
부산 범어사	납골당	계획	051-508-3122~7
울성 웅종사	영탑	계획	0446-877-0743
하남 광덕사	납골당	계획	0347-792-5266
음성 미타사	납골당	계획	0446-872-0622
예산 수덕사	탑림	계획	0458-337-6665

현 대 만 평 박구원



걱정이다

"종단 '불사 관리체제' 마련해야"

재가연대 포럼서 제기

허술한 불사 관리로 인한 삼보정재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종단 재산의 관리·처분·취득과 관련한 종법·령 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욱 종회발전재가봉사단 부단장은 22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정기포럼에서 '종단 건축불사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관리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삼보정재의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증법·종령 제정을 촉구했다.

김 부단장은 "김포학사 건축불사의 경우 예산산정부터 비계획적·무원칙적으로 진행돼 삼보정재를 허비하고 부실공사의 일차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종단 건축불사의 관리방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사추진에 대한 종단적 관리방안(메뉴얼화)의 표준 마련 ▲불사추진(종단 재산의 관리·처분·취득 등)과 관련한 종법·령 제정 ▲총무원의 관리시스템 강화(불사자문위원회 구성 등) ▲단위 사찰 스님들의 의식개혁(삼보정재의 공개와 투명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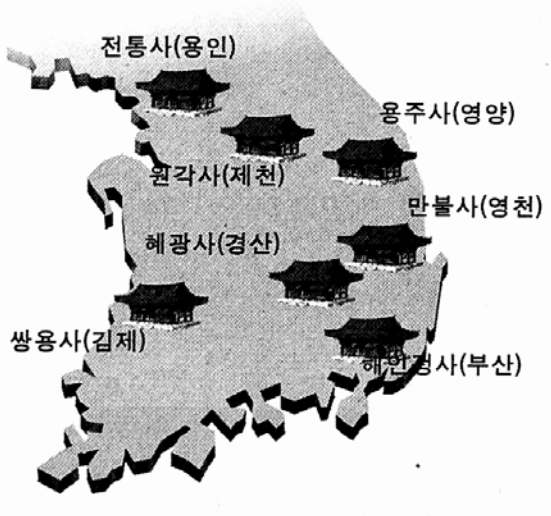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 지금, 전국에선 한국불교 건축공예에서 시공되는 사찰건축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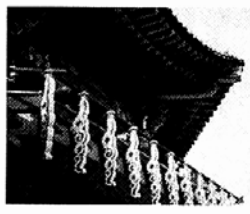
한국 불교전통공예는 천년대계의 문화유산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을 위한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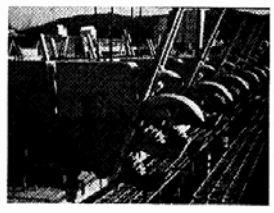


설계에서 시공까지



사업안내
•고건축사업부 : 콘크리트 법당, 목조건축, 요사채, 콘크리트성형조각 판매
•조각내장사업부: 탁자, 닷집, 법상등(내부전체)
대한불교 예술원(자매회사)


게자각 조립


외3포 내5포 조립과정


외3포


외3포 양생과정


서가래양성

특징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조립공정으로 간편하여 시공이 빠릅니다.
•섬세한 조각성형으로 작품성이 풍부합니다.
•목조건축에 비해 선이굵고 정밀해 우아합니다.
•화재에 대한 관념에서 벗어 날수가 있습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본사)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 (호성빌딩)
•서울전화 (02) 494-4890~1 •울산전화 (052) 258-2813
제1공장: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완장1리
제2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목어

선운사의 전투기

선운사 동백들이 지금 막 꽃봉우리를 열어가고 있다. 도솔산의 울창한 산숲에는 여러 동식물이 가족처럼 오손도손 살고 있다. 국내외 수많은 관광인들의 발길도 늘어가고 있다. 머리 위에는 언제나 눈이 부시게 푸르른 하늘이 해맑게 펼쳐져 있다.

그런데 선운사의 그 고즈넉한 하늘이 요즘 거의 매일 무너질 것만 같이 요란하게 흔들린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선운사 바로 머리 위를 지나며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차례씩 치러지는 이 훈련은 밤낮 구별조차도 없다. 알고보니 인근에 위치한 미군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이란다.

분단된 우리나라에서 군사훈련은 필수적일 것이다. 주둔하는 미국공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러한 군사훈련을 반드시 이해하고 도와야 마땅하다. 생각 같아선 선운사 전투기의 폭음에 그냥 귀를 틀어막고 모른채 할까도 싶다. 그렇게 못하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이해부족이나 수행미달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그러나 그 굉음이 지나쳐갈 때마다 큰 아쉬움이 남는다. 훈련비행하는 공군 전투기도 여객기와 마찬가지로 분명 항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드넓은 하늘 가운데 하필이면 왜 명산대찰의 머리 위를 지나갈까? 조금 비껴가거나 아니면 훨씬 드높이 난다면 평온한 이곳을 뒤흔들지는 않을텐데 말이다. 만약 우리의 공군지도자들이었다면 전투기의 훈련비행 항로를 결정 짓는 데에도 분명 이 지역의 문화나 환경보존에도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을텐데.

미군은 이 땅에서 민가 주변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훈련을 해도, 또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국내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한미행정협정(SOFA) 덕분이란다.

도솔산 선운사를 하루에도 몇번씩 "우르릉쾅! 우르릉쾅!" 우렁차게 뒤흔들며 오가는 선운사의 전투기. 욕심없이 고즈넉함을 즐기는 이 산의 가족들과 방문객들이 오늘도 느닷없는 굉음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이, 동백꽃이 피기 무섭게 땅으로 툭툭 자결하듯 떨어지는 것처럼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도수(선운사 법사·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 설 고 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정화측 반발 여전…성사 '안갯속'

'조계종 사면' 초파일 이전 가능한가

총무원, 종헌특위 조속 개최 촉구키로
사면심사위 구성…분리사면설도 나와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사면을 실시하기 위한 종헌 개정안을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정휴)에 넘겨 심의한 후 다음 종회에서 다루기로 함에 따라 이후 전개 양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초파일 이전 종헌이 개정되어 사면 실시가 가능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무원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사면 실시를 원칙으로 정하고 종헌 특위가 빨리 열리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정대스님은 집행부 부·국장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사면 실시를 강조하고 집행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4월 중 147회 임시종회가 열려 종헌이 개정될 경우라도 어떤 분위기에서 개정되느냐에 따라 일정이 달라진다. 종헌특위에서 개정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본회의에서도 큰 진통없이 통과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집행부에서 종헌 개정안 심의중에라도 사면 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실시, 회기 내에 사면동의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면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종회를 별도로 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종헌 개정 심의가 진행될 경우 사면 접수 및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다. 자칫 집행부와 종회의 마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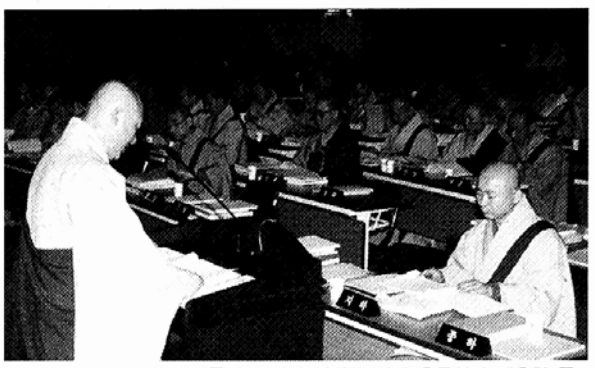
종헌 개정 분위기는 아무래도 사면 대상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46회 종회에서 통도사를 총림으로 재지정하며 여러 종회의원들은 "아직도 종회의원들과 총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정화개혁회의 일부 스님들은 중앙종회 해산을 주장하고 있어 사면에 이르기까지는 고단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상자 전원 사면보다는 분리 사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면을 예정대로 실시하되, 종헌에 규정된대로 참회하지 않은 스님들은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면에 대한 신중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화회의 일부 강경론자들을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해도 종단화합이라는 대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호법부에서는 98년 조계종사태 징계자를 대상으로 면접 또는 주변조사를 마쳤으며, 당시 사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몇 스님들이 사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면·복권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워졌다. 이와 관련 호법부장 종지스님은 18일 중앙종회 종책질의 답변을 통해 "기존에는 사면·복권 심사를 집행부에서 실시해왔으나, 이번의 경우 엄정한 사면·복권 심사기준을 정하여 호계위원과 중앙종회의원, 기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62년 이후 제적·멸빈의 징계자는 250여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환속했거나 다른 종단으로 이적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면대상자는 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4~18일 열린 중앙종회는 사면 실시를 위해 총무원이 제출한 종헌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서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법 개정 내용과 의미

"신도국 신설 업무일원화"

포교원에 '군포교위' 설치 군포교 활력

이번 포교법 개정은 신도교육 업무를 통일하고 미비점이 많은 종법 조문을 정비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조계종포교원은 포교부내의 연수국을 신도국으로 직제를 변경해 신도 등록 본말사 이관, 신도교육 의무화사업, 연수교육 등을 하나로 통합, 포교원의 기반사업이자 주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94년 9월 29일 종헌 개정을 통해 별원으로 독립한 포교원은 지난해 9월 신도법을 개정, 신도등록 사업 중심에서 신도의 입교, 기본교육 및 재교육의 의무화, 수계와 위계 등 포교원의 기본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신도관련 사업의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이에 따라 포교원 업무의 질적·양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더욱 안정되고 체계화된 포교원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포교원이 그동안 군포교 32년의 역사에서 군포교의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적인 관심과 관리가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포교원 산하에 군불교위원회를 설치했다.

군불교위원회 설치로 종헌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권한을 갖게돼 대외적으로 종단대표성을 획득하고 포교원 회의에도 참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군포교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군승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각종 직책의 구분과 업무를 명문화했다. 포교사를 재가자로 국한하고 전문분야에서 3년간 활동한 포교사를 전문포교사로 우대토록 했다.

상임포교사와 예비역 군승에게 부여하던 전교사의 자격품수도 명문화 했으며, 재가단체 명칭도 신도단체로 통일하고 군법사 호칭도 군승으로 통일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교학 바로세워야 바른 수행길 제시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⑩선과 교학



변상섭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요즘 우리나라 뿐아니라 서양에서도 선(禪)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쉽고 바르게 쓰여진 선수행서가 없다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이제 화두를 해설하는 책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

본인은 선과 교학이 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고 싶다. 교학이 없다면 왜 선정을 닦아야 하는지, 선정을 닦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뒤에 우리는 어떠한 경계를 체득하게 되는지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이미 부처님께서 연기설을 설하실 때 중생이 사량하고 분별하는 정신세계를 설하여 주셨고, 깨달음의 세계는 어떠한 경계인지 분명하게 펼쳐보여 주셨다. 그래서 규봉종밀 선사께서도 선과 교의 일치를 주장하셨다.

근래에 선수행의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화두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화두를 해설하는 책까지 펴내고 있다. 이 모두가 교학을 바르게 알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교학을 바로 세우면 곧 바른 수행의 길도 밝혀질 것이다. 불교에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였더라면 적어도 이토록 잘못된 풍조만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깨달음이란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증득하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지를 증득한 뒤에 다시 무분별후득지(無分別後得智)를 나투는 세계를 설명한 것이 화엄(華嚴)의 세계이지만, 그야말로 무분별지를 증득한 뒤의 이야기이니, 논의를 간략하게 하기 위해 무분별후득지는 뒤로 미루어놓고 설명하기로 하자.

무분별지란 인법양공(人法兩空)이라고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인공(人空)이란 인식주관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끊어져서 일체의 번뇌와 망상이 끊어진 것을 설명한다. 법공(法空)이란 인식주관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여 생겨나는 인식현상(法)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연기설을 설하신 것은 바로 중생이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망녕된 것인가를 꿰쳐보이신 것이다. 즉, 중생이 사유하고 인식하는 것은 오온(五蘊)의 단계를 거쳐 일어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중생의 마음 속에서 열두 가지 연기(緣起)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세히 밝히신 것이다. 이렇듯 중생이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은 무명(無明)이라는 미혹 때문에 자신의 탐욕과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의적으로 조작하고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것들이라고 설파해주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를 보면서 "예쁘다" 또는 "밉다"는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상(相)들이 본래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 속에서 자신의 미적 기준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해 조작해서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허망한 표상(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중생은 이러한 허망한 표상을 스스로 만들어놓고, 그것에 얽매어 울고 웃으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허망한 인식을 일으키는 한 생각을 끊어버리면 곧 슬픔도 고통도 없는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허망한 표상을 만들어내는 번뇌와 망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작용을 끊어버린 것이 바로 인공(人空)이며, 그 마음에 일어난 허망한 표상들이 끊어져 없어져버린 것이 법공(法空)이다. 헤아려 생각하고 분별하는 의식의 작용이 완전하게 끊어져서 일체의 연기하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분별하는 의식의 작용이 분별적 사유의 작용이 없는 의식의 작용으로 바뀌는 것을 유식학에서는 전의(轉依)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분별적 사유에서 무분별적 사유의 양상으로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수행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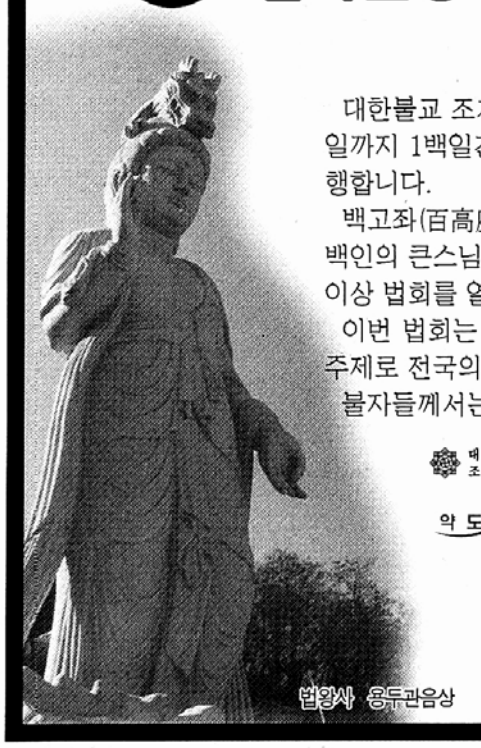
따라서 옛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묘한 깨달음은 마음의 길이 끊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하고 계신다. 대혜 선사께서도 "단지 범부의 정식(情識)이 끊어질 따름이지, 따로 이 성스러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하신 것이다. 연기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끊어지면 모든 것을 참답고 바르게 인식하는 지혜의 경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육조혜능 대사의 법제자이신 영가 현각스님의 〈선종영가집〉에 "연기하는 작용이 끊어진 뒤에 고요하고 고요하여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의 자성(自性)이 분명하고 또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제 깨달음의 세계가 어떠한 경계인지가 분명하게 밝혀졌으니, 선을 닦는 목적과 방법이 또한 명백하게 드러난 셈이다. 화두를 참구하며 선을 닦는 것은 분별하고 사유하는 마음의 작용을 끊는 것이다. 그런데 화두를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고 해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분별하고 사량하는 마음의 작용이 끊어질 수 있겠는가? 다만 알 수 없는 의심에 사무쳐서 눈멀고 귀먹어버리는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가지 않고는 결코 마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화두를 해설해버리면 그것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의심을 일으켜서 선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제발 이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봉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행


법왕사 용두관음상

대한불교 조계종 비슬산 법왕사 證明 : 회주 圓空 正無 주지 實相 합장

약도



☞ 법왕사 교통편
· 일반버스 401, 404, 405, 449, 434, 624, 104
· 좌석버스 704
·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에서 나와 신천대로를 타고 오셔서 상동교를 지나 오시면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오는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百高座)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백일 동안 1백인의 큰스님을 모셔서 설법케 하는 법회로 법왕사에서는 7년전부터 매년 한차례 이상 법회를 열어 영남의 대표적인 대중법회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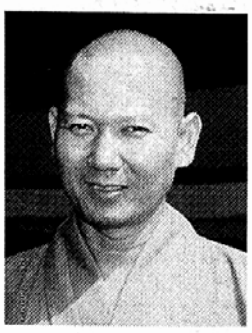
법 회 일 정

- 일시 :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 장소 :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 시간 :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부터 법문
- 문의 : 법왕사 종무소(☎ 053-766-3747, 9088)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재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중 禪을 대중속 禪으로"

한국선학회 초대회장 현각스님



"선방에 머물러 있는 선(禪)을 대중들의 삶으로 수혈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18일 한국선학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현각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장)은 선이 보다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학회를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먼저 선을 출가 수행자들만의 전유물로 인식한 채, 선사들의 말이나 화두를 해석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를 개선할 계획이다. 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사의 깨달음이 언설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그 동안 불교학 관련 학회들이 몇몇 특정 대학이나 학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점을 지적하며 "한국선학회를 전국 규모의 학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선학회는 이미 올 한해 동안 다룰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한 상태다. 또한 불교학자들과 일반 회원들이 동·하계 방학 때 산중 스님들과 함께 실참 수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맑고 깨끗한 생태환경 지킨다"

전남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스님



"지리산 및 섬진강 생태계 보호와 영광·여수지역의 반핵운동, 남해안 관광벨트화 반대운동, 2010년 해양 EXPO 최적지 선정, 씨 프린스호 사건 후유증 제거 캠페인 등에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4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환경운동연합 창립대회에서 공동의장에 선출된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문수종합사회복지관장)은 '심청정 국토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을 여법하게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을 이끌어 정회원 500명, 상근 직원 4명의 자생력을 갖춘 단체로 키워내면서 여수·여천공단 지역의 환경 지킴이로 이름 높은 진옥 스님은 앞으로 신안, 구례 등 전남지역 3곳에 지역 환경단체를 더 창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정치색을 띠고 이익단체화 할 경우 즉각 폐쇄시킨다는 것이 스님의 방침.

환경단체는 자생력과 공정성이 생명이기에 반드시 회원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스님은 자립기반을 갖춘 제대로 된 불교환경단체가 있어야만, 정부와 종단을 향해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불자들도 계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진옥스님은 평소에 각 종단이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해 왔다. 국립공원지역 사찰의 오폐수 방출 문제, 건축불사로 인한 산림 및 매장문화재 훼손,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생문제 등 사찰과 관련한 수행·문화재·생태환경이 모두 위험에 처해 있기에 불교계의 각성과 스님·신도들의 환경 마인드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

스님은 또 "장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종단과 불자들도 청정국토의 보존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일주문

미얀마 불교계 시찰차 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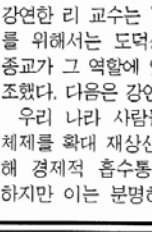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은 재무부장 남궁도재 스님, 사회부장 문덕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함께 미얀마 불교원로원장 소비타 스님의 탄신 90주년 기념 축하연 참석 등 미얀마 불교계를 돌아보기 위해 21일 출국했다. 29일 귀국.

노인 주간보호센터 열어



혜총 부산 용호복지관 관장은 최근 치매노인, 맞벌이 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했다.

'21세기의 한국선' 학술회의



법장 한국불교선학연구원 이사장(수덕사 주지)은 4월 7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수덕사 황하루에서 '21세기의 한국선'을 주제로 제2차 덕숭 선학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미황사서 참선실수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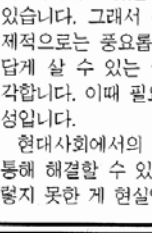
금강스님은 4월1일~2일 해남 미황사 세심당에서 참선법회를 지도한다. 내용은 답선, 참선실수, 발우공양 등이다.(0634)533-3521

동국대에 발전기금 2천만원



일성스님(대전 금강사)은 17일 동국대에 평생 모은 2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기증했다. 스님은 30년 전 77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가평 청평호 버스 추락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주인공이다.

한국불교연구원 26돌 기념법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창립 26주년을 맞아 4월 1일 오후 3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연구원은 그동안 불교의 연구·수행·실천을 통해 지성불교의 산실로 자리매김해 왔다.(02)3411-6167~8

최재구 회장 추모사업 모임



김양일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前 울산일보 회장)은 23일 동국대학교 상록원에서 최재구 前 동국대 총동창회장 추모사업을 위한 동문 모임을 가졌다.

'불교와 학문의 만남' 출판회

신준식 법륜불자교수회장은 19일 청도 운문사 대웅전에서 〈불교와 학문의 만남〉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륜불자교수회는 운문사에 동양화 '운문사계(雲門四季)' 기증식도 가졌다.

서울미대 조소과 동문 그룹전



이성도 한국교원대 미술교육과 교수는 2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서울대 미대 조소과 동문 그룹전 '어느 조각 모임' 전시회를 가졌다.

혜광맹인불자회 11돌 법회

김부봉 혜광맹인불자회 회장은 26일 춘천시 남산면 수동2리 와룡산 보림원에서 창립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송암스님 49재 영산재로 봉행

지난 2월 1일 입적한 인간문화재 송암 스님의 49재가 20일 신촌 봉원사 특설도량에서 영산재로 봉행됐다. 만봉(무형문화재 제48호 탱화 기능보유자)·법흥(원효종 종정)·인공(영산재보존회 회장)·구해(범음대 학장) 스님 등 1천 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1부 추모법회와 2부 영산대재로 진행됐다.



명락사 창건 25돌 기념법회

천태종 서울 명락사(주지 도원)가 창건 25주년 기념 법회를 19일 명락사 4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교무부장 춘광스님 등 종단 간부스님들과 김희철 관악구청장, 이상현·이훈평 국회의원, 명락사 신도 등 2천 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불교신문 창간 40돌 축하연

불교신문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간 4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발행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스님은 격려사에서 "파사현정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석주 스님(칠보사 조실), 가산불교연구원장 지관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서영훈 새천년 민주당 대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박준영 청와대공보수석 등 불교계와 정·관·언론계 등 5백 여명이 참석했다.



농림부 불자모임 '농불회' 창립

농림부 불자회가 23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발족했다. 30여 명이 모인 이날 창립법회에서 농불회는 월례법회를 정례화하고 신심함양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회장에 나승렬 농지과장, 부회장에 박상일 사무관이 선출됐다. (02)503-7264



장경각에 핀 '그림자 연꽃'

Focus

해인사 장경각에 연꽃이 피었다. 이 연꽃은 1년 가운데 낮과 밤의 길이가 꼭 같은 춘분(春分)날에만 피어난다. 지난 20일이 바로 그날. 오후 2시 장경각 안으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해 서서히 그림자의 위치가 이동하더니, 오후 3시께 연꽃 모양의 그림자가 극적으로 연출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통일한국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

리영희교수 조계사 열린강좌

조계사(주지 지홍)는 18일 리영희 교수(한양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교육문화회관에서 제11회 열린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일의 도덕성'을 주제로 강연한 리 교수는 "살기 좋은 통일국가를 위해서는 도덕성이 회복돼야 하며 종교가 그 역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통일이 남한의 체제를 확대 재상산하는 형태, 다시 말해 경제적 흡수통일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생각으로, 통일된 국가는 남한의 체제도 북한의 체제도 아닌 새로운 형태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한사회는 죽이고, 뺏고, 더 가지려고 하는 자본주의적 극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국가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도덕성이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미 학교가



붕괴된 지 오랩니다. 따라서 도덕성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종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뿐입니다.

통일 후에도 이런 도덕성은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종교계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며, 개개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통일된 국가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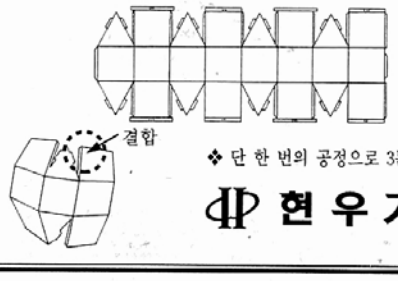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삼·부·농·산·은·슘·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6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불교언론인회는 정대스님에게 종단안정과 불교언론발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했다.

포교사 양성 · 사찰재정 공개 요구

불교언론인회 정대스님 초청간담회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초청 조찬간담회를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불교언론인회는 정대스님에게 종단 안정과 불교언론발전에 대한 공로의 뜻을 기리는 감사패를 수여하고 언론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간담회에서는 포교 인력 배출, 외국어 인력 육성, 사찰재정 공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직장불자회를 전담해 고정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원택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절 살림 운영에 바쁜 스님들이 쉽게 직장불자회를 맡기는 어렵지만 포교사 육성을 통해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영어인력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제포교사 양성에 좀더 힘을 기울여 적극적인 영어인력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것. 또 대학생 포교를 위해 여름방학 때 티벳 등을 방문해 불교수련은 물론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정대스님은 불교언론육성책에 대한 질문에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이 하나의 운영체제로 통합되어야 힘을 가진다고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는 운영주체가 달라 거의 현실성이 없는듯 보이지만 합치는 것이 불교언론이 힘을 얻고 살아갈 방법이라는 것이다.

서울 병원불자聯 뜬다

19일 수덕사서 합동수계

준비위 발족…곧 실무모임

서울지역 병원불자회들의 연합모임이 결성된다. 국립서울정신병원 등 7개 병원불자회는 19일 수덕사(주지 법장스님)에서 가진 연합 수계법회에서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준비위원회는 각 병원 불자회 회장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임원진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해 연합회 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가 결성되면 차후 전국 병원불자연합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불자연합회 준비모임을 가져온 불자회들은 그동안 전국모임을 추진해 왔으나 지지부진하자 우선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 먼저 발족시키기로 했다.

서울지역 병원불자연합회를 모태로 병원불자연합회가 창립되면 각 병원불자회간 정보 교류 및 친목도모를 통해 체계적인 신행활동과 환자포교 방안 모색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합회 준비위원회는 각 병원불자회에 대한 교섭 뿐만 아니라 연합회 구성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연합회의 실천적 역할과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고 있다.



◇수계법회에 참석한 회원들 가운데 초발심자들은 수계를 받고 더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앞으로 결성될 연합회는 각회간의 친목은 물론 침체된 병원불자회에는 힘을 보태고 모범 불자회에서는 그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각 불자회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절충하고 배우는 알찬 연합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수련회를 가진 이후 두번째 연합법회로 봉행된 이날 수계법회에는 서울국립정신병원(회장 김주효) 국립의료원(회장 황영희) 국립경찰병원(회장 원형섭) 경희의료원(회장 황보추) 서울대병원(회장 조보연) 한일병원(회장 이영숙) 한국보훈병원(회장 김택선) 등 7개 병원 불자회에서 회원은 물론 지도법사들과 가족 등 116명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환자 포교 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발원하는 등 화합된 분위기였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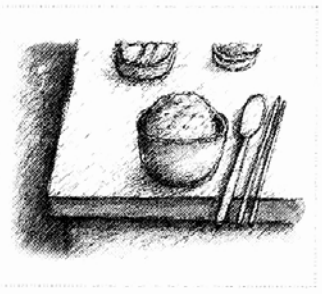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주 원
〈경불련 아침을 여는집 간사〉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읽어도 봤고, 들어도 봤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 막막한 질문이 더군요. 물론 어떻게 살아야 참 좋은 삶을 영위한 것일까라는 질문 앞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이 세상에서 삶의 질을 따지는 것이 참으로 쓸모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구계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들은 관계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이 관계적 성찰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자기생각'에 너무 빠져서, '자기'라는 존재에 너무 빠져서 그런 것은 아닐런지요. 그 누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생명으로서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적어도 셋 이상이랑 함께 말입니다.

왜 둘이 아니라 셋일까요.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둘'이라는 숫자만 충족하면 '생명의 관계'가 성립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곰곰히 더 생각해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더군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비유를 한번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엄마. 이 '둘'은 지구계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지요. 하지만 이 관계만이 아닙니다. 또 아기는 순종과 권위에 대상으로 '아버지'라는 두려움의 존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삶의 길'에서는 '셋' 이상이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드라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인간으로서 '성찰'한다 함은 무엇인가요. 아마 '자기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가 아닌 '나'를 생명으로서, 하나의 '우주'라는 근본적인 자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나의 우주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다른 생명 즉 다른 모든 이들의 코스모스를 업신여길까요.

실직노숙자 그 거리의 보살들도 '우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각하지 못한 '우주'를 지닌 그들만의 삶의 공동체 '아침을 여는 집'엔 자주 밥상 위에 숟가락 수가 바뀌지요. 오늘도 새로 오는 가족을 위해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챙기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별 어려움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것이 사람 하나 더 가족으로 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사람 하나 더 가족되는 일만이 아니더군요. 서로 서로 관계를 맺는 일이었습니다. 고귀하신 분들이 징그러운 벌레처럼 여기는 거리의 사람에게도 기쁨과 슬픔과 아픔의 추억이 있고 또한 추억은 거리의 사람들의 현실이기도 하더군요.

밥상 위에 올려질 숟가락 하나는 먹을거리의 해결과 다른 가족들과 또 다른 추억이 함께 하는 것이며, 다른 가족들을 억누른 현실을 규정하는 다양한 추억들과 화합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많다고도 적다고도 할 수 있는 아침가족들이 스쳐간 자리엔 아직도 낯선 서늘함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젠 뚝뚝히 알겠습니다.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더 놓여진다는 것은 새로운 추억과 기존 추억 이 둘간의 만남의 장이라는 것을….

오늘도 한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새로운 추억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낯선 서늘함만 남기고 떠나가더군요.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가슴 깊이 올라옵니다.

숟가락 하나! 인드라망 속에서 관계적 성찰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그 소박한 스승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자신 사랑해야 남도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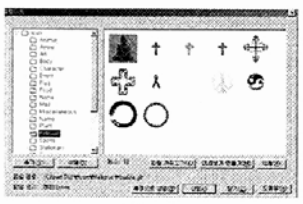
클립아트로 멋진 배경화면을…

홈페이지 만들기 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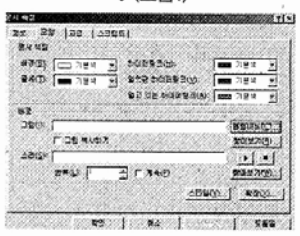
다양한 아이콘과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는 클립아트는 어떻게 사용할까. 그림이 들어갈 위치에 커서를 놓고 클립아트 삽입 아이콘을 누른다. '클립아트' 대화상자가 나오면 왼쪽의 아이콘 종교(religion) 항목을 열고 원하는 그림을 선택한다. 삽입을 누르면 커서가 있던 위치에 새 클립아트가 삽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배경화면에 색깔을 주기 위해서 문서의 편집화면 아무 곳에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 단축메뉴가 나오면 '문서속성'을 선택한다. '문서속성' 대화상자에서 '배경'의 목록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색 가운데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른다. 다음 확인을 누른다. 내가 만드는 문서의 배경색이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클립아트로 배경을 바꾸려면 역시 '문서속성'을 눌러 배경이 아닌 그림의 클립아트를 누른다. '클립아트'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왼쪽 창의 '배경' '이미지'를 선택한다. 오른쪽 창에 나타난 그림들 가운데에서 고르고 삽입을 누르면 된다. 〈그림2〉



◇〈그림1〉



◇〈그림2〉

클립아트에 없는 외부 그림이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려면 '문서속성'에서 클립아트 밑의 찾아보기를 선택해 그림을 불러오면 된다. 선택한 그림을 열기 창에서 미리 볼 수도 있다.

우리 모임에선

대구산악인회장 김장근씨



대구불교산악인회는 26일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및 3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새회장에 취임한 김장근〈사진〉씨는 "올해 포교에 더욱 역점을 두고, 회원 배가를 위해 녹색환경 감시단과 더불어 '포교단'을 구성하겠다"며 "불교 교리와 신행 수계법회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에는 삼천포 사랑도 옥녀봉으로 3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053)255-3750

불교스카우트 윤독법회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권영일)는 25일 다보빌딩 15층에서 증도가 윤독법회를 봉행했다. 강술은 연재흠씨가 맡았다.

서귀포 거사림 '정토' 4집 내

서귀포정토거사림(회장 고용봉)은 회지 〈정토〉 4집을 발간했다. 이번 회지에는 정토거사림 활동 화보와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법문 등이 담겨 있다. (064) 762-6875

클릭! 새 홈 페이지

■전국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www.bulkwang.org/grim.html)-대회 소개를 비롯해 올해 대회 안내, 역대 대회 보기, 역대 수상작 보기 등으로 꾸며져 있다.

■박천호의 불교세상 (http://my.dreamwiz.com/y2000pch)-한국 중국 인도불교의 이해 불교계율에 대한 소개 오계 사미계 구족계 보살계 등

■노래하는 부루나(http://members.tripod.co.kr/buluna)-2월22일 개설. 음성보시를 하는 불교봉사단체 노래하는 부루나의 홈페이지.

■사찰에 관한 명상(http://net-in.co.kr/blackstar)-당간지주, 일주문, 천왕문 범종각 법당 탑 등을 소개하고 각 지역별 사찰 소개.

■석불카페(http://cafe.daum.net/seokbul)-3월13일 개설. 석불사 법우간 친목도모와 포교를 위한 홈.

■대불련 그 이름으로(http://cafe.daum.net/kbufleader)-3월17일 개설. 대불련 전국지부장 모임.

■용인불교학생회(http://www.freechal.com/ybh5972)-3월17일 개설. 용인불교학생회 회원들의 만남의 장.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토흙에서 10년이상 자란 무공해 오가피 ·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숍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창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 8588, 682-4965 (농장)
♣ FAX : 0333)682-5034

전국영탑 대리점 모집

■ 가족, 종중, 묘지의 혁신!
천안 영락사 영탑이 해결해 드립니다.
· 영탑기본형 1기에 유골 18기 봉안으로 묘지와 장례비가 경제적이며 사후관리가 편리하다. 문중, 종중, 탑30기 60기 90기 제작 설치도 합니다.
· 선산, 정원등 어느 곳이나 최저 3평이면 설치가 용이하다.
· 탑1기에 조상을 대대로 봉안하며 성묘나 제사 모시기가 편리하고 가족 화합이 잘된다.
· 화장은 어떤경우에도 후손에게 영향이 없으나 시신을 잘못 매장하거나 이장하면 종교와는 상관없이 우환이 생기며 유골을 버리면 후손은 반드시 후회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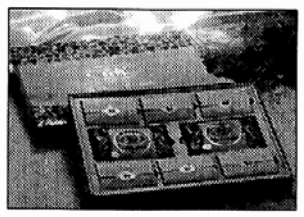
실용신안 등록번호	0172542호
의장등록번호	30-1999-0022081
탑기본형규격(1)	높이190cm, 넓이:100cm 세로100cm
유골함규격(원동형)(2)	높이 17cm, 지름:16cm
상석의 규격	가로 50cm, 세로65cm.

■ 영탑 분양 및 주문 제작 판매 설치
· 가족형, 종중형, 일반형, 종교형 기타 단체형
· 전국 어디나 신속 제작 설치가능
■ 전국 판매 대리점 모집
· 전국 시, 군, 구 단위
· 석재 가공 및 장묘 부대사업 부동산 소개업 점포 운영하시는 유경험자.
· 지역사회에 덕망이 있고 성실한 인사
· 희망자는 전화 또는 내사문의 요망
· 폐사의 소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숙식은 1박2일 무료 제공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번지
Tel : 0417)584-6674~6 Fax : 0417)584-2335
천안영락사 영락영탑공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함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정교분리의 참뜻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정치적인 일에 대하여 종교는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눈감고 귀막아 외면하며 거짓 초탈을 가르치는 종교로 불교를 전락시킬 뿐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여 현실의 정치적인 문제에 너무나 깊숙히, 또 사사 건건 개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세속화로 말미암은 종교적 권위의 실추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세속 권력과의 야합으로 인한 타락을 낳을 우려도 있다.

우선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종교가 특정한 권력 내지는 정치집단과 야합해서는 안된다는 말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가 현실의 문제를 눈감아 외면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잘못된 정치 현실을 바꾸어 보다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치 현실에 가장 초연할 수 있는 종교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되, 종교적 이념을 거울로 하여 잘못된 정치현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구체적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총선 불교연대에서 실시한 교계지도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정치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불자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적격 인사는 불교인이라도 찍지 않겠다는 많은 응답(52.1%)은 불교계 정치적 의식의 성숙도를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불교계의 독자적인 낙선명단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들(57.5%)은 아직까지 불교가 현실 정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준비를 갖추지 못한데 대한 우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우선은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지향하는 의식을 정치에 대한 불교의 기본 자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를 바탕으로 불교적 이념을 통해 정치현실을 올바로 비판하고 보다 낳은 정치 현실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제시하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들을 검토해야 한다.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불교로 서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문제는 얼마나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선을 지키면서 이러한 운동을 이끌어 내느냐의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의 자세를 버리고 범 종단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현실 정치를 살피는 제도와 기구를 설립하여 불자들의 정치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의 과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은 2500여년의 불교 역사와 1600여년이라는 한국 불교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94년이라는 설립의 연륜을 갖고 있는 한국 불교학의 메카로서 제 역할을 다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긴 역사 속에서 자리매김해온 불교대학이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존폐의 위기에서 표류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동국대학교에서만이 불교학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만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더욱이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연세대·고려대 등 문학·역사·철학을 하는 지방대학에서까지 불교학 연구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교대학의 체제 정비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 2월 24일 불교대학발전연구위원회가 발족되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기에 차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종립학교로서의 위상 정립이다. 불교대학에서는 그 동안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공부하여 교계의 많은 인재를 양성해왔지만, 종단 발전에 기여한 인적수급의 역할은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다. 즉, 교단에 꼭 필요한 성직자로써의 역할과 종무원으로써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적 지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교과과정 자체의 개선점이 요구된다.

둘째, 교역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지원자의 성향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졸업장이나 따기 위해 입학이나 하고 보자는 식의 학생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입시 전형이 예·체능계처럼 특수해야 하고, 교육과정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교수들의 폭넓은 대내·외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수를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불교대학에는 전공 불명의 교수, 학문적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일이다. 세계의 불교학 내지는, 불교의 세계화에 함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효율적인 대학이 되도록 서둘러서 체제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지난 1년여 미국 버클리·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난 1월말 귀국하면서 이호를 '소붕(小朋)'으로 정한 고은시인의 문학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시인 · 본지논설고문

산당화를 바라보며

제주도에서는 산당화가 2월 하순에 핀다. 1964년이었다. 그곳 친구네 집 뜰에서 그 분홍꽃을 보았을 때 내 취기가 얼른 깨어버리던 것이다.

10여년 동안 살았던 서울의 내 집에 산당화 한 그루가 있어서 그것이 제주도 시절을 이어주었다.

그 뒤 안성생활 20년이 다 된다. 세월이란 으레 과거가 많아져야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안성 집 뜰에도 산당화가 있다. 때때로 그것을 다른 꽃들에 가리어서 있는지 없는지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

줄기가 여럿이고 줄기마다 사나운 가시를 달고 있어서 거기에 몇번인가 손가락이 찔린 적도 있다.

3월하순 4월상순 사이에 그 꽃은 저녁무렵 요염한 등불인 듯 피어나서 서재의 창으로 내다볼 수있다. 안성은 서울보다 2백리나 남쪽인데도 기온은 낮아서 서울의 진달래 개나리 훨씬 뒤에나 그 꽃들이 피어난다.

나에게 산당화를 바라보는 일과도 관련된 시 한 편이 있다. '창 가에서'라는 것이다.

먼곳이 있다.
가까운 곳이 있다.

오늘 내가 쿠엇을 더 바라겠느냐.

여기서 흔한 허영으로는 먼 곳도 가까운 곳도 없다고 해야 맞다. 그래야 한 소식 얻은 수작으로 대접받기 마련이다.

그런 대접에 견딜 수 없는 거짓이 들어 있다면 그래서 한 소식 이전의 무딘 중생경계로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굳이 말했다. 이것은 본처에 돌아온다는 것과도 또 다른 행방인지 모른다.

수 많은 방황의 파란을 겪고 돌아온 자에게 어느 흐리터분한 날 창가에 서서 맞이하는 허심의 풍경이다. 그 풍경은 풍경이자 또한 하나의 심상과 둘이 아닌 뜻밖의 소식이기도 할 것이다.

겨우내 견디어내며
살아남은 놈들만이
봄맞이 꽃 한송이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나는 서울 나들이가 없는 날 일손을 잠시 놓고 일어서서 창 밖을 내다보는 것을 버릇으로 삼고 있다. 옛 시나 요사이의 어느 시 중에 문을 열지 않아도 밖에 눈 내리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럴듯한 정취를 내가 흉내내는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제 나는 그런 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문이 있다는 것은 그 문을 열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뜻한다. 그런 문을 닫아둔 그대로 밖의 일을 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은 풍류이되 어쩐지 힛된 풍류쯤이 되는 듯하다.

일손과 일손이 이어질 필요가 없다면 내 발로 나가 여기저기 뜰을 거닐어야 옳다.

산당화는 그런 나에게 오래 친구가 되어 주었다. 더러 푸대접을 해도 언제나 거기 그대로 서 있는 무표정에 내가 사로잡힐 때도 있다.

몇 해 전에는 가지들이 서로 얽혀서 전지가위로 여러 줄기를 솎아냈다. 당장은 이발한 것처럼 시원하고 다음 해에는 키가 냉큼 웃자라 내 가슴쯤으로 올라왔다.

겨울이 다할 무렵 아직 남은 추위에도 산당화 가지에는 꽃망울들이 촘촘히 달려있었다. 한편 애처롭기도 하고 한편 대견스럽기도 했다.

그 모진 추위에도 단 한번 꽃을 피우기 위해 이렇듯이 망울로 그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나는 산당화 뿐아니라 진달래 개나리 벚 산수유 살구 등 꽃나무들이 봄에 망울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난 가을에 이미 맺혀서 긴 겨울을 견디어 내는 사실을 알았다. 꽃망울이 먼저 맺혀 있는 것도 모르고 산 지난날이었으니 내 나이 헛 먹은 것이 아닐 수 없다. 도무지 흐르는 물이 내 골짝을 두고 다른 곳으로 흘러간 느낌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구나. 꽃망울은 지난 가을 모든 잎새들을 다 떨구는 것과 함께 맺혀서 그것으로 겨우내 견디어 내며 살아남은 놈들만이 봄맞이 꽃 한 송이로 활짝 피어나는 것이다. 꽃이 핀다는 것이 이토록 큰 수고 뒤에야 세상 천리의 앞뒤가 탁 트여 환하다는 것 아닌가.

그 꽃 한 송이도 쉽사리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다 헛되다 하나 다시 돌이켜보면 생생불식(生生不息)으로 헛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그래서 나도 아직 꽃 필 생각을 하지 않는 눈꼽만한 망울로 맺혀 있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 세상의 한 가녘을 제대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시 한 편을 써보았다. 시 '산당화'가 그것이다.

지난 가을 잠자코 꽃망울 맺힌 뒤로
겨우내
모진 추위에
견디지 못하면 죽음이었습니다
그 추위 견디어 내면
한층 더 강한 삶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나비 꿈이 어른거렸습니다

봄 소식이 이렇게 오나싶어서
맨 먼저 부픈 꽃망울을 터뜨리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서로 얼굴 보며 좋아합니다
아 꽃 좀 봐 꽃 좀 봐

하늘도 덩달아 짖빛 손뼉치며 두둥실 내려오니
산당화 두 그루입니다
분홍과 연분홍입니다

이 시에는 내가 뒤늦게 철이 든 것도 들어있는지 모른다. 철이 들었다. 철 없다는 말은 사람의 속사정을 네 계절의 운행으로 비쳐 놓은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나할 것없이 숫제 철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봄의 꽃을 가을에도 볼수 있고 5월의 장미도 사시사철의 꽃으로 피어 나고 있다. 어디 꽃 뿐인가. 봄의 나물들도 어디서 재배되는지 한겨울 반찬으로 나오기 일쑤이다.

이제 세상에 제 철이 필요없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사람의 심상이나 품성 속에도 자리잡아서 사람들의 어떤 경우 도무지 철 들지 않은 행태가 내내 자주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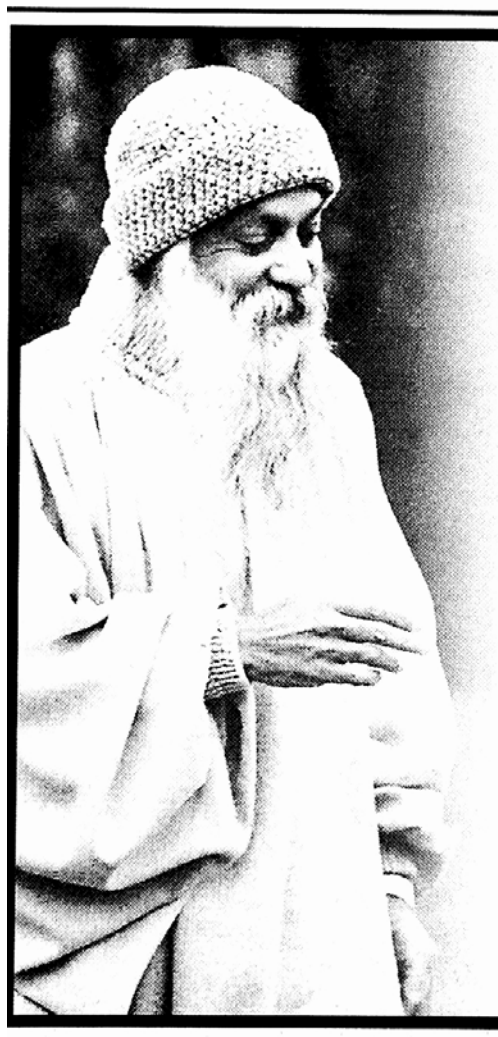
나는 16세기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한 인연을 떠올린다. 서산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제자 편양스님은 스승의 비문을 이정구에게 청해서 내금강 백화사에 세웠는데 나중에 편양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이정구의 아들 이명한이 그의 비명을 써서 백화사에 나란히 세웠다.

2년전 북한방문 중 내금강 백화도량 옛터에서 그 비 돌을 보았다.

아마도 그런 시절에는 자연으로서의 철과 인간으로서의 철이 제대로 운행되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고스란히 사람의 넋에도 제 철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 스승과 제자로도 이어지던 것이다.

지금은 지난 겨울과 올 봄이 따로따로인 듯하다. 사람도 어제가 없는 오늘만의 그것인 듯하다. 내 진정한 내면은 우리나라 네 계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서워하고 또 기뻐한다.

세상이 다 헛되다하나
다시 돌이켜보면
生生不息으로
헛된 것 하나도 없다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전2권 |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옳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서문 및 계당송)
10. 심무도
11. 신심명
12. 하란 연꽃(마하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인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부처님 가르침을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스토리 구성, 캐릭터 개발, 보급망 개척 등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새싹포교 보물창고인데…

불교만화 '불모지'

이제 더 이상 만화는 동네 한 귀퉁이 초라한 만화방에서나 접하는 일회성 소일거리가 아니다. 인쇄술과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만화는 이제 무한한 꿈과 상상의 세계를 맘껏 펼칠 수 있는 대중사회의 중요한 예술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90년대 이후 만화는 일반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평론가들도 만화를 본격 대중 문화의 영역에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등 만화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출판 만화분야가 정착되고 있고, 영상대중예술로서의 애니메이션도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상에서도 만화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각종 만화동아리와 만화 전문 사이트가 다수 등장했다.

경전만 의존 창작품 절대부족

그러나 이같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불교만화의 토양은 여전히 척박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불교만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서유기'를 꼽는다. 그만큼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우리에게 친근한 만화 주인공이라는 의미지만, 그 뒤를 이어 불교적 소재와 주제를 담은 만화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지 못한 까닭이기도 하다. 그동안 교계는 만화에 대한 관심조차 미약했었다. 그나마 매년 한두 권 정도 출간되는 번역본 만화와 소수의 창작 만화가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정도다. 그동안 선보인 불교만화 가운데 번역본의 경우 대다수가 일본만화를 수입 번역한 것들인데 도서출판 진흙소의 〈재미있는 불교만화시리즈 108〉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 창작 불교만화로는 〈만화 성철 큰스님〉(95년), 〈만화 삼국유사〉(96) 〈왕눈이 스님〉(2000) 등 고승들의 전기나 설화에 근거해 재구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아직 출판 만화분야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 애니메이션 분야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의 경우 불교의 사천왕상을 소재로 극장용으로 제작한 '철인사천왕'이 선보이고, 국제만화페스티벌에서도 노스님과 고아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크리스마스'가 우수상을 받는 등 미약하나마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지난 95년 불교텔레비전에서도 동자승과 스승의 짤막한 대화와 행동을 통해 깨달음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선만화'를 제작해 선보였고, 최근 개국한 인터넷불교텔레비전은 사이버 공간에서 '빛대리의 깨달음'이라는 네 컷짜리 만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나 기술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만화 손오공〉 등을 그려온 만화가 이정문씨는 "불자와 스님들이 만화라는 매체 자체를 아이들이나 보는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불교 만화는 항상 외면당해 왔다"면서 "또한 그동안 선보인 만화의 대부분이 경전이라는 원전에 충실하다 보니, 내용의 진부함이나 캐릭터상의 문제 등 만화적 상상력과 재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짜임새 있는 스토리 구성과 진한 감동을 담은 3차원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등장 등으로 일반 만화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아직 걸음마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불교 만화의 현실은 암담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뒷짐진 채 훌륭한 문화포교의 매개체를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팔만사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내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 스토리작가 양성해야

우선 전문 스토리 작가 양성과 이를 회화적으로 표현한 대중적인 캐릭터 개발, 만화의 제작과 보급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매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캐릭터를 이용한 포교와 괜시 사업 등 직간접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일회성 으락거리가 아닌 대중의 삶 속에서 만화가 새로운 불교문화의 전달자로, 포교의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땀 한땀 누빈 정성

김해자 '누비展'

4월12~18일 공평화랑

천 속에 솜을 넣고 땀땀이 바느질을 한 누비옷은 천과 솜이 세포처럼 살아 숨쉬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보온효과가 탁월하다. 옛날 승복이나 병사들의 방한복은 모두 손누비옷으로 만들었으나 재봉틀이 나오면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김해자씨(49, 경남 창녕군 영산면 동리)가 4월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공평화랑 2층에서 손누비의 대중화를 위한 작품발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서 김씨는 5명의 제자들과 지난 3년간 공방에서 만든 손누비옷 100여점과 쪽, 홍화 등의 천연재료로 염색한 홍색 흑색 황색 청색 백색의 오방색 천 10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아기옷 승복 개량한복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며 판매까지 할 예정. 전시기간중 누비옷 제작시연과 공개강좌도 실시된다. 강좌의 주제는 '전통누비의 가치와 계승(13일)' '문화 속의 복식과 민족성(17일)' 등. 15세부터 누비옷을 만들기 시작한 김씨는 한 스님으로부터 3년간 전통누비옷 제작기법을 전수받았으며, 지난 96년 무형문화재 누비장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누비옷 전수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꿈이라는 김씨는 앞으로 대구 밀라노 프로젝트와 연계해 누비옷의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씨는 "누비바느질은 똑같은 작업의 끝없는 반복이므로 고도의 인내와 정신집중을 요구해 '이뤄꼬' 화두를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0559)521-2631

이윤호 기자



◇누비장 김해자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손누비옷 100여점과 천연염료로 염색한 오방색천 100여점을 선보인다.



◇연극 탈속은 무봉스님의 수행과 환속, 방황, 산문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존재의 본질 무엇인가

불교연극 '탈속'

인천연극제 무대에

29일~4월23일

깨달음의 경지를 찾아가는 수행자의 인간적 번민과 그 해결과정을 그린 불교연극 '탈속'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항아리'(대표 장정희)가 준비중인 연극 탈속은 29일부터 4월23일까지 열리는 '2000년 인천 연극제'에서 선을 보인다.

작가 김영무씨의 희곡을 이재상씨가 연출하는 이 연극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존재의 근원에 탐착하는 무봉스님과 평범하지 않은 스님의 뒤를 쫓는 종교기자 한부장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무봉스님의 수행과 환속, 방황, 다시 산문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기둥 줄거리인데, 그 전개과정이 잔잔한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연출을 맡은 이재상씨는 "자극적이고 상업주의적인 연극들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스님의 환속과 깨달음이라는 주제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등장인물들의 내면과 심리상태를 통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을 표현해 나갈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이 연극은 삶의 본질, 깨달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방황과 고민을 무봉스님과 한부장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극단 항아리는 지난해 방송 촬영중 얻은 질병으로 별세한 불자탤런트 고김성환씨가 오랫동안 이끌어 온 인천지역의 극단으로, 김씨의 뒤를 이어 아내 장정희씨가 대표를 맡아 이번 인천연극제에 작품을 출품했다. 또한 이번 연극에는 인천 구인사 능화스님이 불교관련 의례를 고증하는 등 고문을 맡기도 했다. (032)862-9683.

이은자 기자

4월12~16일 진주 경남도문화예술관

5월5~14일 지리산 지통사

비구 노사나 산중전

지리산 자락의 토굴에 기거하면서 그림을 수행의 방편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해 내고 있는 상묵스님이 전시회를 연다.

4월 12일~16일까지 진주시 경남도문화예술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비구 노사나 산중전'이 바로 그것.

군더더기 없는 선과 절제된 색채, 그리고 자연의 이법에 따른 듯한 부드러운 선들의 조화를 통해 자연과 부처,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도 소품에서부터 대작에 이르는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작품 가운데는 섬진강의 모래와 조약돌, 유화를 적절히 조화시킨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엄마와 들녘에서 돌아오는 소녀'에서는 동심과 불심의 상관 관계를 포착하고 있으며, '선다(禪茶)'에서는 수행자들의 세계를 표출한다.

진주 전시에 이어 스님은 또 5월 5일~14일에는 지리산 지통사에서 '산중전'을 열 예정인데, 이 전시에서는 800호 짜리 대작을 감상할 수 있다.(0591)759-0501

광주 비엔날레 29일 개막

제3회 광주 비엔날레가 29일 개막된다. '인(人 · man)+간(間 · spac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성'을 화두로 서구중심의 비엔날레와의 차별을 시도하고 있다. 45개국 25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6월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등 중의공원 전역에서 열린다.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특히 서울 가나아트, 국립현대미술관 등과 연계해 기획전도 펼친다. 또 서울 인사동 '가나아트 스페이스'에서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비엔날레의 주제 '인+간'이 새겨진 버튼, 가방, 각종 문구류 등 2백여 가지 상품도 선보인다.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큰스님 著 / 신국판 /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

큰 행복과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타큰스님의 열반….
큰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오리다.

오계이야기

일타큰스님 著 / 4×6판 / 3,500원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의 필독서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할 5계 !
계율을 잘 지켜 몸과 마음을 잘 단속하면 고요하고 맑은 선정을 이루어 지혜의 빛을 발하게 되고, 해탈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살생 · 투도 · 사음 · 망어의 근본 4계에 불음주계를 합한 5계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들어 각 계율의 연원과 지키는 방법, 계율을 범했을 때의 과보 등을 자세히 설했습니다. 이 책은 근본 계율에 깃든 의미를 깨달아 복된 불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불자들의 필독서입니다.

· · · 바른 수행의 길잡이 · · ·
일타큰스님의 다른 저서들

·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신국판 / 값 5,000원
· 기도 (祈禱) 신국판 / 값 5,000원
· 생활 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 불자의 기본예절 4×6판 / 값 3,500원
·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신국판 / 각권 6,000원
· 시작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신국판 / 값 5,000원
· 법공양문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5개 1세트) / 값 12,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시대·인물별 유식학 총정리



■이만교수 '한국유식사상사'



'의연의 유식교학' 등 논문 16편 묶어 삼국~조선후기 유식사상사 소개

화엄·유식·법화사상. 이는 우리 나라 불교학사의 큰 맥을 형성해 온 사상이다. 그러나 유식은 화엄이나 법화에 비해 연구가 미진했던 것이 저간의 현실이다. 특히 사상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불교사에 있어 유식에 대한 사상가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구려의 의연스님과 신라의 원광, 원측, 자장스님 등이 중국 유학을 한 후 많은 스님들이 유식학을 연구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 불교사상사의 정수인 유식학을 처음으로 시대와 인물별로 정리한 이만 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한국유식사상사〉(장경각)는 '한국유식사상사 총정리'라 할 수 있겠다.

이 교수가 15년 동안 고구려시대부터 백제, 신라, 고려 및 조선까지의 유식사상가와 전적들을 발굴·조사·정리한 이 책은, 우리 나라 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유식학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연구 활성화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유식사상가들을 보면, 고구려 의연스님과 백제 의영스님, 신라에서는 원측, 원효, 경흥, 자장, 도증, 도륜, 태현스님 등 이미 알려져 있는 유식 사상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순본, 현륭, 영인, 지인, 신방, 순경, 승장, 의적, 행달, 명정, 현범스님 등의 행장과 사상 그리고 전적까지 깊이있게 고찰하고 있다. 고려시대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스님과 수미스님, 조선시대에서는 최눌스님의 전적을 통하여 모든 법의 본성을 밝히는 법상의 교학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지금까지 중국 스님으로 알려져 있던 순본, 현륭, 의빈스님을 신라스님으로 새롭게 확인했으며,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으로 추측되었던 〈성유식론〉에 관한 신라 유식가들의 주석 내용들도 여러 전적에서 가려뽑아 새롭게 정리했다. 이는 이 책이 이룬 큰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 유식교학의 효시로 추측되는 의연스님의 생애와 유식사상을 조명하고 있는 '고구려 의연의 유식교학'을 시작으로 '조선 후기 백파의 유식사상'까지 모두 16편으로 엮어진 이 책은, 지금까지 파악되지 않은 삼국시대의 유식사상은 물론 고려, 조선시대까지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점은 유식학뿐만 아니라 불교사상 연구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부록으로 인명과 서명에 대한 용어 해설 사전을 곁들여 유식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준다.

이만 교수는 머리말에서 "유식학을 연구하면서 여러 연구서들을 접하던 중 〈일본유식사상사〉를 읽고, 내용 상당 부분이 우리 나라 유식사상가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유식사상이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쓰여진 데 대해 자괴감을 느껴 〈대정신수대장경〉을 토대로 이 책을 펴내게 됐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불교와 과학 한뿌리에서…" "과학은 불교의 부분집합"

김성규 교수 '불교속의 과학…'



과학과 불교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는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과대)가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우리출판사)를 내놓았다.

이 책에서 김 교수는 "엄밀히 말하면 과학은 '불교의 부분집합'이다"고 말한다. 집을 지을 경우, 과학적인 방법이 기초는 기초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부분적으로 전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 불교적인 방법은 한번에 집 전체를 구상하는 것이다. 즉 어떤 명제에 도달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은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만, 불교적인 방법은 상황을 종합함으로써 분석적인 물음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불교와 과학의 근본 뿌리는 같다고 보고 있다. 뉴턴의 만유인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불교의 화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뉴턴의 화두는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만 떨어지는가'인데, 이것은 '왜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죽어야 하는가'하는 화두와 같은 뿌리라는 것이다. 또 과학이 벽을 허무는 작업이라면, 불교는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김 교수는, 구멍을 뚫고 나면 그 구멍을 통하여 자신과 우주는 하나가 된다고 말한다. 결국은 과학과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불교는 과학이다'는 시각에서 쓴 이 책은 '깨달음과 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슈뢰징거의 고양이와 불교적 깨달음', '양자역학과 불교', '양자론 그 에너지 다발의 화두', '불확정성 원리(1·2)' 등을 통해 물질과 정신 즉 과학과 불교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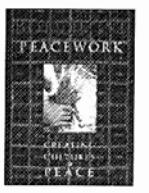
글쓴이는 머리말에서 "불교와 과학의 터널은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빈곤으로 인한 세계 문화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서구 문명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인식의 물질을 창출할 수 있는 서막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다양한 과학적 접목이 인식의 폭을 넓힐 것이다"고 밝혔다. 값 7천원.

김중근 기자

해외신간



▲초심자를 위한 선불교 가이드(진 스미드 지음)= 실참 수행을 어떻게 또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서구인들을 위해 미국인 법사 진 스미드(Jean Smith)가 〈초심자를 위한 선불교 가이드(The Beginner's Guide to Zen Buddhism)〉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선불교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선사들의 수행담 뿐 아니라, 실참 수행을 시작하는 초심자들이 궁금해하는 자세와 옷차림 그리고 선센터까지 망라하고 있다. Bell Tower 발간. ISBN 0609804669



▲평화를 가꾸는 스승들(데이비드 w. 체겔 지음)= 세기의 문지방을 넘으며 세계적인 석학들은 '환경오염' '자원고갈' '빈부격차' '전쟁위험' '윤리회복'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이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데이비드 w. 체겔(David W. Chappell)의 〈평화를 가꾸는 스승들(Buddhist Peacework-Creating Cultures of Peace)〉은 이러한 당부에 대한 불교의 회답이다. Wisdom Publications 발간. ISBN 086171167X



▲불교의 건축물들(웨이 랜 지음)= 중국의 사찰 건축 양식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중국인 건축학자 웨이 랜(Wei Ran)이 내놓은 〈불교의 건축물들(Buddhist Buildings)〉이 바로 그것. 중국 고건축 시리즈의 하나로 펴낸 이 책은, 인도의 사원 양식이 중국으로 건너와 이곳의 건축 양식과 습합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중국 특유의 사찰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Springer Verlag Vienna 간행. ISBN 321183009X



▲서양의 참여불교(크리스토퍼 퀸 지음)= 서양 불교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인 참여불교운동에 대해 궁금한 불자가 있다면 〈서양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in the West)〉야말로 반가운 책일 것이다. 6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미국 참여불교 운동사를 밀착 조명한 이 책은, 미국 참여불교의 '역사' '인물' '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Wisdom Publications 간행 ISBN 0861711599

'한글 원각경' 나왔다

원순스님 번역



함허 득통스님(1376~1433)의 〈원각경소〉가 승가대학(강원)에서 교재로 사용한 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신간 〈한글 원각경〉(법공양)은 원순스님이 송광사 학인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한글세대에 맞게 경의 원문을 현토하고 번역했다. 이 책의 특징은 누구나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해 가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원문을 번역하고 그에 맞게 토를 달았다는 것이다.

승가대학에서 〈화엄경〉을 배우기 전에 보아야 하는 필수 과목인 이 경은, 열 두 보살이 원각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절차를 묻고 부처님께서 답변한 소중한 경전이다. 하지만 공덕찬(功德讚)이 없는 탓에 〈법화경〉이나 〈금강경〉처럼 애송되지 못했다. 이미 함허스님이 700여 년 전에 〈원각경〉을 풀이해 원각의 진면목을 드러냈으나, 한문 문장이어서 승가에서만 읽혀졌을 뿐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출간된 〈한글 원각경〉은 한문의 벽을 넘지 못한 불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원각의 대의를 널리 알리는 또 다른 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역해자 원순스님은 "〈화엄경〉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경전의 가르침은, 큰마음으로 수행하여 무상한 세상의 실체를 보는 것이다"며 "모두 다 이 원각의 인연으로 세상의 다툼 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세계가 되길 발원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한글 원각경〉은 82년 해인출판사에서 발행한 〈원각경 함허해〉를 저본으로 하여 번역했다. 값 2만5천원.

김중근 기자

마이산 탑사의 숨은 이야기

진현종씨 '한국의 불가사의'



자연의 절경과 인공의 기경이 어우러진 마이산 탑사에 얽힌 이야기를 낱낱이 드러낸 〈한국의 불가사의 마이산 탑사〉(은행나무)가 나왔다. 탑사의 돌탑 축조자를 놓고 이견이 분분했던 것이 이 책의 출간 배경이다. 때문에 이 책은 탑사의 돌탑 조성과 얽힌 일화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돌탑 축조자로 알려진 이갑룡 처사에 대한 일화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갑룡 처사가 돌탑을 어떤 방법으로 축조했는지, 또 그에 얽힌 이야기 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진현종씨가 엮은 이 책은 신비한 마이산에 얽힌 이야기, 마이산 탑사의 영험, 마이산과 산 주변의 명소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특히 혜명스님이 공개하는 '돌탑을 쌓는 비법'은 눈여겨 볼만하다.

영어로 읽는 '한국불교의 천태사상'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최근 선·화엄사상과 함께 한국불교의 중심 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천태사상을 조명한 영문판 〈한국불교의 천태사상·Cheontae Thought in Korean Buddhism〉을 발간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태사상의 수용과 전개 그리고 발전을 다룬 이 책에는, '삼국시대의 〈묘법연화경〉에 대한 이해와 믿음'(김영태), '〈묘법연화경〉에 근거한 원효 스님의 사상'(이기영), '고려 초기 천태학과 그 역사적 의미'(김상현), '천태종의 형성과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재창) 등 모두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10여 년 전부터 영문판 '한국불교사상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 동국대는 이어 영문판 〈한국불교의 미륵사상〉을 2001년에 발간할 예정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불교학개론' 개정판

동국대출판부 15년만에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과 동국대 학생들의 불교교양 입문서로 널리 읽혀왔던 〈불교학개론〉이 15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됐다.

동국대 출판부는 기존의 작은 활자체를 크게 변형하고, 국한문 혼용에서 전면 한글로 편집한 개정판 〈불교학개론〉을 내놓았다. 이 책은 척박한 불교 전문출판계에서 역사적, 교리적 측면에서 불교를 고찰한 양서로서, 그동안 소리 없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 해왔다.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근본교설, 대승불교, 교단의 형성과 생활, 불교와 현대사회 등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학생 및 일반인들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값 8천원.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김용옥 선생, 그건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2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각	열림원
3	선방일기	지허	여시아문
4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일타	효림
5	적멸의 즐거움	정휴	우리
6	지장신앙 지장기도법	김현준	효림
7	금강경강해	김용옥	통나무
8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 미첼	여시아문
9	거지성자	전재성	선재
10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도서 안내:(02)737-0695

【 불교이해의 새 저서 】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밝혀낸 역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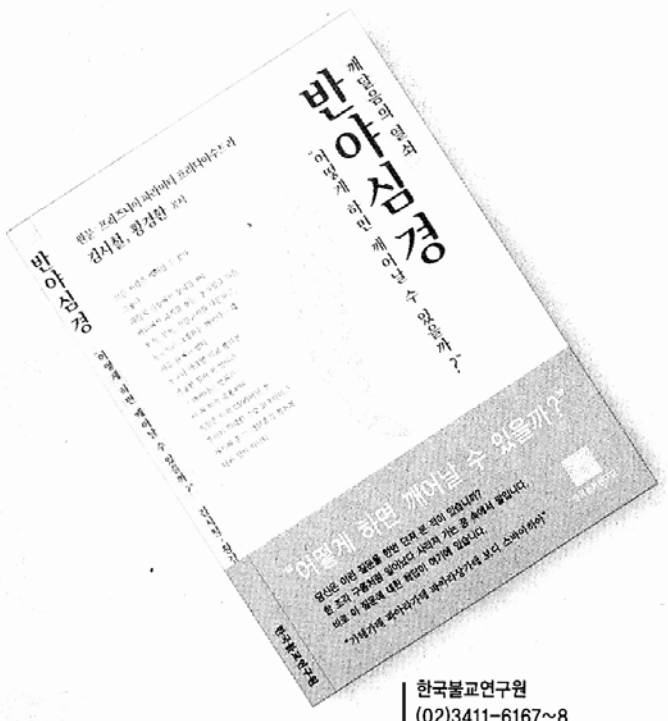
(원문:프라즈냐아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한국 최초의 반야심경 원문 해설서 !!!
한국 불교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업적 !!!

2,500여년 전 위대한 스승
고오타마가 제시해 준 그 올바른
깨달음의 열쇠 !

반야심경에는 중요한 핵심과 비밀이 있다.
그 핵심과 비밀을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밝히는 다섯개의 짧은 만트라(주문)
"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아상가테 보디 스바아하아"
그 핵심과 비밀을 이 책안에서 만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치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유식, 무식,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이든 그것과는 깨어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며 미국 휴즈사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지낸 김사철 박사와 한국불교연구원의 황경환
연구위원이 함께 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세계!
실험과 증명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8
/ 값 7,500원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의 공사 전 모습.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억6천만원을 투입해 해체·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봉정사 대웅전 언제 세웠나

'1361년 조성' 묵서 발견 지붕속 부재 고려양식 '最古 목조건축' 가능성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경북 안동시)에서 최고(最古)가 속출하고 있다. 불단에서 '1361년, 고려 공민왕 10년에 불단 조성'이라는 묵서가 발견된 가운데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최대(最古·最大)의 후불 벽화가 발견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전 건립 연대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보다 더 미묘한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대웅전의 건축 양식과 1962년 실시한 보수 공사에서 발견한 '1601년에 중수했다'는 묵서에 따라, 이 건물의 건립 연대를 '조선 초'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건축 전문가인 신영훈 씨 등은 〈봉정사사적기〉와 대웅전 내부 구조를 토대로 '고려말' 건립설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논쟁의 핵심은 봉정사 대웅전과 극락전(국보 제15호)을 놓고 '최고(最古) 목조건축물'이란 타이틀을 어디에 줄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극락전은 1363년(고려 공민왕 12년)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주심포 양식이어서, 건축학계에서는 1300년 전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 대웅전 불단 내부에서 새롭게 발견한 '1361년'이라는 묵서는 지금까지 '가설'로만 제기되었던 '고려 말 건립설'에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한 실증적 기록이며, 동시에 '최고 목조건축물'의 타이틀에도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묵서 외에도 이번 해체·보수 공사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난 대웅전 건축 골격은 조선초기의 다포 양식이지만, 지붕 속의 부재 양식은 고려시대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봉정사 극락전 외부 단청과 유사한 문양의 단청들이 있어, 대웅전은 늦어도 14세기 중엽에 세워진 건물일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이에 대해 동국대 김동현(문화재위원) 교수는 "봉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에 건립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며 천장과 마루가 설치되는 등 양식상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웅전은 고려시대에도 존재하였지만 그 양식은 수차례의 중수 과정을 거치며 조선 초 건물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단지 대웅전의 부재들은 고려시대 건물에서 나온 목재를 사용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공사를 맡고 있는 문화재청은 대웅전 건립 연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통상 대웅전을 먼저 세우는 사찰 건립 관행과 고려·조선시대의 건축 양식이 복합된 점 등을 들어, 봉정사 대웅전이 극락전보다 건립 연대가 다소 앞선다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대웅전에 대한 적외선 촬영과 방사선 연대 측정 등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정확한 건립 연대 추정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봉정사 대웅전의 기둥이 침하되고 또 부재가 부식되는 등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지난해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총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체·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동 봉정사는 627년(신라 문무왕 12년)에 의상 스님이 창건한 사찰로, 경내에는 고려시대에 건축된 우리 나라 최고의 건물인 극락전, 조선 초 세워진 화엄강당(보물 제448호), 고금당(보물 제449호), 만세루 등이 남아 있어, 고려·조선시대 목조 건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봉정사 대웅전 불단 내부 상판에서 발견된 묵서. 至正二十一年鳳亭寺啄子造成: 1361년(고려 공민왕 10년)에 봉정사의 불단을 만들다."는 글씨가 선명하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 장면.

원효사상 국제학술대회 열려

원효(617~686) 스님의 불교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 '원효사상과 21세기-원효로 돌아가자'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3일 경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효 스님의 보살행을 21세기 NGO시대의 가치관으로 정립하고, 화쟁사상을 계층·지역·계급 갈등 해소의 사상적 배경으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불교신문사 주최 동북아평화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관(가산불교문화원)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박성배 교수의 '화쟁사상의 본질', 신오현 교수의 '현대철학의 한계와 원효사상', 카와이 교수의 '원효사상과 세계평화' 등이 발표됐다. 이어 속계된 토론에는 김진홍 목사,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 스위스 응연구소 이죽내 교수, 청계사 주지 지명 스님, 산업자원부 김영호 장관, 동국대 정병조 교수 등이 참석했다.

"13세기 정혜결사 불교 현실참여"

조명제씨 한국선학회 발표회서 주장

"13세기 수선사에서 시작했던 불교의 개혁운동은 간화선의 현실 참여적 성향과 민족의식에서 비롯됐다." 18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개최된 '한국선학회 창립총회 및 1차 월례발표회'에서 조명제(부산대 강사) 박사는 '13세기 수선사의 현실 참여와 간화선'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조 박사에 따르면 수선사의 선풍은 지눌(1158~1210) 스님에 의해 다져졌는데, 지눌 스님은 남송시대 중국 불교계의 개혁을 주도했던 대혜(1089~1163) 스님의 선풍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지눌 스님의 〈대혜어록〉 중에서 "고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일상 인연에 응하는 곳이나,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참구해야 한다"는 구절에 특히 주목한 조 박사는 "수선사의 선풍은 일상 생활 속에서 참선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13세기 '무신란'을 기점으로 수선사가 정혜결사를 결행, 불교 내부의 타락을 비판하고 출가자뿐 아니라 세속인에까지 실참수행을 펼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 셈이다. 또한 조 박사는 수선사 2세 혜심(1178~1234), 6세 충지(1226~1282) 스님 등의 활동을 조명하고, 국가와 민중을 먼저 생각했던 수선사의 선풍이 면면히 내려온 것을 입증했다.

이외에도 김종명(서강대) 교수는 '북미주 학계의 선불교 연구 현황'을 발표하고, 이곳에서의 한국의 선불교 연구는 지눌 스님을 중심으로 한 특정 선승들의 삶과 사상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응용연구 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미주 선불교 연구 경향과 상당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선학회는 동국대 불교대학장 현각 스님을 2년 임기의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학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선학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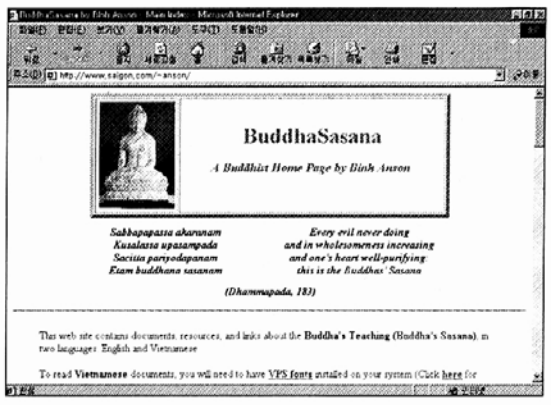
학술단신

뇌허학술상에 김상현 교수

뇌허불교학술원(원장 관응 스님)이 주관하는 제15회 뇌허학술상 시상식이 4월 5일 오전 10시 서울 정각사에서 열린다. 故 김동화 박사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학술상인 뇌허학술상 수상 논문으로 김상현(동국대 역사학과) 교수의 '신라의 사상가 문화'가 선정됐다. 이 논문은 통일기 신라 사회의 변화와 그에 대응해 새롭게 전개된 교단의 활동과 불교사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인 의의를 찾고 있다. (02) 742-1231

'불교학보' 34집 발간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불교학보〉 제34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선종전등설의 성립과 발전'(성본 스님)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홍윤식) '대승사상에 대한 부파의 배전(排戰)과 그 비판'(권기종) '조선불교 유신론의 의례관'(김호성) '초기 불교교단과 국가간의 관계'(신성현) '문화경관론적 측면에서 고찰한 백제불교 영광도래설'(홍광균) 등 논문 18편이 실려있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붓다사사나

베트남 불교의 사회활동 '접속' 불교논문·자료도 체계적 정리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여러 논문과 원전에 관한 소개가 영어와 베트남어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붓다사사나(Buddha sasana)'이다.

베트남 불교학자 빈 안센 박사가 개설한 이 사이트는 불교 전반에 대한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이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베트남 불교의 변모도 살필 수 있게 한다.

에피소드 중심으로 불교를 쉽게 소개하고 있어 초심자들이나 일반인들도 큰 어려움 없이 불교의 맥을 짚어낼 수 있다.

이 곳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와 논문들은 총 41편. 여기에는 '달마의 세 가지 서약' '명상과 환생의 유용성' '빨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불교와 환경보호운동' '숲 속의 맑은 영혼' '불교와 민주주의' '진실한 불자의 길' 등이 있다.

이중 '빨리어 대장경에 대한 개괄적 검토'에는 경전의 결집과 경·율·논 삼장의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다.

'불교와 환경보호운동'에서는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불교잡지 편집장인 티얀 스님의 글을 읽을 수 있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신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 생명체와 환경의 보호"라고 강조하고 있다. 티얀 스님에 따르면 수천년동안 산과 숲 속에 건립된 사찰들은 인간과 자연이 얼마나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식주의자인 스님들은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야생동물들과 조화롭게 살아 왔다는 것이다. 티얀 스님은 "의부환경이 심하게 오염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이미 황폐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며 "만족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식과 진실에 관한 갈망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며, 안분 지족의 자세에서 환경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

'진실한 불자의 행로'는 스리랑카의 유명한 선승인 마하나야케 스님이 영국 사드하티사(Saddhatissa) 국제불교센터와의 인터뷰를 게재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마하나야케 스님이 현대의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꼽은 20가지 실천 덕목은, 지금까지도 영국인 불자들의 생활 지침이 되고 있다고 한다. 스님이 강조한 실천 덕목에는 '가난할 때 자비를 베푸는 것'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수행하는 것' '경전을 읽을 것' '욕망과 욕정에 종속되지 않고, 그것들을 간직할 것' '사물에 대한 분별심을 억제할 것' '물질적인 유혹을 견디어 낼 것' '폭넓게 공부하고 모든 사물을 철저히 분석할 것' '평정심을 유지할 것'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교리에 관한 개괄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 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살아있는 부처' 등도 찾아볼만한 글들이다.

오종욱 기자

△http://www.saigon.com/~anson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화제의 신간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비방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내 병은 왜 낫지 않을까?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끌리지도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오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스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최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야단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스요법 비디오



파스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스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스 한 장이면 뚝! 각종 '남산스님의 파스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공급처 :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여류 소설가인 한말숙씨의 작품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다. 이 찬탄할 만한 작품은 유교, 불교, 기독교의 사상적인 편린들이 길합된 독특한 관점의 한가지 질문에 깊이 천착하고 있다.
- 선데이 타임즈(런던), 피터 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프리랜서 기자)

죽음과 삶, 사랑과 미움, 기독교와 샤마니즘이라는 전혀 상반된 세계들을 아름답게 화해시키는 소설
- 박완서(작가)

삶이란 무엇일까? 죽음은 무엇일까? 내세는 있는 것일까? 영혼이란 것이 있을까? 우연은 필연일까? 운명이란 있는 것일까? 인간의 보편적 의문들을 끈질기게 추구한 소설
- 유인순 (강원대 교수, 평론가)

9개 국어로 번역된 한국명작 한 말 숙 장편소설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



상상할 수 없는 것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을 묘사할 때 조차 저자는 지극히 단순하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즉 가장 신비로운 것을 가장 보편적인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가제다 (종란도), 헤레나 자워르쓰까 (문학 평론가)

새벽 5시 45분에 〈아름다운 영혼의 노래〉를 다 읽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유진과 석규, 기타 당신이 혼을 불어넣은 여러 인물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결론은 전혀 내리지 않고 인생을 그 매혹적인 풍요로움과 복잡함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 강의의 교재로 당신의 소설을 쓸 생각인데 허락해 주실는지요. 정말 당신이 내 마음과 영혼을 얼마나 강하게 뒤흔들었는지 알려드리고 싶군요.
- 루이스 R. 램보 (필프란시스코 신학대학 교수)

솔과학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76-1호 계진빌딩 5층 503호 Tel. 02)722-9780 Fax. 02)732-9787

"살인은 참회할 수 없는 죄"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12〉

오계상경-6

他人 시켜 목숨 빼앗아도 살계 해당
참회할 수 없는 죄 범하면 계체 잃어

그 때 부처님께서 정반왕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 왕은 설법을 다 듣고 난 뒤에 앞으로 나와 부처님 발에 절하고 부처님 주위를 빙 돌고는 물러갔다. 부처님께서 이 인연으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모든 우바새들을 위하여, 범계에 있어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 참회할 수 있는 것과 참회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고자 하느니라."

비구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비구의 율의는 대승(大僧)의 법이라서 세속인이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계는 우바새 즉, 재가자가 배워야 할 계율인데 무엇 때문에 정반왕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왕이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이 인연을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래께서 칠중(비구, 비구니,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 우바새, 우바이)의 계법을 모두 비구 승가를 향하여 결제(結制)하신 것은, 비구가 칠중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이며, 승보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모든 니대중(尼大衆)은 비구로부터 계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비구니계나 식차마나니계, 사미니계도 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데 하물며 오계가 비구에게 소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비구 승가를 향하여 오계를 말씀하신 것은 우바새와 우바이들이 비구에게서 계법을 배우도록 함인 것이다.

첫째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살계(殺戒)를 범하는 것, 즉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데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보내 살계하는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직접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 고 직접 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보내 살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무개를 아는가 모르는가. 아무개를 찾아가 그 사람을 붙잡아 묶어 두고 목숨을 빼앗아라.' 이렇게 시키는 것으로 목숨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바새가 살계를 범하게 되면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는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 가 성립된다. 첫째는 사람일 경우이다. 즉 죽임을 당하는 이가 사람일 때다. 둘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경우(人想), 즉 마음 속에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경우이다. 셋째는 죽인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넷째는 죽이는 방편(방법)을 쓰는 것이고, 다섯째는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이다. 살계가 이 다섯 가지 인연으로 해서 참회할 수 없는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범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모든 계에 결죄(結罪)를 할 때는 모두 이러한 조건의 연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계를 범한 것이 되는데, 만약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곧 상품(上品)인 '참회할 수 없는 죄' 가 성립되고, 그 가운데 한두 가지 빠지게 되면 중품, 하품인 '참회할 수 있는 죄(可悔罪)' 가 된다.

본문에서 '자신이 직접 하거나(自作), 다른 사람에게 시키거나(教人), 다른 사람을 보내어 시킨다(遣使)' 고 하는 것은 모두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떤 방편을 일으킨 것이므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원가(怨家)가 눈앞에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것을 '교살' 이라 하고, 원가가 다른 장소에 있고 사람을 보내 죽이는 것을 '견사' 라 한다.

만약 '갑' 이 '을' 에게 시켜 '병' 을 죽이라고 하였을 때, '병' 이 죽으면 '갑' 과 '을' 모두 참회할 수 없는 죄를 얻는다. 참회할 수 없는 죄는 아주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마치 사람의 머리를 자르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과 같다. 참회할 수 없는 죄를 범하면 계체를 잃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맨 처음 우바새계를 받을 때, 삼귀의를 다짐하고 고백하는 일을 마치면 곧 무작계체(無作戒體)를 얻게 된다. 다음 주에 무작계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해인총림 율원장〉

'법구경' 러 국민의 불교 입문서

세계의 불교학 〈12〉 러시아 ③

볼셰비키 혁명 이후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러시아 불교학자들은 1957년 유리 레르흐(Yu.N.Roerich · 1902~1960)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당시 구 소련은 세계적 석학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그를 과학원 산하 동양연구소 인도종교 · 철학 · 역사실의 연구실장으로 일명하는 등 극진히 대우했다. 레르흐가 구 소련에서 활동하였던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그에게 교육받았던 후학들은 훗날 러시아 불교계의 중추적인 그룹이 되었다.

이 그룹 가운데 탁월한 불교학자로 꼽히는 인물은 토포로프(V.N.Toporov · 현 러시아 국립인문대학) 교수다. 그는 1960년에 레르흐의 제안으로 속간된 '불교전서 시리즈' 의 첫 권인 노어본(露語本) 〈법구경〉을 발간했는데, 이 책은 많은 소련인에게 '불교 입문서'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용수의 중관철학을 연구했던 쿠타소파(I.M.Kutasova), 〈경집〉의 번역과 주석에 몰두했던 루치나(V.P.Luchina), 〈본생경〉의 대중화를 위해 노어본 작업에 매달린 스르킨(A.Ya.Surkin) 등이 있었다.

1960~80년대 스탈린식 탄압과 통제가 완화되면서, 역경 · 교리 등의 분야에서의 번역 · 연구 · 출판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교를 종교철학으로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치나는 〈소련 백과사전〉이라는 인문분야 사전을 통해, 불교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 백과사전에는 '불교' '용수' '선' '나선비구경' '공' 등 불교의 대표적인 인물과 교리에 대한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소련 백과사전〉이 구 소련의 일선교육 현장에서 필수적 참고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루치나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불교학자들의 활동이 제한된 가운데, 경전을 연구의 주 텍스트로 삼는 일단의 학자들이 나타났다. 1960년대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들 언어학자 그룹은 당시에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구조주의와 형식주의 등의 연구 방법론을 토대로 불설(佛說)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 을 시도했다.

구조주의 방법론을 즐겨 사용하던 언어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은 현재 런던대학 부설 '동양 · 아프리카학 연구소(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강의하고 있는 피야티고르스키(A.M.Pyatigorskiy) 교수다. 그는



◇수행장소로 쓰일 건물을 짓고 있는 러시아 불자들.

1960~80 교리 등 경전연구 주류
학자들 구조주의 방법 즐겨 사용

'불교는 경계(인식의 대상)보다 식(識) · 심(心) 등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는 데 착안해 불교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불교를 서구적 의미에서의 철학이라기 보다 선정과 체험 등이 필요한 사유 체계로 파악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논리학에 바탕을 둔 서구적 사고와 선정에 근거하여 '해탈의 방편' 으로 존재하는 불교적 사유의 근본적 차이점을 정확히 알리고, 또 구 소련의 불교학계뿐 아니라 인접 학계에서 불설의 참뜻을 자리잡을 수 있게 한 인물이 바로 피야티고르스키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피야티고르스키의 제자 레나르트 미얄(Linnart Myall · 현 타르투 국립대학)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한된 텍스트의 전달이 아니라 새로운 텍스트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는 사유" 라고 정의해, 불설에 생명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사실 경전들은 시대를 거치며 경→ 론→ 소→ 법어 등으로 새롭게 생산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미얄 교수에 따르면 "불교가 텍스트로만 귀결시킬 수 없는 깨달음의 원천인 이상, 일체의 언어들을 이용하여 무한한 양의 텍스트들을 과생시킬 수 있다" 는 것이다.

1970~80년대에는 정보 유통 조차 거의 차단된 구 소련의 '닫힌 사회' 가 점차 물락을 향하고 있다고 파악한 레르흐의 후학들은 교학 연구뿐 아니라 대중적인 신앙 · 수행 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악업 더이상 짓지 마라" 고통은 자비의 메시지

법회중계

무량선원
〈2000년 3월 31일〉



재연스님
〈광주 무량선원 주지〉

고난이 닥쳐왔을 땐 남을 원망하지 말고 참회하고 감사해야

사람들은 흔히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늘을 원망하고, 또는 그 고난을 부모 형제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질서인 인과법을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와 생주이멸을 거듭하는 변화 속에 있지만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질서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인 것이지요.

부처님 재세시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은 다같이 사람의 목숨을 받았으면서도 무슨 인연으로 덕이 있는 자가 있고 덕이 없는 자도 있으며, 단명한 자와 장수하는 자를 비롯해 빈부귀천의 온갖 차별을 보이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모든 중생들 마음의 본성은 하나지만 저들이 지은 바 각자의 행한 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업보 때문에 온갖 차별이 벌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의 본성품은 차별이 없지만, 각자의 지은 바 업으로 말미암아 온갖 차별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시련과 고난은 반드시 그럴만한 과거의 업연이 있었기에 현재의 상황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 불자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나눠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리달마 대사는 〈이입사행론〉에서 수행자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현생에 죄를 안 짓고 바른 행을 하는 데도 지금 현재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무수한 겁에 걸쳐 사람들을 증오하고 살인했으며 상처입히는 온갖 악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괴로움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업연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면 마침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달마스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또한 부처님께서도 "만일 고의로 악업을 지으면 그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되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후세에 받는다" 고 말씀하셨으니, 지금의 고난과 시련은 과거 업연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불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둘째, 고난이 닥쳐왔을 때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법염처경〉에서 과보가 결정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악업을 짓고도 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참회는 몸과 마음으로 지나간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하고 육바라밀을 닦으면 무거운 업은 가볍게 소멸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했을 때, 불자들은 무엇보다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의 고난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우주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분명한 것이니, 현재의 시련과 고난은 지난 과거 혹은 과거생에 나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통은 그러한 악업을 다시는 짓지 말라고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자비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은 업연이 다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니,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과거 업연으로 인한 과보임을 생각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참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의 시련을 받아들인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눈녹듯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제2회 진각논문대상 공모

2nd Academic Award Of Jingak Order

대한불교진각종은 불교관련 연구 특히 밀교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진각논문대상' 을 매년 개최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 주 제 : 불교일반 (불교관련 제반분야 포함)
밀교일반 (밀교관련 제반분야 · 진각종 교학 포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전형방법 : 인적사항 1부 및 논문계획서 1부
▶ 전형일정 : 접수마감 - 2000년 5월 6일(토)
당선작 발표 - 5월18일
당선논문발표회 - 10월 13일(금)
▶ 당선작 및 상금 : 불교분야 2~3편 · 밀교분야 2~3편, 상금 각 200만원
▶ 접 수 처 : 136-132 서울시 성북구 월곡2동 22, 대한불교진각종 교육원 종학연구실
인터넷홈페이지 : www. jingak. or. kr
e-mail : jingak@chollian.net
전화 (02) 913-0133, 0134 / 전송 (02) 913-0135

※ 본 논문대상 당선작에 한해 다른 논문 응모제에 당선되었거나 기타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당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밀교강좌 테이프 판매



혜정 대정사님이 강의하신 '밀교강좌' 방송분을 TAPE로 제작, 판매합니다.

혜정 대정사님의 주옥과 같은 법문 80일분량(20개들이 1SET)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번 테이프는 밀교의 교리와 수행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교강좌 TAPE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금수지다라니' 를 드립니다.

♣ 아래의 계좌로 입금후 전화를 주시면 댁으로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 065-01-0153-673
주택은행 : 661725-89-144651
예 금 주 : 최 종 웅
금 액 : 80,000원
문의전화 : (02)913-0133~4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김창본거사는 〈화엄경〉을 주로 제본한다. 약 2천여질을 묶어냈지만 지금도 작업장에 들어설 때면 두렵다고 한다. 20여평 남짓한 그의 작업장에는 팔만대장경들이 영인된 한지와 완성된 책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굳은살이 박힌 엄지와 검지손가락, 틈이 묻은 자국이 선명한 작업복, 굳게 다문 입술…

40여 년 동안 팔만대장경 한장본 만들기의 맥을 2대에 걸쳐 고집스레 지켜오고 있는 김창본 거사(61). 한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일에 몰두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그것이 사라져 가는 전통을 홀로 부둥켜안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것을 지킨다는 것, 어쩌면 그것은 고행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 대장경판의 영인본을 한장본으로 만들고 있는 김창본 거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다.

산문밖의 인물

대장경과 함께 40여년
한장본가 김창본 씨

"경판 찍어내는 일 번뇌 떨치는 수행"



◇완성된 〈화엄경〉 1질(80권)의 높이가 어른키만하다. 숙련된 한사람의 1주일 작업 분량이다.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합니다. 단순히 돈 벌이라고 생각했으면 이 일을 못했을 겁니다. 인생을 바치며 하는 일이지…." 〈화엄경〉을 재본하기 위해 자리를 틀고 앉으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무표정에 투박한 경상도 특유의 말투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정감 있게 다가온다. 1분 여만에 1권의 제본을 마친 그는 '전통 인쇄 문화 얼잇기 40년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창본 거사가 사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 신동은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가 있는 고장이다. 김씨가 대장경을 한장본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21살 때. 해인사에서 학인들에게 경전을 가르치던 아버지(김설제)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것이다.

"당시 스님 신분으로 학인들을 가르치던 아버지는 강원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 경판을 찍어 책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해인사, 강화 전등사, 서울 봉은사, 수원 용주사 등을 찾아 경판을 찍고 제본을 했지요. 이렇게 시작한 것이 가업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찍어낸 '화엄경'

김창본 거사는 목판에 먹을 칠해 닥종이를 대고 찍는 것이 전문이다. 부인 주영자 보살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찍어낸 경전은 〈화엄경〉으로 약 2천여 질(16만여권)에 이른다. 이밖에도 〈법화경〉 〈화엄현담〉 〈사교〉 등 강원에서 사용하는 경전들을 주로 책으로 묶는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영인본을 만들고 있다. 경판 인출이 불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 영인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송광사에서 〈법화경〉 목판을 내려 전통 방법으로 찍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 경판 소장 사찰들이 훼손을 이유로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거사는 "목판은 한번씩 먹물로 찍어야 보관도 용이하고 수명도 길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63년 4월부터 5년간 아버지와 함께 30여 명이 해인사 소장 팔만대장경판 6천7백91권을 13질이나 찍는 고된 작업을 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때 만든 책들은 현재 국회도서관, 동국대, 성균관대, 동아대, 중동중고등학교, 일본의 사천왕사, 비산사, 고야산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비롯 영국, 호주, 대만에 전해져 소장돼 있다.

닥종이 수명 1천년 넘어

"팔이 13질이지 그건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1천장 정도 찍어야 했으니까요.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앓아 눕기도 했지요." 불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고 말한다. 육체의 힘듦은 물론 한치의 빈틈이 있어도, 조금의 번뇌가 끼어 들어도 안 되는 숭고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경판을 찍어내는 것은 번뇌를 떨쳐내는 수행이요, 고행을 이겨내는 기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가 제본한 경전들은 곧 불력의 소산이다. 그의 작업은 마치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만든 고려인들의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그에게 있어 경전을 제본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삼독에 찌든 혼탁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해탈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는 구도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다.

그가 한장본을 만드는데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두 가지다. 실과 종이가 바로 그것인데, 그중에서 실은 직접 만든다. 염분과 염료를 혼합한 물에 백실을 담갔다가 30분 정도 삶는다. 종이는 당연히 전통한지인 닥종이만 사용한다. 예로부터 종이 천 년, 비단 오백 년이라 했다. 한지에 쓴 글씨와 그림은 1천 년이 넘도록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데 비해, 양지는 1백 년을 채우기가 힘들다. 현존하는 신라 최고(最古)의 사경인 〈대방광불화엄경〉도 종이에 쓴 것이지만 1천2백40여 년의 수명을 누리고 있다. 전통한지는 수천 년에 걸쳐 우리 문화를 감싸준 옷이요 그릇이었던 것이다.

30번 손 거쳐야 1권 완성

김창본 거사의 한지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불심을 불어넣지 않는다면 한장본들은 생명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양지와는 달리 닥종이는 기계를 사용하는 제본이 어려워 수작업을 하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불심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한날 손장난에 불과할 뿐입니다."

경전 한장본을 만드는 일은 일일이 손이 가는 어려운 작업이다. 손끝을 통해 빚어지는 이 작업은 경전 1권을 완성하는 데 30번의 손을 거쳐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 숙련된 한 사람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10권 안팎이다.

현재 이 작업들은 주로 주문으로 이뤄진다. 주문의 용도는 대부분 승가대학(강원) 교재나 복장유물용이다. 요즈음은 며칠에 한번 정도밖에 제본을 하지 못하지만 한 번도 이 일을 후회해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내가 만든 경전을 수지독송한 훌륭한 불제자들이 많이 나와 이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이러한 원력으로 공부하는 불자들이 있다면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세상사를 뒤로 한 채 경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평생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김창본 거사. 방대한 경판을 찍어내고 제본을 한 지 40년. 하지만 아직도 작업장에 들어갈 때면 두렵다고 말한다. 불법이 담긴 경전이기 때문이다.

요즘 김창본 거사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2대째 해오고 있는 이 일이 머잖아 끊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생계를 꾸려 가기 힘들다 하여 아무도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들 정표(35)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어 보지만 쉽지 않다.

김창본 거사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혼까지 대물림해 줄 수 있는 후계자를 키우는 일이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글=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전법륜인을 짓고 있는 경기도 안성 굴암사 마애여래좌상.

마애불을 찾아서

굴암사 마애여래 좌상

크게 늘어진 양 귀는 관통형

통견법의에 무늬 뚜렷하게 조각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에 있는 이 마애여래 좌상은 거대한 화강암의 암벽에 조각한 불상이다.

암벽 동쪽에 양각된 마애여래 좌상은 묵직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으나 약 30년전 지은 보호건물로 인하여 그 일부가 가려져 있다. 소발의 머리위에는 육계가 있으며 상호는 원만하고 양미안(兩眉眼) 비량(鼻量) 구순이 정제되었고 크게 늘어진 양 귀는 관통형이다.

목에는 삼도가 있고 법의는 통견으로 의문(衣紋)이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오른 손을 가슴에 들어 수인은 엄지와 검지로 전법륜인(轉法輪印)을 지었으며 왼손은 무릎에서 약간 들고 있다. 양 무릎은 결가부좌하고 있으며 의문은 양 팔과 무릎에서 흔들리고 있다. 앉은 키 높이 3.5m로 고려초기의 우수한 작품이다. 향토유적 제11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개발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장안 최제 특발명 실용신안 등록 출원(20-003948)
황토 물침대 겸용 돌침대 탄생!!

국내및 국제특허출원
101 싱글보료
목단 902
딱딱한 돌침대를 물침대로…
2Way Bed … 돌침대로! 물침대로!
돌침대 만들기 10년, 침대가 전자파 제거 기능을 갖고 있는 세계 유일한 특허(등록 0157651호)제품
돌침대와 황토물침대의 효능…
◆봄(春)에 불을 안 넣으면 방바닥이 차고 … 항알 돌침대가 필요할때
◆여름에 새면바닥 축축하고 눅눅한 냉기에 … 황토물침대로 시원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뺙 즙니다.
◆물매트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없습니다.
◆환상의 나라 황토물침대가 음이온 원적외선을 팡팡!!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공진공을 불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한달 전기료는 12,000원 안팎(8일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원적외선의 풍부함을 온가족이 맛 볼 수 있는 기회!
원적외선 황토물침대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전국 무료 배송!!
돌침대의 名家
氣 리빙스톤 (옥스톤)
본사 · A/S : 02)424-9427 직영점: 0333)618-7773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⑧

前佛後佛 只傳此心 除此心外
전불후불 지차전심 제차심외
無佛可得 顚倒衆生 不知自心是佛
무불가득 전도중생 부지자심시불
向外馳求 終日忙忙 念佛禮佛
향외치구 종일망망 염불예불
佛在何處 不應作如是等見
불재하처 불응작여시등견
但識自心 心外更無別佛
단식자심 심외경무별불
經云凡所有相 皆是虛妄
경운범소유상 개시허망
又云所在之處 卽爲有佛
우운소재지처 즉위유불
自心是佛 不應將佛禮佛
자심시불 불응장불예불

앞의 부처님이나 뒤의 부처님들이 단지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 밖에서 부처는 찾을 수 없다. 잘못된 중생이 자기 마음이 부처인줄 알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염불, 예불을 하면서 밖을 향해 부처를 찾지만 그 부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말라. 단지 자기 마음을 알면 마음 밖에 딴 부처는 없다. 경에 말하기를 '모든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부처가 있다' 하였다.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이니 부처를 지니고 부처에게 절하지 말라.

이 마음 밖에서 부처 찾을 수 없으니
일체 형상과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다

但是有佛及菩薩相貌
단시유불급보살상모
忽爾現前 切不用禮敬
홀이현전 절불용예경
我心空寂 本無如是相貌
아심공적 본무여시상모
若取相 卽是魔攝 盡落邪道
약취상 즉시마섭 진락사도
若知此從心起 卽不用禮
약지환종심기 즉불용례
禮者不知 知者不禮 禮被魔攝
예자부지 지자불례 예피마섭
恐學人 不知故 作如是辨
공학인 부지고 작여시변
諸佛如來本相 體上
제불여래본상 체상
都無如是相貌 切須在意
도무여시상모 절수재의
但有異境界 切不用採括
단유이경계 절불용채괄
亦莫生 怖 不要疑惑
역막생파포 불요의혹
我心本來淸淨
아심본래청정
何處 有如許相貌
하처 유여허상모

만일 부처와 보살의 모습이 홀연히 나타나거든 절대로 예경하지 말라. 나의 마음은 공적(空寂)하니 본래 이런 형상은 없는 것이며, 만약 그런 형상을 취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어 모두가 삿된 도에 떨어진다. 만일 환상(幻相)이 마음을 따라 일어난 줄을 알면 예경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절하는 이는 알지 못해서이고, 아는 이는 절하지 않는다. 예경하면 곧 마귀에 포섭되는 것이니 행여나 학인(學人)이 알지 못할까 걱정되어 밝혀놓는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성품 바탕 위에는 도무지 이런 모습이 없으니 꼭 명심하여라. 만일 이상한 경계가 나타나거든 결단코 캐려고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혹심도 내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한데 어디에 이런 모습이 있겠는가.

乃至天龍夜叉鬼神 帝釋梵王等相
내지천룡야차귀신 제석범왕등상
亦不用心生敬重 亦莫怕懼
역불용심생경중 역막파구
我心本來空寂 一切相貌 皆是妄相
아심본래공적 일체상모 개시망상
但莫取相 若起佛見
단막취상 약기불견
法見及佛菩薩等相貌而生敬重
법견급불보살등상모이생경중
自墮衆生位中 若欲眞會
자타중생위중 약욕진회
但莫取一切相 卽得更無別語
단막취일체상 즉득갱무별어

나아가 천룡·야차·귀신·제석·범왕 등에도 존경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마음이 본래 공적(空寂)하여 일체의 형상이나 모습은 다 헛된 것이니 형상을 취하지 말라. 만일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거나 불·보살 등의 형상에 존경심을 낸다면 스스로가 중생으로 떨어진다. 만일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 온갖 형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다시 다른 말이 없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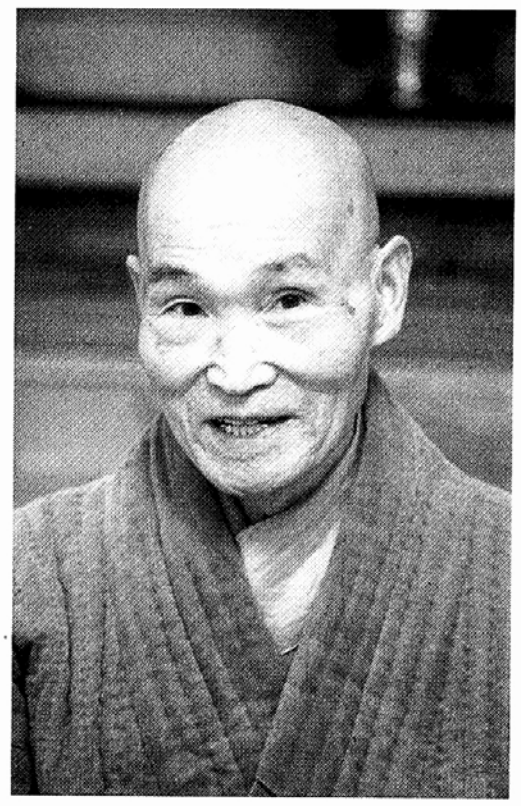
큰 스님과의 대화

청화스님

곡성 성륜사 조실

기본적인 출가수행자의 계율이 오후불식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취침할 때까지 눕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묵언하면서 하루 한끼니만 먹는 일종식으로 일체 눕지않고 참선하며 앉아서 잠을 자는 장좌불와(長坐不臥)를 40여년 지켜온 선승 청화스님(곡성 성륜사 조실). 보통사람의 눈에는 고행으로 보이는 그 생활이 편해서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라는 스님은 이제는 몸뚱이도 쇠약해지고, 앉으나 서나 공부에 망상도 별로 나올 때가 아니고 해서 원칙은 세워놓고 있으나 고집하지는 않고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안거와 포교로 3년을 보내고 성륜사 조선당(祖禪堂)에서 주석하고 있는 스님을 만나 살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물음인 생명의 실상과 우주과학시대 한국불교의 향방에 대해 들었다.

"일체 존재는 한 생명체"



- 1923년 生
- 1947년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
- 40여년을 토굴수행 장좌불와 정진
- 85~95년 곡성 태안사 조실
- 95~99년 美 팜스프링 금강선원 주석
- 현재 곡성 성륜사 주석

—21세기는 시간의 속도를 짐작하기 어렵고 과학만능의 치달음 속에서 무섭게 변한다는 고백을 하며 살게됩니다. 이같은 우주 과학시대의 참다운 종교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종교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없는 종교는 맹인이다.' 이 말은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더라도 합리적인 도리에 입각하여 믿어야 하지, 불합리한데도 분별없이 전통적인 권위나 인습적인 법집(法執)을 답습한다면 참다운 종교가 못됩니다. 아집 법집을 여의는 것이 참다운 과학이요 진정한 종교입니다. 이런 과학정신이 기본이 되어서 현대물리학이 나온 것 아닙니까. 또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는 불교다. 또한 현대과학이 결(缺)하고 있는 것을 메꾸어 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다' 고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불교를 진정으로 아는 분이라고 봅니다. 우주 과학시대의 종교는 철학을 날줄로, 과학을 씨줄로 서로 보완하고 조화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교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심에 대해서 들려주시지요.

▲신심(信心)은 마음을 활짝 열고 천지와 나와 둘이 아니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반야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물질은 곧 의식이요 생명이므로 지구도 태양도 다같은 생명이며 태양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요, 또 대세지보살과 문수보살은 지혜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대로 바로 지장보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가르침을 조그마한 자기 생각으로 좁혀서는 안됩니다. 원융무애한 생명을 구분짓고 가로막는 망념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삼천대천 세계가 바로 부처님이거니 5척남짓한 이 몸뚱이에 들어있는 의식만 생명이 아니라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한결같이 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못 열려서 나로 보이고 너로 보이고 남으로 보이고, 그 무엇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복불교의 폐단으로 우선 꼽는 것이 일신의 안위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불교적인 행태이기도 하지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현상적인 모양(相)만 보기 때문에 그 모양만 실상 실제인 것이고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보세요, 남자같이 생기고, 또는 여자같이 생기고, 잘 나고 못나고 하는 그런 현상적인 상만 사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자의 밝은 지혜로 볼 때는 사실 그런 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그런 상은 본래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리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봅니다. 현상적인 모든 것은 사실상 허망 무상한 것입니다. 고유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상대 유한적인 인간의 업장으로 갇혀있을 뿐입니다.

—종교는 생명의 문제에 직결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참 생명은 어떤것입니까.

▲생명은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본래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자취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자취가 없고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러한 다른 동물의 생명도 자취가 없습니다. 나무 같은 상, 풀 같은 상만 우리 중생의 제한된 안목에서 보이는 것이지 그러한 나무나 풀도 역시 생명 자체는 조금도 자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 생명 자체는 우리 인간의 몸 속의 신장에나 또는 뇌 속에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생명이 가득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이나 물이나 흙이나 모두가 다 생명이 거기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생명이라 하는 우주의 실상 그 생명은 바로 우주에 끝도 갓도 없이 충만해 있습니다. 무량 무변하게 충만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 우주라는 것은 사실 생명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내 생명 네 생명이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김 아무개한테 있는 생명이나 박 아무개한테 있는 생명이나 똑 같은 생명입니다. 이런데서 우리가 업을 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명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생명은 우리의 마음이요 중생이요 부처입니다.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 우리 마음이나 중생이나 또는 부처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의 생명 이것은 무슨 원리나 또는 가치나 그런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럽니다. 따라서 천지 우주가 오직 동일한 생명이므로 성품은 모두 같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참다운 불자이며 최상의 공덕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생명에는 자비나 지혜나 일체 공덕이 다 들어 있습니다. 행복도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는 것은 손실을 떠나 큰 잘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되는데요.

▲우리 중생의 허물이 무엇인고 하면 모양 이것은 가짜이고 허망한데 그것을 구하다가 우리 소중한 인생이 다 끈나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 그것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부자면 부자된 만큼, 감투가 높으면 높은 만큼 공부에는 손해입니다.

또 중생의 항상 가운데 주의할 것은 무슨 일을 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연이 합해서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어느 개인의 개별적인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관자는 있습니다. 인연이 합해지면 잠시간 무엇이 이루어지고 인연 화합이 안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이지요.

—생명은 모두를 갖추고 있고 무한한 것이라면 죽은 영가에 대해서도 궁금해집니다. 특히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동참하는 기도가 영가천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피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 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 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입원실 사용, 식대 각자 부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법 료인 효성양방한방병원
이사장 김시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 모든 질병과 성인병은 의힐만 잘 풀어버리면 완벽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 스님들 주변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무료치료의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가천도에 대해 교계에서는 '청화스님 신드롬'이 일 정도로 도력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천도의식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생명은 본래 부처이고 부처로 되어야 합니다. 설사 어떤 상황이라도 부처가 됩니다. 그런데 극락세계 가는 것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저승길이 어두워 헤매게 됩니다. 금생 60~70년동안을 몸뚱이와 의식을 같이해 살았을 때 닦았으면, 본래적인 마음과 하나면 우주와 화합돼 극락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미처 업을 못녹인 습관성으로 업식이 남아 있습니다. 업식이 당분간 존재하면 괴롭습니다.

개나 돼지 등 짐승처럼 생활하면 업식이 흘러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업식으로 헤매는 영혼을 타일러서 인도하는 것이 천도의식입니다. 금생에 못닦은 미혹된 영혼을 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귀신을 천도하는 데는 청정도량인 절에서 바른 계행으로 조심조심 청정히 하는 것이 의의가 큽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절에서 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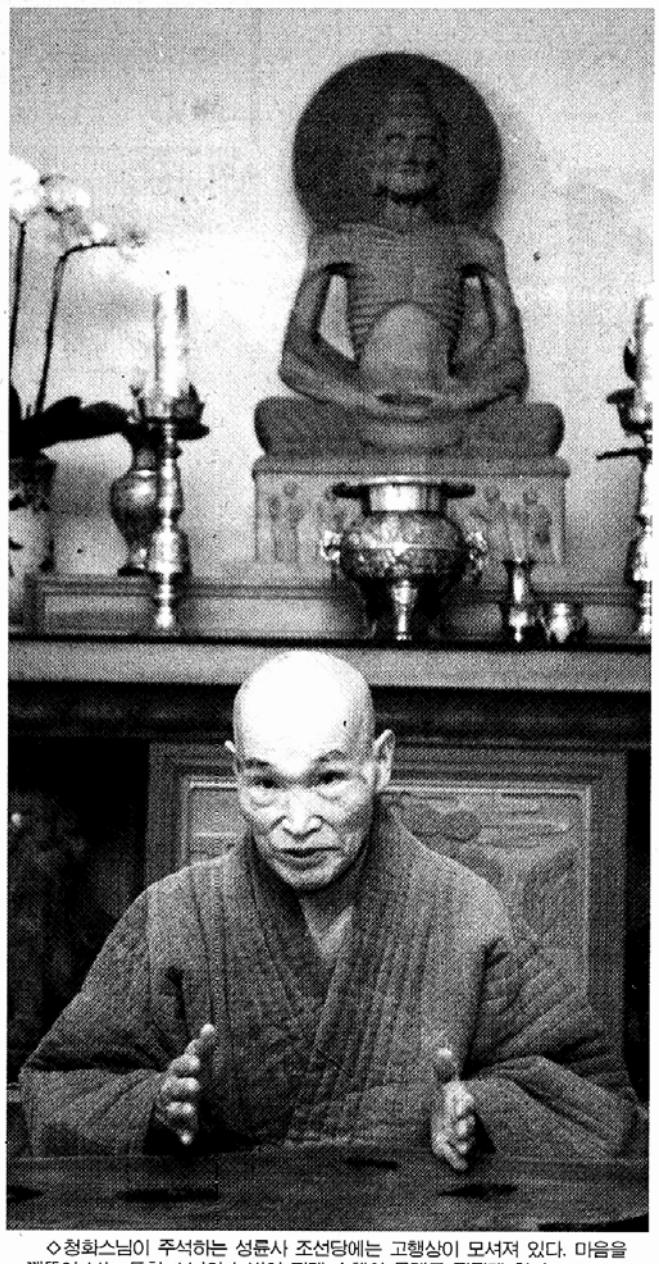
잡에서 고인의 위패를 적고 향을 피운뒤 업식을 소청해도 좋습니다. "영가시여 부처님 가피력으로 나오라"고 해서 〈반야심경〉〈법성게〉 등을 독송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가들에게 인연생으로 왔다가 인연생으로 간 것이고 따라서 누구도 원망해서는 갈 곳을 못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독경하는 것입니다.

스님때까지를 순수한 선시대 이른바 순선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법문을 가장중요한 권위로 의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심법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선양하고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은, 우주의 도리대로 본래 내가 없는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내 집이나 내 소유물이나 내 절이나 내 종단이나 이런 것도 본래가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참 편합니다. 자기 문중이나 절 때문에 애쓰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단이 바르게 서고 이 법향이 세계로 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선수행도 한국불교 교단사를 돌아보면 교학을 가르쳐서 선(禪)의 갈래 즉 깊고 얕음을 안 후에 참선을 시켰습니다. 교에 따라 원만하고 합리적인 도리에 따라 실천했던 것입니다. 간화선만이 최고라는 바짝 마른 논리는 위험한 일입니다. 간화선이 한국불교에 수승한 위치로 훌륭한 참선수행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짚어보면, 임제종 간화선은 종파분별이 극에 달했던 중국 송나라때 분열상의 한 종파로서 고려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조선조 배불정책으로 더 이상 중국과의 교류가 단절된채 오늘날까지 내려온 참선법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원나라를 거쳐 수백년을 각기 소견으로 분열되다가 마침내 명나라때 가서 하나의 도로 종합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간화선 묵조선 염불선 등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요 우열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적인 자세만 여의지 않고 본체를 여의지 않을때는 다 그대로 수승한 대승법이요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 달마스님때부터 6조까지는 이런 이름도 없이 오로지 마음공부만 했습니다. 부처님 법을 범부소견으로 무엇이 옳네 그르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와 나 둘 아님을 믿으세요

출·재가 막론하고 계율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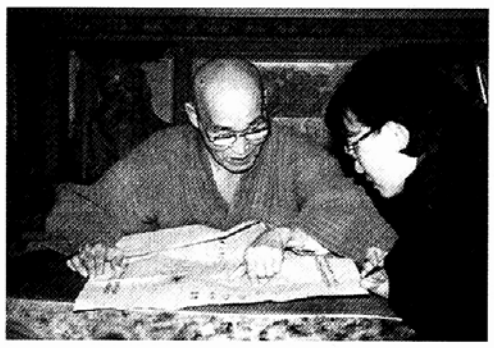
◇청화스님이 주석하는 성륜사 조선당에는 고행상이 모셔져 있다.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스님의 눈빛이 지계 수행의 무게를 짐작케 한다.

—서구에서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 공산화된 지금 우리나라는 선불교의 종주격임에도, 세계적 조류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스님께서는 미국에서 3년여 머무시기도 하셨는데요, 세계적 흐름에 부응키위해 우리 불교가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승가 생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인간의 진정한 생활 표본입니다. 승가 생활의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아 무소유 생활 아니겠습니까. 달마스님때부터 6조 혜능스님에 이르기까지 이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정통입니다.

—한국불교가 수행의 중요성을 찾고 회귀하고 있는 흐름속에서 깊이 성숙해야 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불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점은 삼매에 못드는 것입니다. 이는 불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인들에게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현실이 바쁘고 복잡하지만, 반드시 가야하고 또한 자신도 모르게 가게 되는 것이 성불입니다.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꼭 성불하게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전쟁 지진 등 벌별 일이 다 일어나도 차츰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젠가는 다다르게되는 성불의 길에 가장 지름길이 참선입니다. 유일한 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선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수행에 진전이 없는 것은 삼매에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야 욕계가 보이고 초월하게 됩니다. 탁수를 가만히 두면 맑은 물만 뜨는 이치와 같습니다. 고요히 맑히고 또 맑히라는 것입니다.



◇은사 금타스님이 수행의 요체를 도면화 해 제작한 〈수능엄 삼매도〉를 설명하고 있는 청화스님.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이곳 조선당(祖禪堂) 법당은 아주 특이하게도 부처님 고행상을 모셔놓았습니다. 스님께서는 40여년 힘든 고행을 하신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듯한 형형한 눈빛이 수행의 무게를 짐작하게 합니다.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스님께서 하신 고행을 권하시는지요.

▲고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이 마음닦기 알맞은 것이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오히려 제대로 못해서 안타깝지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닌데 몸을 그렇저렁 두면 게을러지기 십상입니다. 몸으로 계행 청정해야 하는데 남 눈에는 고행으로 보이는 모양이나 내게는 온몸이 시원스러울 정도로 편한 생활방식입니다. 장좌불와를 해보면 눕는 것보다 정삼각으로 앉는 자세가 가장 편합니다. 일체 여래의 상징적인 모습이 가부좌입니다. 망상이 일지않고 마구니가 봐도 피합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하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할 일이지요. 다만, 부처님 계율만은 도덕적인 윤리로써 재가 출가자 모두 지켜야 합니다. 출재가자를 막론하고 계율을 지키면 선신이 북돋아주고 악신이 물러갑니다. 결코 '나는 혼자다'는 생각을 마시기 바랍니다.

대담=위영란 부장
(yryui@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원각스님

요즘 나는 늘상 컴퓨터 앞에서 지낸다. 컴퓨터로 글을 쓰고 컴퓨터로 신문을 보고 독서도 상당 부분 컴퓨터로 한다. 컴퓨터가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사이버 법당도 만들 생각이다.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실감하는 것인데 요즘 세상은 그 변화가 너무나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다. 시골에서 자란 우리 세대들은 어린 시절 호롱불 밑에서 생활했다. 먼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녀야 했고 마을 앞 시내에는 다리가 없어서 여름 장마 때만 되면 물을 건너지 못해 학교를 못 가는 때도 많았다. 처음 출가하여 절에 왔을 때도 절에 전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니 산중 사찰들은 70년대까지도 전깃불이 안 들어왔다. 해인사 같은 큰 사찰도 70년대 중반이나 되어서야 전기가 들어왔다.

그 시절 어느 여름이었다. 나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 살고싶은 생각 때문에 지리산을 찾아갔다. 쌍계사 객실에서 하루밤을 자고 걸어서 칠불암을 찾았다. 산골 다락논 사이의 길을 걸어 올라가서 숲속 길을 한참 걸으니 큰 감자밭이 나왔다. 그리고 통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움집 비슷한 집이 하나 있었다. 나는 길을 잘못 들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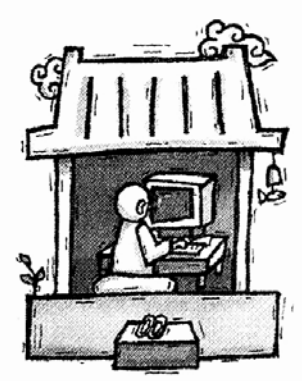
감자밥 먹으며 수행하던
20여년전 칠불암 여름한철

전민들이 사는 곳을 찾아온 줄로 알았다. 배도 고프고 해서 움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원각스님이 계셨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칠불암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암울한 일제치하에서도 용성스님이나 금오스님 같은 당대의 큰 스님들이 납자시절 정진했다는 그 유명한 칠불암은 그곳에 없었다. 눈 덮힌 엄동설한에 한번 군불을 때면 적어도 보름 이상 방안이 따뜻했다는 아자방도 건물은 없고 주춧돌과 아자형의 구들만 남아 있었다. 옛 선사들의 자취는 간 곳이 없어 구도의 열정을 안고 찾아온 젊은 납자의 마음을 슬쓸하게 했다.

당시의 칠불암은 그랬다. 8.15 이후 지리산은 남부군의 활동 본거지였다. 남부군들의 빨치산 활동은 6.25 직후까지 이어졌다. 지리산의 마지막 빨치산 정순덕씨는 60년대까지 활동을 했다고 하지 않은가. 그러다보니 지리산의 유서깊은 사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중에서 영은사, 연곡사, 칠불암 등의 국보급 사찰들이 미군들에 의해 폭격되어 흔적도 없이 완전 소멸되었다. 그렇게 완전 소멸당한 칠불암을 화전민들의 움집 비슷하게 지어놓고 스님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스님은 관묵스님이었고 원각스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 이름이 절이지 건물은 통나무로 지은 움집이고 신도도 없는 심산유곡의 인적없는 토굴이었다. 원각스님은 일찍이 팔공산 동화사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선배였다. 주지스님은 도통 말이 없었다. 원각스님에게 허락을 얻어 방부를 들이고 그해 여름 나는 칠불암에서 살기로 했다. 워낙 깊은 산중이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산중의 양식은 감자가 전부였다. 그러자니 낮에는 하루종일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 주지스님은 힘이 천하에 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찼다. 그렇게 힘이 좋은 스님과 같이 맞추어 일을 한다는 것은 여간한 일이 아니었다. 며칠을 하고 나니 몸살이 날 지경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촛불 하나를 켜놓고 좌선을 하는데 시계도 없고 하니 몇 시에 일어난 것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좌선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면 원각스님을 따라 아침공양을 짓는데 그 시각 주지스님은 장작을 패는 등 잠시도 쉬는 법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밥해 먹고 일하고 하루를 보낸 뒤 밤이 되면 또 주지스님과 원각스님을 따라 좌선을 했다. 비가 오는 날은 밖에 나가 일을 못하는 대신 원각스님과 주지스님은 경전을 읽거나 옛 조사들의 어록을 읽었다. 일을 할 때는 흡사 농사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그러면서도 좌선을 게을리 하는 법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전을 읽고 어록을 읽는 실력이 강단에서



그림·문병성

강학을 하는 실력 못지 않았다. 그 해 여름 무척 힘들게 지냈지만 힘들게 지낸 만큼 공부에 도움이 된 것은 말 할 것이 없고 큰 보람도 얻었다. 특히 물리도록 먹은 감자밥은 내내 잊을 수가 없다. 진정한 공부인의 공부란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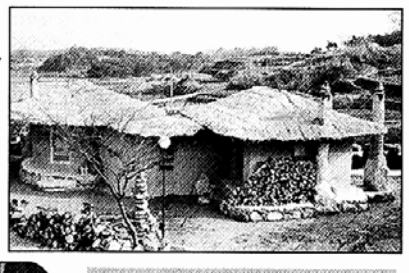
지금 칠불암은 옛날 그 시절하고는 달리 많이 변했다. 세상이 다 변하는 데 칠불암이라고 어찌 변하지 않았을까. 불사를 주관하신 통광스님이 원력을 세워 중창불사를 했다. 저 유명한 아자방도 복원을 해놓았다. 그 결과 아주 훌륭한 사찰로서 지리산의 제일 수행도량이 되었다. 이렇게 깊은 산중에 어떻게 이런 큰 불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다. 모두가 현대문명의 힘일 것이다. 잘 지어진 선원에는 수십명의 눈푸른 납자들이 운집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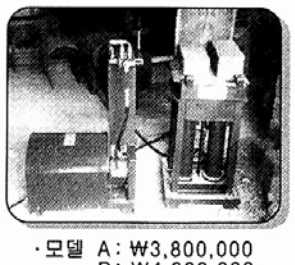
세상도 변하고 그 변한 만큼 사찰도 변해 깊은 산중에도 온갖 현대문명이 다 들어와 있으나 은근히 옛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그 해 여름 내내 같이 농사짓고 정진하던 원각스님이 그리워지고 같이 먹던 감자맛도 새록새록 그리워지는 것이다.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미얀마 최고의 선지식
우 빤디따 스님 방한 위빠사나 수련 안내

붓다와 담마와 상가에 귀의합니다.
위빠싸나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大覺)을 성취하셨던 수행방법이고, 또한 45년의 교화기간 동안 수 많은 구도자들을 깨달음으로 이끄셨던 가장 정통성(正統性)있는 방편(方便)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위빠싸나 수행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계신 미얀마의 우 빤디따 스님께서 금번에 방한하시어, 아래와 같이 위빠싸나 수련법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육성법문과 개인지도를 통해 참가자 여러분의 수행에 큰 진전이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1. 기 간 : 2000년 4월 20일 (목) 오후 3시
~ 4월 30일 (일) 오후 1시 (10박 11일)
2.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봉인사 · 한길정진원
3. 내 용 : 우 빤디따 스님의 법문과 직접 개별 지도에 의한 위빠싸나 수행
4. 동참금 : 30만원(₩300,000)
5. 준비물 : 수행에 적합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6. 문의처 : Tel. 0346)574-5585 (봉인사 종무소)
Fax. 0346)574-0808
E-mail. bonginsa@soback. kornet 21. net

▶ 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 위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일단 접수한 뒤 동참 가부와 송금 방법을 추후에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수련 대회와는 별도로 우 빤디따 스님의 대중법문이 4월 30일 (일) 오후2시 용인의 관음사(0335-332-1133)에서 있을 예정임.

봉인사 · 한길정진원

경북 청송의 관음기도 영험도량
샘재 영천암(靈泉庵)에서 불자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소납은 지난 1998년 전기누전으로 인하여 법당이 전소된후 새로이 조립식으로 임시법당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필설로 다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금 현재도 부처님 좌대를 비롯해 후불탱화와 좌우보처 보살님도 모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불자님께서 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에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하루속히 영천암을 정상화시킬수 있도록 등불 한 등이라도 밝혀 주시온다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사오니 부디 도와 주시옵기를 7일동안 삼천배기도를 지성으로 드려서 모신 우리 영천암 부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복과 덕이 부족해서 늘 여러 불자님께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참으로 송구하오나 앞으로 반드시 사회사업을 해서 불사회향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꼭 제가 이 불사를 성취하여 저 수미산 같은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루속히 백고좌법회를 꼭 꼭 꼭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옵니다. 이 애절하고 간절한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면 제가 살아 있어도 어찌 살아 있다고 하겠사오며 불사를 성취한다면 저는 죽어도 산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겠사오며 저 사해바다 같은 한을 풀도록 부디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니다. 그리고 또 영천암에 도서실을 만들고저 하오니 불자님 가정에 다 읽으신 불서와 법문 카세트 테이프, 법문 비디오 테이프, 불교관련CD가 있으신 분께서는 영천암으로 기증을 해 주시온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사오니 저 혼자의 힘으로 도서실을 열기가 어려우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 등불을 밝히시는 분께는 일년내내 기도축원 해 드립니다
※ 탁발 다니는 관계로 평일 내사시(來寺時) 미리 전화 연락 바랍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시량1리 548-3번지
샘재 영천암(靈泉庵)
전화문의(팩스겸용):0575)873-2724 휴대폰 : 016)521-2724
주지 곽 승 만 합장
▶ 온라인입금 계좌번호 농 협 : 711089-51-056599
▶ 예금주 : 곽 명 희 우체국 : 700419-0136013

영천암 오시는 길안내도

인공은 조연 자연이 주연인 사찰



◇신도들의 시선과 동선에 따라 지그재그식 배열과 투시도적 점감의 효과를 극대화한 유가사의 전각들. 모든 건물의 입체적 역동감을 극대화시키고 자연을 정점으로 설정한, '선'의 정신이 숨쉬는 비경을 지니고 있다.

비슬산 유가사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24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양리에 소재하는 유가사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비슬산 -비파와 거문고의 합주가 항상 들린다는- 웅장한 산속에 호젓이 자리잡고 있다. 이 절에는 지방문화재 조차 지정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얼핏 보면 평범한 산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건축'이 남아있으며,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맺어주는 본질적인 '전통'이 살아있고, 무상한 공간들이 사물의 의미를 묻고 있는 '선(禪)'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유가사의 건축적 비경은 입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는 잘 정비된 비슬산 등산로 어귀의 한 옆, 숲 속에 난 오솔길이 바로 유가사의 시작이다.

오솔길의 바닥은 큰 바위들로 이루어지고, 숱한 세월동안 많은 신도들의 발자국에 닳아서 맨들맨들 빛난다. 오솔길의 폭은 그다지 넓지 않아 울창한 나무들의 음영으로 어둡지만, 바닥만은 은은한 햇빛의 반사광이 솟아오르는 절묘한 분위기다.

유가사 뿐 아니라, 조선시대 많은 산사들의 진입로 분위기는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일제기와 근대화 시기를 겪으면서 자동차와 관람객을 위해 오솔길을 넓히고 숲을 깎아 탄탄대로를 만들면서 원래의 진입로들이 사라져 버렸을 따름이다. 물론 유가사에도 쉽게 닿을 수 있는 자동차 길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원래의 진입로를 피해 멀리 우회하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들은 이 신비로운 숲속의 오솔길을 걸어서 닿을 수밖에 없다.

주목해 볼 것은 천왕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오는 진입축의 방향이다. 누각의 옆면을 끼고 마당의 서쪽 모서리를 타고 진입하며, 진입축의 정점은 대웅전과 나한전 사이의 빈 틈새를 향하게 되고, 그 사이에 나타나는 뒷산의 자연을 향해 시선을 유도한 구성은 이 절의 정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한전→용화전→산신각 지그재그식 점감 배치로 입체적 역동감 극대화

시한다. 극히 작위적으로 구성된 중정을 옆으로 비켜가는 등시에 자연을 정점으로 설정함으로써, 인공보다 우선하는 대자연을 사찰건축의 주인공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보통 사찰건축에서는 자연이란 배경으로 설정되지만, 유가사에서는 배경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가 주인공인 건축적 목표가 된다. 확대해서 말한다면, 유가사의 인공적인 건물들이란 비슬산의 대자연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요, 무대장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개념은 비단 중심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대웅전의 서쪽, 나한전→ 용화전→ 산신각으로 연결되는 건물들 간의 관계다. 진입한 다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웅전→ 나한전→ 용화전→ 산신각의 순으로 따라가며, 신도들의 동선 역시 그렇게 움직인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몇 가지 치밀한 건축적 조작을 통해서 얻어진다.

첫째로 건물들의 규모가 순서대로 작아지도록 점감적인 순열을 취하고 있다. 3×3칸 (대웅전) 〉 3×2칸 (나한전) 〉 1×1칸 (용화전) 〉 1×0.5칸 (산신각)의 순서다. 멀리있는 전각일수록 작게 보이는 것이 인간의 시각이지만, 유가사의 4동 전각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 규모들을 배열함으로써 투시도적 점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로 나한전- 용화전 - 산신각이 서로 삼각형의 꼭지점에 놓여, 지그재그형으로 배열됨으로써 전각들 간의 입체적인 운동감이 강화된다. 진입축을 따라 대웅전-나한전의 틈새로 진입하면 곧바로 나한전의 전면을 타고 용화전으로 시선과 동선이 흐르게 되며, 용화전 앞에 서면 자만치 작은 산신각이 산을 등지고 점과 같이 위치한다. 웅대한 산 앞의 작은 산신각은 마치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보여, 인공에서 자연으로 사라져가는 극적인 효과를 거둔다.

마지막으로 4개의 전각들은 모두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앉아,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을 볼 때 모퉁이 부분을 바라보게 된다. 평면적인 배치도로는 일견 무질서하게 배열된 것 같지만, 실제 동선 상에서는 모든 건물이 가장 입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져, 작은 건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지 않고 극히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 글에서 묘사된 유가사의 모습은 1996년 가을의 현황이다. 독자들은 가급적 이 글과 사진으로만 감상하시고 현장에는 가시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의 수많은 절들의 경우와 같이, 지나친 관심과 방문이 유가사의 매력적인 환경을 악화시킬까 두렵기 때문이다.)

불교 NGO 불자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불교NGO들이 ASEM(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2000 민간단체 포럼과 '지구의 날 2000' 행사 등에 대거 참여하는 등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인권) 재가연대(종교) JTS(빈곤과 개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평화) 불교환경교육원(환경) 등 10개 단체는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ASEM 2000 민간단체 포럼에 분야별(모두 12개 위원회)로 참가해 달라이 라마 방한문제,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문제, 종교간의 회해, 북한동포 돕기 등 불교관련 현안을 적극 개진한다.

불교 NGO 국제교류 활발

재가연대등 10개단체 아셈포럼 참가
인드라망 해외연대 유전자식품 감시
좋은벗들 탈북주민 구호 유엔에 홍보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정토회, 재가연대, 1000일정진불교연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은 21일 기독교연합회관내 사무국에서 2차회의를 열고 국내·외 섭외가능단체 확인, '영성(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합' 등 의제 선정, 종교문화행사 개최안, 종교인 초청(달라이 라마, 틱낫한, 구스타프 구티에레즈 등), 행사장소(봉은사 또는 한양대) 선정 등의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국제연대 활동의 좋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불교NGO들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이나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NGO세계대회의 경우 준비없이 뒤늦게 참여해, 얼굴만 내미는 정도에 머물렀다. 불교NGO의 정체성이나 자립기반이 미약한데다 정보 부재, 우물안 개구리식의 소극적인 사고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나 새 시대를 맞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구촌이 하나라는 공감대를 갖고 국제교류와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

경불련 불교인권위원회 이웃을돕는사람들 환불교서울환경위원회는 또다른 국제NGO모임인 '지구의 날 2000' 행사에 참여한다. '지구의 날 2000 한국위원회'는 지구의날(4월22일) 30주년을 맞은 이날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차없는 거리'를 지정, 국내의 환경 문화 여성 소비자 등 각계 시민단체 회원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당을 펼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공동대표 도법스님)는 전국귀농운동본부 21세기생협연대 가톨릭농민회 한 살림 등 9개 시민단체와 함께 (가칭)유전자조작식품(GMO)반대생명운동연대 결성을 주도하고 있다. 4월경 출범예정인 이 모임은 생명환경농업의 대안운동을 실천하는 단체로서 국내의 GMO 감시·반대운동을 펼치는 한편 선진국은 물론 제3세계의 환경소비자농민단체와의 연대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제 구호·자원봉사 활동을 펼쳐온 JTS 좋은벗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국제사업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국제구호사업을 가장 왕성하게 펼치고 있는 JTS는 7, 9월 인도 뭄계스와리에서 국제워크캠프(노동의 선물로 이웃에게 기쁨을)를 개최해 대학생들에게 국제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의료·건축·농업·기술 분야의 국제NGO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방글라데쉬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대한 개발구호사업을 확대해 내년까지 현지 사업장을 갖출 계획이다.

북한동포 돕기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좋은벗들은 국제평화인권난민지원센터(www.jungto.org)를 통해 탈북주민들의 국제난민지위 부여를 위한 해외홍보에 주력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북한난민 실태 보고서를 제출, 미국난민위원회 '세계를 위한 빵' 등 국제기구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7년부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국제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자원봉사연합회는 올 여름에 창녕에서 열리는 국제 워크캠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봉축기간에 한국 유네스코문화교류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 문화행사, 바자회 등을 열 예정이다. 특히 아반(AVAN)코리아 등과 연계해 태국, 일본 등에서 열리는 국제자원봉사 워크캠프에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불교단체 및 불자들의 국제교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차원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조계종은 지난 2월17일 불교단체들의 국제교류와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한 종책자문기구인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양산스님)를 설치했다. 스리랑카 내곱보지역에 사회복지직업훈련센터를 건립중인 진각복지회(이사장 성초통리원장)는 한글·컴퓨터,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거나 자원봉사에 나설 국제협력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이 하나가 되고 있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NGO들이 이같은 국제교류사업을 계기로 다양한 국내·외 NGO 단체와의 만남, 국제적인 연대의 틀 등을 모색해 적극적인 불교사회운동으로서의 이론과 조직적인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토회, 재가연대, 1000일정진불교연대 등은 21일 기독교연합회관내 사무국에서 민간단체 포럼 종교분과 2차회의에 참석해 회의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 (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이름표)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비매 품지 입습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규격 : 폭28cm×높이28cm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이름표)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비매 품지 입습니다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내몸 자생중생 제도하는게 근본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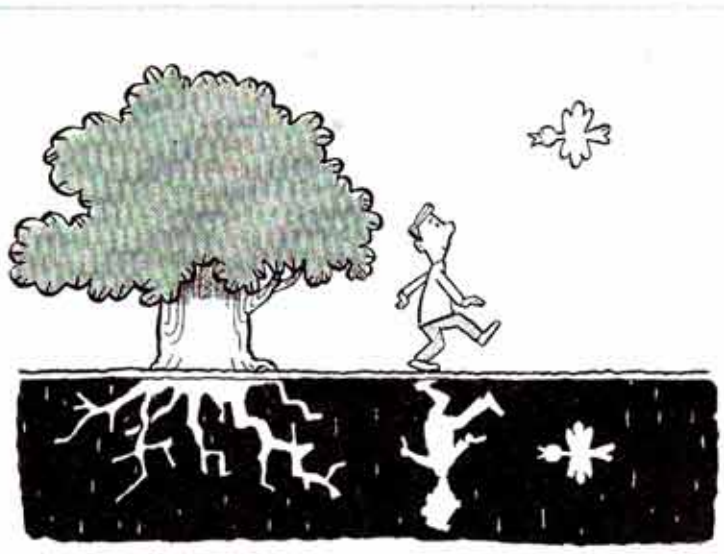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경계 쉬려면 생각 마음안으로 돌려 놓아야
나의 불성은 일체만물만생과 직결돼 있어

어떤 마음으로 놓아야 할지…

문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큰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인공에게 믿고 맡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주인공에게 믿고 맡긴다는 것은 주인공이 꼭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되건 말건 주인공 당신이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두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인공에게 놓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막상 내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는 주인공에 놓기보다 일단 그 일이 머리에 꽉 들어차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인공에 놓자, 주인공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 또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주인공을 믿고 놓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건가요? 좀 바보같은 질문들이지만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답 시소한 경계에 휩싸여서, 단지 나에게 닥친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근본에 맡겨 놓는 것이 나의 작고 한정된 마음이 깊고 넓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안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곧 마음을 넓게 쓰는 것이며, 경계를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고 맡겨서는 안됩니다. 근본 마음이 곧 참된 나이며, 나는 그로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이므로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믿고 맡겨야 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맡기느냐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은 일체 생명과 한 바탕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경계가 닥쳤을 때도 마음 안으로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예컨대 병이 났을 때 그 근본 마음으로 생각을 돌려 스스로 간절해져야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마음은 삼라대천세계에 흩어져 있는 일체의 약초(藥草)와 같은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마음에는 나와 너가 없고, 일체가 다 한 몸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을 돌리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낫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종교를 믿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살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종교입니다.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살아나가는 데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일일이 걱정을 한다면 어떻게 그걸 이루 다 생각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러니 뭐든지 주인공에 놓는 것을 부지런히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콩나무에는 콩씨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콩나무에 콩 안 붙은 거 못 보셨죠? 그리고 콩씨 심지 않고 콩나무 나는 거 못 보셨죠? 그러니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어떻게 믿고 맡겨 놓는지요

문 마음 속에서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나오는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지, 잘못 나오는 것이 있으면 생각을 돌려서 잘되게 맡겨야 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합니다.

답 때로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겠지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놓아야 하는가?'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말고 믿고 맡기는 작업을 계속 하세요. 용광로에 다 헌 쇠를 모두 갖다가 쌓아 넣으면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런 작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회에 참석해서 스님들의 법문도 좀 듣고, 도반들과 함께 공부해 간다면 훨씬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법회에 참석해서 질문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내가 관한 것을 가지고 괴로워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아무리 괴로워해도 사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한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것에 방방뛰면서 괴로워했다가도, 차분히 내면을 관하면서 맡겨 놓고 지켜보다 보면 슬그머니 돌아서 현실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주인공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너무도 소중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그렇게 믿고 놓는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운전수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듯 차가 내가 아니고 운전수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단지 차일 뿐이에요.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차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맡겨야 하나, 저렇게 맡겨야 하나 생각하기 이전에 그 생각을 하게 한 그 자리에서만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체를 맡겨 놓고 살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부와 자를 상봉시키려면…

문 부와 자를 상봉시키려면 관법을 수행해야 합니까?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답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나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입니다. 이 나는 항상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편안치를 못합니다. 바로 이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계가 '고(苦)'라고 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 말고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 또 하나의 나가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나인 줄 알게 될지도 모르니 '참나(眞我)'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멸하는 중생심으로서의 나는 '거짓 나'이며, 그런 나까지도 다 포함하는 나의 참된 면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때의 나란 말할 것도 없이 참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거짓 나와 떨어져 따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나의 근본 그 자체가 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생심 · 번뇌심 · 삼독심을 '괴고' 참나를 얻는다기보다, 그것들을 되돌려 놓음으로써 참나로 되바뀐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진실히 믿든 안 믿든 찰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너로부터 있는 거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책을 볼 수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작용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작용하는 나를 누가 형성시켰을까요. 바로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놓은 게 아닙니까? 자기란 놈이 형성시켜 놨으니까, 그 형성시킨 그놈이 바로 부(父)가 되는 겁니다. 참나가 되고, 그런 거니까 형성된 자(子)의 마음은 바로 부의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꼭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나무가 제 뿌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무가 자기만을 고집하니 그걸 무명이라고 합니다. 흙이 덮여서 나무가 제 뿌리를 못 보게 된 것을 무명이 덮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영원의 근본 뿌리를 못 보는 것은, 바로 무명 굴레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진실하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참나를 진정으로 찾아서 실현하게 되면 그때에는 중생으로서의 거짓 나 또한 참나의 한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 자체를 관하고 지켜보고 그 자리에 믿고 맡기는 생활을 해나간다면 그 속에서 내 안의 참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나를 발현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먼저 내 안에 참나가 언제나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먼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 내재되어 있는 나의 근본을 꼭 알아야겠다는 신심으로 일상을 그 자리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좌선중 다섯마디 대나무 보여

문 책을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정진하는 회사원입니다. 나름대로 수행을 하다보니 절에 직접 찾아가기는 약간 쑥스러웠는데 이 '길을 묻는 이에게'가 있어서 너무나 반갑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산행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좌선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 정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좌선을 하는데 마음 속에 다섯 마디의 대나무가 허공에 보이는데 양쪽 끝마디는 막혀 있고 안쪽의 세 마디는 뚫려있었습니다. 그래 그 뜻이 뭔지 아무리 참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어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살펴주셔서 저의 앞길에 큰 빛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답 앞뒤 없는 대피리처럼 안과 밖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참나찰나 돌아갈 때, 꼬집어 나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안과 밖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것이 참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 · 중국 · 한국불교사)
천수경 · 반야심경 · 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예절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체계적인 교리 공부,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2월 20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강사
청운 큰스님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 포교사자격증 수여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수행 · 기도 · 명상 · 휴양

아름다운 소리산 출세봉,괴안봉, 반야봉(보궁터) 해탈봉, 나한굴, 바람굴, 약수터 행선코스에서 등산, 산림욕, 산책, 휴양, 명상을!

■ 절, 염불, 독경, 참선, 행선, 와선, 선체조도인법, 수행의 테크닉 비법을 배우며
■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 업장을 절로녹고 소원은 성취되는 기도체험
■ 수행, 신행, 명상 기도 카운슬링
■ 상기병, 홧병, 불면증, 우울증, 냉병, 감기 몸살, 피로회복을 수행으로 쉽게 극복하는 비법전수
■ 일정 : 3, 7, 10, 15, 30, 50, 100일
(한달 교육 수행 숙식 20만원 기준)

※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저녁8시~일요일 아침8시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홍천대명스키장,산음자연휴양림5km)
◈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禪 체조 수련 · 금강경 강의

불교TV에 방영중인 禪체조 수련을 혜원스님이 직접 지도합니다.
아울러 금강경 강의와 참선 법회엽니다.

선체조 수련 안내	
아침반	오전 9:00~10:20 (월~토)
오전반	오전 10:40~12:00 (월~토) 목요일 제외

금강경 강의 및 참선법회	
금강경강의	목요일 10:30~11:10
참선정진	목요일 11:20~12:00

-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혜원스님의 저서
"선체조 108" "선체조 108비디오"(보급중)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주 소 : 강남구 개포동 5단지 상가 신일 B/D
■ 전 화 : 02)445-6188 / 2226-5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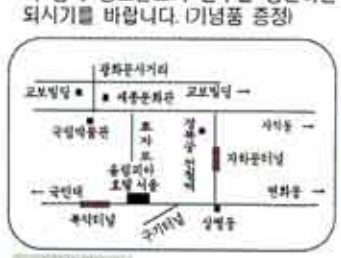
한국참선체조 수련선원

第4回
韓 · 日 親善 淨土佛教 講演會

■일 시 : 2000년 4월1일(토) · 2일(일)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午後 1:30 ~ 4:00
좌담회 4일(화) · 5일(수) 입장 무료
午前 9:30 ~ 12:00
■회의장 : 올림피아 호텔2層 임페리얼룸
02-2287-6000
■강 사 : 高森顯徹
※ 전 일정에 同時 通譯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講演內容
眞實을 아는 사람은 幸福하다.
眞實을 求하는 사람은 더욱 幸福하다.
眞實을 獲得한 사람은 가장 幸福하다.

제4회 한 · 일 친선 정토불교 강연회가 아래의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참석하시어 양국의 불자들이 함께 정토불교의 진수를 청문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념품 증정)



셔틀버스 운행
· 장 소
덕수궁 정문 앞
· 시간
아침 08:00,
아침 08:30

오시는길
▶ 버스노선 : 135-1, 135-2(종점 하차 도보10분)
▶ 지 하 철 : 1호선 7번 출구 135, 135-1,2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한국통신 앞135-1, 135-2 버스종점
3호선 경복궁 전철역 하차 택시 10분

■문 의 ☎ : 02-2232-3990 (박 창 재)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안팎 어디도 머무르지 않아야 참선

☞ 15면에서 계속

그렇다고 이런 체험을 했으니 내가 공부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희미하게나마 보여준 것이니 더욱 지극하게 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해이해진다면, 그것은 내 안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요. 근본에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라만상=주인공' 느끼려면…

문 스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인공으로 보니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군요. 하지만 제가 어리다보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절실하게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삼라만상이 주인공임을 절실하고 마음깊이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볼 수는 없을까요?

답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쳐져 둘 아니게 돌아가야 할 텐데도 항상 나라는 육신에만 집착하여 한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콤비가 되질 않습니다. 실은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망했다, 이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함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이 몸뚱이를 두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이 몸뚱이는 생명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을 가득 태운 배 같은 셈이지요.

그러니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 몸 안에도 천차만별의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물 한 잔을 마신들 내가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봤다고 할 수 있으며 내가 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거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나무는 내 뿌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내 뿌리에 바탕을 두고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근본을 믿는 겁니다. 자(自)불이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근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 근본에는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일체 제불의 마음도 모두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상과 생각을 벗어나서 일체를 주체에 맡기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생소하다가 두 마디 하면 좀 낫고, 세 마디 하면은 좀 낫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자기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냥 실천을 하는 거죠. 적든 크든 간에 내 앞에 닥친 것들을 그냥그냥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잘 안되면 되게끔 하는 실천. 그러나 자기가 과거로부터 지어놓은 그 모든 차원이 넓어져야 그게 없어지지 차원이 좁은 대로 그냥 있으면 그걸 아무리 되게 하려 해도 자기 마음이 좁기 때문에, 차원이 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허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하라는 겁니다. 그냥 다가오는 대로 굴려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입력됐다고 믿으면은 '아, 입력된 대로 나오겠지' 하고 그냥 그대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 껍데기 나가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오다가, 나가 있기 이전의 나가 있다고 하니 그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 생각으로는 알고 있다고 하고,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의 감응은 오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자꾸 생각이 나는 대로 되 그 자리에다 놓아가다보면 자꾸 자꾸 엷어져서 정말 가슴으로 진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완전한 깨달음의 끝

문 저는 현대불교신문을 통해 '길을 묻는 이에게'를 보고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스님, 제가 궁금해하는 질문은 다름이 아니오라, 큰스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주인공에 의해 살아왔고, 살아가고 또 미래에도 살아가는 거라면 지금 이대로 그냥 그냥 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저는 나의 태초와 나의 끝, 즉 우주의 태초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주계에 여러 혹성들도 많은데 왜 하필 지구에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혹성에도 생명체들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곧 주인공이라면 애초에 나는 무엇이었으며, 또 공부를 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한다면 그 끝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먼 곳을 보지 말고 그것마저도 주인공에 놓으라고 하실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궁금증이 떠오르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답 우리들은 몸체, 즉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보이지 않는 50%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몸체를 형성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거죠. 또 채소를 심는데 그 종자는 무엇이냐, 종자가 없다면 물질이 나오지를 않는데 그 물질이 나와서 다 먹이고도 또 그 물질이 종자를 이루어서 심어서 또 먹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볼 때에 우주천하, 삼천대천세계가 그러하다 이겁니다. 내 가정, 내 몸뿐만 아니라 조상, 자녀들, 사회, 모든 전체를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 문제는 모든 것이 다 귀결돼서 통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쥐고 가기만 해도, 쥐고 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나가고 또는 사회를 보면서 거기다 맡기면은 그게 즉발로 우주법계로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우주법계에서 우리 중(中)세계의 살아나가는 거를 상세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 장본인은 나를 형성시킨 근본, 마음이거든요. 이게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한 여건과 더불어 우주의 근본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리로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본다해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뭘 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집어먹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도록 행을 할 수 있어야지 어찌 보기만 하는데 도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상대의 속을 훤히 들여다 본다해도 도가 아니며, 가고 올 수 있어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해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못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해야 합니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를 한다면 바깥으로 남을 이익하게 조절하며, 그 마음이 충만하다면 어떤 것이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여건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고 옴이 없이 나툼으로써 그게 바로 내가 되면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세계평화도 가져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한발 한발 걸어가면서 실천하며, 게으름이 없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 아집을 갖지 않고 툭털어 내놓아 어느 것 하나 걸치지 않는, 그래서 내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는 평발의 도리를 알아야 합니다. 발이 밋밋하고 평면이어서 평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 한 마리의 발 하나라도 내 발 아님이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익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왔다갔다 하다보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병도 낫겠지, 그러면 그만 아닌가! 하는 이런 정도로만 공부한다면 병도 못 고치거니와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 못할 것입니다. 내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이 법당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법당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마음으로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본행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될 것이지, 하면 좋고 안하면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조상 산소 이장하려 하는데…

문 청명 한식을 맞아 조상님의 산소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할지 큰스님께 여쭙니다.

답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만 모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지신(地神)과도 둘이 아니라는 거죠. 흙과 땅을 관리하는 지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즉 말하자면 흙도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흙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물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한데 모여서 동참을 하니까 공기로서 인간을 살릴 수도 있고, 만물 만생을 길러내기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신도 나요, 목신도 나요, 그러니깐 조상님의 영혼도 둘이 아니요, 영혼과 영혼을 한 물에다 집어넣으면 한 그릇이지 두 그릇이 아닙니다. 영, 영 해도 둘이 아니요, 영, 영, 영, 영 해도 둘이 아니요, 영 하나를 해도 둘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카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어떨 땐 문제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매장을 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에 세 번, 절을 하고 네 번째에 자기 주인공 자리에 '감사합니다!' 하면 모두가 혼합이 돼서 전부 빈손이 돼 버려요. 그렇게 하면 산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치는 것 없이 오히려 좋은 일만 생기죠. 또 땅에 도로를 낸다든가 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소를 파내라 한다면, 이건 예를 들어 얘깁니다. 그런 경우에 묘지를 파내고 이장을 한다 이럴 때도, 내 형제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렇고 남이라고 하더라도, 여지껏 모든 걸 지켜온 데 대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지껏 지켜줘서 감사하구나.' 흙이 지켜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흙 속에 묻혀서 지켜졌으니까.

그런데 아주 모르는 사람이나 도리를 완벽하게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하겠으니 마음 좀 내주십시오" 하고 해라 이겁니다. 자기가 거기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부 따로 흩어지니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모두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걸 보면 그걸 모르고도 당하고 알고도 당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두 다 화합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서 지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불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문 집에서 참선 전에 운동 겸 마음을 가라앉게 하려고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내가 좋아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 놓고 절을 하고 참선하는데 일 배 할 때마다 내 주인공 자리에 놓고 관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러한 행동도 사불이 될 경우가 있어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니 참 대견하군요. 자신이 그렇게 밖으로 끄달리지 않고 주인공에 하나로 돌아서 한다고 하니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좌선을 할 때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지극하게 관을 하시고, 낮에도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주인공 당신이 이끌어가, 나는 열심히 뛸게' 하고 믿고 맡겨 놓는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참 으뜸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정진 아닌 정진을 함이 없이 해 나가세요.

한밤중에 두려움에 휩싸여…

문 저는 스물 여덟살의 고시생입니다. 스님 말씀은 언제나 기쁘기 그지 없는 감로수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가 잘 안될 때도 있지만, 스님 말씀대로 성실히 '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밤중에 갑자기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당에 다니면서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스님 말씀을 듣고 세계관과 종교관에 많은 변화가 왔고, 요즘은 모두 '주인공'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저의 두려움이 흔히 느끼는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쩔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감히 여쭙고 있습니다. 욕심도 그냥 두려고 하고 있고, 믿음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가르침을 바랍니다.

일상 관하고 믿고 맡기다 보면 생활속에서 참나가 드러납니다

답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벗어나서,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 수레가 아니라면은 살 수가 없이 되어있는 상황 속에서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축소시킨다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없으니까 너는 항상 중생으로만 살아라, 거지로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나 뭐 다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좁고 옹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건 되는데 큰 거는 안될 거다' 요런 생각, 또 '요렇게는 되는데 이런 거는 힘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고 업이 많아서, 내가 업을 과거에 얼마나 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나? 요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업 붙을 자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 입력되었으면 그 입력을 지워버리는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거기에다가 일임하고 입력을 한다면, 쉽게 말해서 믿고 거기다 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즉 말하자면 큰 회사라고 한다면 사원이 수백 명이 있다 하더라도 원자에서 수백 명의 입자로 화(化)해서 들어가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고정되게 있다는 상(相)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없다면 부처님 법도, 가톨릭 법도, 기독교 법도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 이외의 어떤 것에 끄달려서, 기복으로 가서는 절대 나를 발견할 수 없고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나한테 재료를 다 두고도 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인간으로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인간까지 와서 다시 밑으로 좌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주인공을 믿고, 모든 아프고 괴로운 것, 공부하는 것, 내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 등 모든 것을 다 내 주인공 안에, 거기다 맡겨 놓으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내 주인공에 다 맡겨 놓고 '당신밖에 할 수 없어' 하고선 가볍게 뛰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부드럽게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 뿐이지, 진실로 믿고 내 안의 근본에 모두 맡겨놓을 수만 있다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은 나로 부터 시작을 내가 고정돼 있다는 相때문에 苦가 따라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믿음과 만족을 드리는 동천 황토마을
황토방 흙벽돌 제조 · 판매
황토방 시공전문
대표 이 해 구 합장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210번지
0594)867-1988,4037

강좌

사주 명리 배우실분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이사방위 진로선택 등 기초부터 끝까지 책임 완성해 드립니다.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주2회 4개월간
■개 강 일: 3월 17일(금요일)
■장 소:마포구 망원2동 474-15
선 주 정 사
☎02)323-4050/4480

제6기 무료강좌안내
⊙ 따주기 ⊙ 수족침요법
⊙ 침구 ⊙ 기공
2개월간 주1회 교육
통신교육도 가능
※지회및 분회 개설할 분도 연락요망
한국전통민간요법학회
02)2246-7477
011)9090-1049

철학 강좌
사주, 관상, 작명, 부적
▶ 초급반, 고급반, 개업반 (교제 제공)
▶ 강의시간 1교시:11:00부터
2교시:14:00부터
3교시:16:00부터 (월~금 주5일)
▶ 스님직강 3개월 완성(월 8만원)
☎ 02)946-0078
018)551-0313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희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824-3517
청운역리학원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화엄경 (80권) -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구인구직

모십니다
스님들이 야생사철쑥과 자연산 약초로 제조한 건강보조 식품을 전국에 공급하고자합니다.
대리점이나 판매하실 처사님이나 보살님을 모시고자합니다.(20~55세)
※ 사무직(서울거주자)모집
02)988-4773

구 직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처사겸
일할 곳을 찾습니다
0351)826-1152
· 주간에 전화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오.

공양주
구합니다.
0543)
954-0391

법보 불교 대학생 모집
法華三部經 法本數儀 **教本講儀**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인터넷홈페이지
my.netjan.com1 ~ BonHaeng
■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166
대암사 0552)582-5056
불교대한 본행회 법보불교대학 회장 정무량광 이광제 합장

본행결혼상담소
조그마한 정성도
큰 인연으로 선남 선녀의
초 · 재혼을 맺어 드립니다.
본행원
051)502-8455
본행심 보살 합장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맑고 향기롭게…
꽃 공양
◆불교전통 사찰 행사용꽃 전문
◆일반 생화 일절 도소매
◆화환 · 꽃바구니 · 신부화 · 웨딩꽃길전문
◆전국 꽃배달
淨我 꽃집
※ 금강자비회 초대 회장 윤 대현 합장
남대문 꽃 도매상가 138
02)774-5886/011)737-4657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자병차 소타차
고산 오룡차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卍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승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신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0345)495-4848,4845,4846 FAX491-8548
지점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가정집 김밥 전문
■서울,인천근교
■ 방생법회, 성지순례 및 각종 법회(행사)시 주문 환영
※ 2일전 주문 바랍니다.
신따라 물따라 김밥
02)736-0368 (주간)
032)464-1461(야간)

사찰안내

사찰부지 안내
◆위치 : 거제도 장목면
(거가대교 입구)
◆부지 : 2700평 ◆법당 : 20평
◆요사채 : 60평
◆특징 : 뒤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와 해수욕장이 있음
◆가액 : 3억(절충가능)
0558)635-3891
017)560-4227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예산
◆대지 : 700평
◆건물 : 조립식45평
(법당15평 요사30평)
◆가액 : 6천 5백만원
(답사후 가격절충)
0458)333-1163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법당 : 25평
◇요사 : 40평
◇부지 : 130평
◇가액 : 2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주안동
◆ 건물 : 법당및 요사채 50평
◆ 대지 : 50평
◆ 가액 : 6천만원
◆ 위치 : 강원도 정선
◆ 건물 : 법당(목조), 산신각, 요사
◆ 대지 : 250평
◆ 가액 : 9천만원
해동불사 02) 389-7880
019)390-6110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함안
◆ 대지 : 약 400평, 잡종지1,100평
창고 30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가액 : 1억 7천만원(은행 5천만원)
0552)582-5056
019)502-8454

사찰 안내
◆위치 : 울산 언양
◆대지 : 70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5, 공양실16평, 욕실2개, 화장실2개
◆가격: 8천만원
◆실공사비 1억 3천만원 들었음.
052)254-1929
011)9525-1969
※인연이 되시는 스님은 몸만 오시면 됩니다

사찰 안내
◆위 치 : 경남 고성군
◆부 지 : 280평
◆법 당 : 30평 ◆요사채 : 30평
◆산신각 : 3평, 기타부속물 : 종각
◆가 액 : 1억 3천
0556)674-4024
011)581-1237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지 70평 건평100평
◆가격 : 3억 5천(융자포함)
◆특징 : 현대식 2층 건물의 도심 사찰로, 아파트 밀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도심 포교지로 적지임
◆남양주, 강릉, 마산, 김천, 동해, 서울 부산 인근지역 사찰 급히 구합니다.
서 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부지 : 300평
법당30평, 요사 3동60평
◆가격 : 3억
◆특징 : 주위경관이 수려하며, 도심사찰로서 적지임.
◆수원, 청평, 사천, 하동, 진주, 음성,진천, 함양, 창녕지역 사찰 찾으시는 분 연락바람.
서 울 02)3666-9020
동진불사 대 구 053)635-9080
휴대폰 018)334-902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 대지 : 63평(큰도로 바로옆),
◆ 건평 : 80평 1층(요사채4평)
2층(법당40평)
◆ 가액 : 2억 8천만원
052) 249-3059
011) 848-096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 대지 : 600평
◆ 특징 : 앞에 강이 보임
전기, 전화, 도로
스님 토굴 자리 좋음
◆ 가액 : 평당 8만원
019) 308-0880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아산시
◆ 건물 : 법당 목조12평,
산신각4평 요사채 13평
◆ 대지 : 97평
◆ 월세부지 240평 (1년 80,000)
◆ 가액 : 6천만원
0418) 533-8636
017)705-6531

포교원 안내
(사찰 운영관계로 사정상 급매)
◆위치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평수 : 39평 3층 요사채 방 3개,
거실, 욕실, 주방, 최신설비
38평 4층 법당, 주지실, 상담실, 욕실
◆가격 : 1천만원 - 월 100만원
(월세만도 가능함)
시설완벽. 신도확보. 교통. 시장 편리함
0343)469-1562,443-9733
016)363-1562

사찰 안내
◆위치 : 조치원 시내
(국민회관 맞은편)
◆평수 : 24평
◆가액 : 2천만원(전세)
0415)867-2481
011)819-4113

사 찰 안 내
◆ 위 치 : 당고개 전철역 6분거리 ◆ 대 지 : 400평(국유지:불하가능),
◆ 법 당 : 40평(부속방사3실포함) ◆ 요사채 : 30평(주방및 거실, 방2개)
◆ 가 액 : 2억 7천만원
◆ 특 징 : 주차시설 완비(약 20대분), 노천 나한님 20분 조성석조) 추가 480분 모실 시설 완비, 수락산 기슭에 자연 경관이 수려한 청정기도 도량으로 도심 포교의 최적지입.
◆영업안내 : 1. 사찰 양도, 매매, 전월세, 포교당,사찰부지, 상담안내
2. 부전스님, 의식 집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알선
3. 청동불조성(천불전, 삼천불전, 만불전)
4. 법종 조성 5. 기타 사암관련 정보제공
사찰 전문 용역 금강기획(구 금강실업)
02)736-3578~9/359-9492/011)789-225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 대지 : 273평,법당25평,
요사채 30평
◆ 건물 : 새건물(양옥)
◆ 가액 : 1억 8천만원
051) 971-9793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영주시 단산면
영주시내에서 7~8분 거리
◆평수 : 790평
◆산세좋음
◆가액 : 3천 2백만원
0444)423-7462

포교당(법당) 안내
(정법도량스님직접 상담)
부산시내 최요지 상권중심
◆삼존불(아미타, 관음, 지장)
◆후불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법당, 방2칸, 큰거실
◆총55평, 옥상사용가능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전세 1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1)889-7141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소재
◆ 대지 : 300평
◆ 법당 : 22평 ◆ 요사 : 30평
◆ 가액 : 1억 9천
◆ 특징 : 포교도량 최적지
(준도시 형성됨)
0595)883-2448
011)831-4712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삼천포 와룡산
◆건물 80평, 임야 4천5백평 , 방11개
◆가액: 2억 5천 (절충가능)
◆안대수려, 차량진입, 수질양호
※ 부전스님 모십니다.
0591)746-2478/011)830-2880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 찰 안 내
◆위 치 : 장호원 근교(서울에서 1시간 30분 소요)
◆대 지 : 1,600평 (평지임)
◆법 당 : 25평 (목조,주3포,단청완료)
◆요사채 : 50평 (시설완벽, 심야전기)
◆산신각 : 10평 (목조 단청완료)
◆종 각 : 10평 (전통종각으로 목조시공)
◆가 액 : 4억 (대출가능)
◆산세수려,기도처및 청정도량으로 고찰임
법당앞까지 차량진입가능.
한국불사 02) 561-7791
018) 273-9390
※전국소재 사찰이나 암자 양도양수하실분 찾습니다.

토굴 안내
◆위치: 충남 청양군
◆면적: 준농림지 1070평중
대지124평은 (암자로 등록)
건평 23평, 남향12평은 (100% 황토방)
◆1급 수 암반, 무공해, 논, 밭
농사 가능, 인적이 드뭄.
요양, 암자, 전원주택으로 적당함.
◆가액 : 7,800만원(가격절충)
011)9545-1903 /012)1551-1901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쌍책면
◆ 건물 : 법당1동, 요사채
(방3개, 입식부엌)
◆ 대지 : 78평
◆ 가액 : 3천만원
053)312- 5689
※ 공양주 구함(조용한 절)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 평수 : 약 1200평
◆ 22평건물1동에 소법당, 방1칸
◆요사채 25평 건물1동에 방2칸, 마루, 화장실
◆요사채12평 1동에 방1, 부엌, 주방, 나무맴
◆용왕당, 창고1, 주차장, 화장실
◆특징 : 산자수려하고 물이 음양수로 나와 청정약수가 나오며, 사찰 길은 주위 장애물 없이 단독 산속으로 절 도로만 되어있음.
◆ 가액 : 1억 6천만원
0594)862-6199/011)831-4712

토굴(급) 안내
◆위치 : 지리산 계곡(암자터)
지리산 실상사→마천방향 15km
→ 한남마을옆 장터목 산장에서
산길로 1.5(장터목 산정에 문의)
◆대지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남호리
1012번지 외 세필지 707평
현재 논 휴양지 준농림지 계곡 옆 남향
마천면 군자동 임야 600고지 한필지
◆가액 : 2천만원
0597)963-4965
011)9542-9060

대가람(사찰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산185 진위사 성취선원 불지촌
◆ 대가람(사찰터)총30필지 15만평 원하는 평수만큼 분할가능
◆ 대지6필지 1600평, 건물 요사채 130평(욕실 화장실 완비된 방22개 기타 6개) 식당 60평, 가법당 33평, 굴법당 100여평(굴길이 84m 좌우석실 7개), 기타 60평, 전기170kw 지하200m이상 암반수 3곳, 지하수 평평!! 서울 강남에서 40분, 오산IC에서 10분 2002년 개통전철역 5분 거리에 위치한 수도권 남부, 주산 주봉을 포함한 대가람터
◆ 계약금조로 3~5억 받고, 소유권 이전해 드림.(단 안정장치요망) 나머지 금액은 불사하시면서 년부상환 "뜻 맞으면 천하도 반분한다"는데 보시 못할 이유도 없지요, 잘만 하신다면 좋은 조건으로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0333)662-6677 FAX 0333)663-6677
011)264-6677 011)392-6689

불자 세상보기



◇ '물 부족사태 남의 일 아니다' 봄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경북 청도의 운문령이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가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아껴쓰고 환경을 보전하는 길만이 물 부족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다.

한국도 물부족 국가

2006년에 4억톤 모자라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물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2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물의 날'이 22일로 8회째를 맞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구 환경전망 2000'이라는 최근 보고서에서 새 천년 지구촌의 가장 중요한 환경과제로 물 부족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세계적으로는 물이 없어 숨지는 어린이 수가 하루 평균 5000명을 넘어설 만큼 물 부족 문제는 인류의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유엔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는 지난 93년에 우리나라를 이미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해 놓았으며, 현재 추세라면 2006년에는 물 부족량이 4억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물 낭비습관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1인당 수돗물 급수량이 하루 395ℓ로 선진국(독일 132ℓ, 덴마크 246ℓ, 프랑스 281ℓ)보다 훨씬 높은데서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에 의해 도적이 되고, 행위에 의해 지배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물이 우리에게 혜택을 줄지, 아니면 고통을 주게 될지는 분명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다. 범국민적인 물절약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관련기사 21면>

화풀이로 살인…재미삼아 도둑질

청소년 '이유없는 범죄' 증가

얼마전 한 중학생이 저지른 '무동기 살인'은 온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가정폭력에 따른 화풀이 범죄였다지만 살해된 여중생과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이유없는 범죄'다. 바로 이같은 '이유없는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재미삼아'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화풀이'로 대낮에 살인을 하는 등 청소년범죄는 이제 문제아들만의 몫으로 돌릴 수 없게 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의 25%가량이 집단동조심리나 충동, 호기심 등 사소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여고생 2명은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충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지난 1월에는 비디오와 화장품을 훔치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11월에는 영화를 모방한 주유소 금품털이 사건이 몇 차례 일어났다. 수도권 지역 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에도 충동적으로 저질러지는 절도사건이 하루 평균 10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을 못살게 구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삭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이번 여학생 살인사건은 '불특정인'이 범행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10대 총기난사사건과 흡사하다.

전문가들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매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청소년 세대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진단하면서도 가정불화 및 입시위주교육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거나 대응하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욕구불만을 즉흥적으로 해결하려는 신세대의 세태 때문이라거나 폭력적인 컴퓨터게임에 물든 결과라거나 자기 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질타는 사회의 책임회피라는 견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회전체가 나서야 할 문제며, 특히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이들이 마음껏 젊음을 분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와 지식주입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는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유없는 범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간을 지력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기르는 것이 된다"고 경고했던 前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말은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사경〉에 "세상의 온갖 바르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 과정을 보건대, 여러 바르지 않은 종류의 일과 여러 바르지 않은 부류의 일이 다 마음이 앞장서 인도하는 탓으로 일어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나쁜 마음이 일어나면 악하고 바르지 않은 일들이 다 그 뒤를 따라 생기는 까닭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깨우쳐주는 가르침이다.

〈중아함경〉에는 "바른 소견이 생겨나는 인연은 원인(因)과 조건(緣)에 있다. 남에게 듣는 것과 자기 마음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니라"라는 가르침이 있다.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바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일깨워 준다. 결국 10대들의 '이유없는 범죄'는 기성세대에 대한 경종인 것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대학 음주문화 '바꾸자 바꿔'

신입생 환영술자리 등 해마다 사망자 나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대학가의 삐뚤어진 음주문화가 세간에 회자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을 맞아서도 이같은 행태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까지도 관습처럼 되풀이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일 지방의 모대학에 입학한 한 남학생은 고교동문 선배들을 따라 학교앞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숨졌다. 과도한 음주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또 모대학에서는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맞은 한 후배학생이 뇌출혈로 쓰러져 중태에 빠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음주강요로 사망한 대학생은 모두 10여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개학을 맞아 신입생 환영회와 동아리 모임이 늘어나면서 선배들이 강제로 들이붓는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법염처경〉에 "술은 독약이고 독수(毒水)이며 독기(毒氣)가 된다. 도덕을 흐트러뜨리고 망령된 환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는 말씀이 있다.

현대사회를 살면서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문제는 적당한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음주는 결국 경전말씀대로 독약이고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약사범 1만명 넘었다

대검찰청 '백서' 발간
30~40대 크게 늘어

IMF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좌절계층'이 늘어나면서 히로뽕, 헤로인 등에 손을 대는 30~40대의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다. 대검찰청이 21일 발간한 '1999년도 마약류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단속이래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1만589명으로, 98년 8350명에 비해 26.8%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은 지난 95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30대는 5년사이에 2배, 40대는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전체 마약사범중 30·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검찰은 "경쟁사회에서 밀려난 심리적 좌절감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나, 실직자 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마약류에 쉽게 빠져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대인은 대부분 불안과 초조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을 일탈에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걸식경〉을 보면 탁발에서 밥을 얻지 못한 부처님이 '밥을 빌 때 일곱 집을 넘으면 안된다'는 '칠가식(七家食)'의 규칙을 어기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 탁발을 할까 하는 심리적 갈등이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은 결국 '식욕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것은 타율적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배를 채우고 재산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규칙과 양심때문에 다시 밥 얻으러 나가기를 포기한 부처님이 '바보'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바보'같은 부처님을 성인으로 받들고 있다. 아무리 처한 환경이 어렵더라도 마약에 의지해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것은 비겁한 짓임을 '부처님의 선택'은 깨닫게 해준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공포와 몽상을 여의라는 내용이 간명히 제시돼 있는 〈반야심경〉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시론

화장, 필연적 선택

좁은 국토에 묘지가 너무 많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은 귀신들이 산 사람을 밀치고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수군거린다. 모두 매장문화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

전국토의 묘지화 막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화장 및 납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묘지문화는 의연히 매장이었고 산소였다. 그것은 국조 단군 왕검에서 시작되었으며 국난으로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될 때마다 회귀하였던 굳건한 원형으로 자리잡았다.



김 영 재
〈충남대 철학과 강사〉

왕검은 환웅의 아들이요, 환인의 손자이다. 환인은 천제, 혹은 하느님이라 했으니 한국인은 하느님의 자손이 된다. 그 하늘민족의 국조 왕검은 황해도 구월산의 산신이 되었다 했다. 산이라는 하늘사다리를 타고 할아버지가 사는 하늘세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니 하늘민족이 국조의 선례를 따라 산에 묘를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한가. 그것이 후손에게 전해진 매장문화, 특히 산소의 원형회귀적인 모습이다.

나라가 시끄러울 때마다, 오랑캐와 왜구가 이 땅을 어지럽힐 때마다 단군왕검은 불사조처럼 부활했다. 정체성에 대한 민족적 자각이 한국인 특유의 조상숭배 사상과 중국 전국시대의 음양술, 도참사상까지도 어렵지 않게 결합시켰다. 나아가 건물의 위치를 가늠하던 풍수지리가 오행사상과 함께 죽은 조상을 길지에 묻으면 자손이 흥한다는 관념으로 보편화한다. 신라시대에 이미 시조묘에 대한 제사가 상례화할 정도이니 조상숭배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라 할만하다. 또한 모든 종교가 매장문화를 옹호해왔다.

불교에서는 인도 전래의 만다라, 얀뜨라 등의 영향으로 신성의식화한 청정만다라사상이 이 땅에서 산천만다라 사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에 관대한 데다가 대승불교에서는 조상(造像) 조탑(造塔) 및 사경(寫經)의 공덕까지 조상의 영가천도와 연결시켰다. 유교의 영향으로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하여 화장(火葬)이나 부검, 나아가 장기기증까지 꺼리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인 공감대가 되었다. 그토록 매장 및 산소문화는 뿌리가 깊다. 그렇게 이 땅의 귀신문화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을 넘보는 실세로 등장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인 귀신의 동티를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할까. 기독교야 아예 제사까지 부정한다.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대로 괴(怪) 력(力) 난(亂) 신(神)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현실노선을 표방한다. 특히 불교는 근원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처님은 색이 있다면 그것은 악마요, 가시요, 방해물이요, 교란물이라 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受) 그것이 악마요, 방해자요, 교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김동화박사는 마군(Mara)은 내심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잡념망상의 시적묘사라 단언한다. 원효스님은 기신론소에서 마귀와 귀신이라는 상(相)은 내 마음이 만든 마상(魔相)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 밖에 별다른 마상(魔相)이 없다고 마음먹으면 그러한 상(相)은 즉시 사라진다고 했다.

매장풍습 자연훼손도

화장문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꼭 불교적 문화의 하나라는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화장은 이제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매장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이같은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매장문화에 대해 각성하기 시작했고 '화장유언서약' 캠페인이 시민·종교단체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호화분묘와 호화장례식을 치르는 사회지도층과 매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삶의 시각과 죽음의 방식은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나 삶의 환희와 우리의 국토를 지키는 것도 살아있는 우리와 자손들의 몫이다. 삶을 보다 값지게 영위하면서 보다 넓은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겠는가.

국태안민과 남북평화통일 및 동해안 풍어기원
용왕탱화점안 및 준계방생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약동하는 양춘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 가정에 관대번한 부처님의 자비 광명과 지혜복덕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본 약수암에서는 세천년 경진년(庚辰年) 경진월(庚辰月) 갑진일(甲辰日)을 맞아 중요무형인간문화재 제48호 이만봉 큰스님을 증명 대법주로 모시고, 중요무형인간 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 대덕스님들의 불교전통의식 집전으로 국태안민과 남북평화통일 및 동해안 만선풍어기원 용왕탱화점안 및 준계방생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하오니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이 뜻있는 법요식에 무이 동참 기원하시어 모든 고해와 입장을 소멸하시고 재앙을 물리치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이 이루 무량하신 부처님의 불은과 가호를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다 음 ▶

1) 일 시 : 불기 2544(2000년) 4월 16일(음 3.12) 일요일 오전 10시
2) 용왕탱화점안 : 거진 약수암 법당 (오전10시)
3) 방생법회장소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 부두(오후1시)
4) 증 명 대 법 주 : 이만봉 큰스님(중용무형문화재 제48호)
5) 불교전통의식 : 영산재 전수 대덕 큰스님(중요무형인간문화재 제50호 전수자)
※ 방생축원접수 : 4월 10일까지 본사찰 종무소에 접수 바랍니다. (축원문 및 천도문)
⊙ 문의및연락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6리 234-1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금강산 약수암 종무소
전화 ☎ (0392) 682-1933/1707 (주지실) ☎ (0392) 682-3125 (총무실)

금강산 약수암
주지 보해 이 호성 합장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 인진쑥 엑기스는?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陳蒿)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뼈에 관절이나, 골다공증, 골절등에 특효라는 홍화씨를 스님들이 직접 유왕과 불재를뿌리고 재배한 토종홍화씨환을 필요하신 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금급해 드립니다.

순수익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를 맑게 해 줍니다.
3. 당뇨병
4. 신경통
5. 생리불순이나 냉대하
6. 간이 나쁜사람
7. 위장병에도 효과적입니다.
8. 고혈압, 저혈압
9. 피로회복에도 아주 좋습니다.
10. 정력 회춘에도 아주 좋습니다.
11. 불면증, 황달
12. 산모에게도 탁월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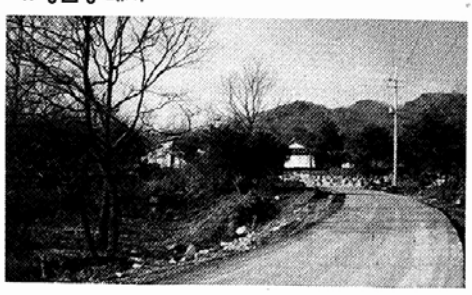
☎ 주 문 처 080-988-4774
☎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남양주시 최고의 대가람터

▶ 소재지 :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 면 적 : 2,000평 ~10,000평
▶ 가 액 : 상담후 결정
▶ 연락처 : 0346)511-0433
017)302-2550
017)391-1003



▶ 특 징
1. 46번 경춘국도에서 직선 1Km
2. 진입도로 아스팔트 포장 및 기반시설 완료
3. 송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마석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절경
4. 정남향 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려다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훼손시킬수가 없었읍니다.

현대불교신문 일본 구독문의
日本國 大版市 生野區 鶴橋乙丁目-4
現代佛教新聞社 日本國支社
전화 : (06) 6741-1923

불교복지관은 학교 밖 '학교'

영어 · 인터넷 · 논술등 취미중심 강좌 다채

동아리 · 봉사활동도… '탈선막는 문화센터'

교계 청소년 복지단체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방과후 작은 학교다.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은 문화체험을 비롯해 학과공부에 도움이 되는 보충학습과 봉사활동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신학기를 맞은 교계 복지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방과후 어린이 · 청소년들의 학원 및 문화 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복지관 프로그램들의 두드러진 변화는, 중고생들의 경우 대학입시에서 특례 입학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영어 · 수학 학습 위주에서 탈피, 논술과 제2외국어 등의 강좌를 개설하는 곳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 소규모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봉사 프로그램도 늘려 어린이 · 청소년들이 복지관을 자주 찾아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탈선을 막아 보자는 구상도 해놓고 있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도 교과목보다는 영어회화, 독서, 피아노, 논술, 글짓기, 인터넷 등 취미 활동 중심의 강좌가 대부분이다.

이런 복지단체 중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이 곳은 어린이 영어를 비롯해 글쓰기 교실, 초등학생들을 위한 꾸러기 스포츠 활동, 컴퓨터 교육을 받는 오름나래 교실, 아동예절 학습당 등을 개설했다. 또 4월부터는 방과후 아동 프로그램인 너른벌 공부방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중학생들을 위한 논술교실과 인터넷 강좌도 마련한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개설한 어린이 바둑 교실을 비롯해 전과목을 지도하는 공부방, 바른글쓰기, 청소년 생활영어, 컴퓨터 등은 교재비만으로 부담없이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다.

아버지의 소득이 많지 않아 비싼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복지관을 자주 찾는다는 이현성군(구로 중학교 2년)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다양한 강좌가 많아 재미있다"며 "비싼 학원비 걱정없이 학교가 끝난 뒤에도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운 일이다"고 좋아했다.

이외에도 양정청소년회관은 독서지도와 논술교실을 비롯해 일어, 인터넷 배우기, 뮤지컬 영어, 가족신문 만들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태권도, 신나는 과학나라, 즐거운 종이접기 외에 선재 방과후 학교, 청소년 연극동아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명륜사회복지관의 김갑수 주임은 "과거에는 청소년 복지단체들이 홍보와 목적 사업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며 "근래에는 청소년들이 즐거이 찾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바뀐 입시제도에 부응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는 경향이 짙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교계복지단체들이 교과목 위주에서 탈피한 문화강좌를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개설하고 있다. 사진은 초등학생들의 '종이모자 만들기' 프로그램.

◇불교복지관 프로그램 내용

복지관명	전화번호	강좌 및 동아리 프로그램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바둑교실 · 글쓰기 · 생활영어 · 컴퓨터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구연동화 · 한문교실 · 논술교실 · 음악교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0	무용교실 · 태권도 · 종이접기 · 인터넷
중리종합사회복지관	(0551)231-8017	스포츠교실 · 방과후교실 · 예절 학습당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71)762-8131	인터넷교실 · 영어 수학 교실 · 독서교실
부산양정청소년회관	(051)868-0750	일어 · 논술강좌 · 뮤지컬영어 · 독서지도

생활정보

명사 휘호 사이트 등장

인터넷 한국 현대사의 주요 인물의 휘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유프로덕션이 최근 제작한 이 홈페이지는 정치 · 경제 · 예술 · 문학 등 8개 분야 모두 80여명의 휘호 사진을 올리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윤보선 · 박정희 前 대통령을 비롯해 함석헌, 이은상, 서정주씨가 포함돼 있다. 시인 서정주씨는 그의 대표작 '국화 옆에서' 전문을 붓글씨로 담았으며, 함석헌옹은 '씨알은 외롭지 않다'란 어구를 써 놓았다.(www.docuyoo.co.kr)

인터넷 '맹자강좌' 눈길

한학을 널리 보급해 온 서울 여산서당은 '인터넷 맹자 강좌'를 개설했다. 인터넷에 맹자 원문과 해석, 그리고 각 장의 해설을 올려 놓았다. 맹자 1장부터 시작해 매주 양을 늘려갈 예정이며 의문점이 있으면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면 된다.(myhome.shinbiro.com/~yeosan)

관세민원은 080-545-7272

조세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관세고충처리 담당관실에 무료 전화를 설치한다. 전화 번호는 전국적으로 '080-545-7272'(오세요 처리처리합니다)'로 동일하며 23일부터 운영한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제도는 관세청이 올해부터 민원인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유네스코 추천 물 절약 지혜

생활 우리 나라가 유엔(UN)이 공인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물만큼은 물쓰듯 쓰는 우리 나라지만 실제로 사막 국가로 꼽히는 이집트보다 물 부족이 더 심각하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각 가정에서는 물을 아끼고 절약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는 조금만 신경쓰면 생활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물 절약법이 많다. 다음은 유네스코가 추천하는 생활 속에서의 물 절약법이다.

◇부엌=흐르는 물로 설거지를 하는 대신 물을 받아서 하면 한 번에 1백15ℓ가 절약된다. 식기 세척기를 사용할 때도 식기를 모아 사용하면 50ℓ가 절약된다.

◇세탁실=세탁기 용량만큼 빨랫감을 모아 두었다 한꺼번에 세탁하면 1백35ℓ가 절약된다. 또 수위를 조절하거나 빨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세탁기를 구입해도 1백35ℓ가 절약된다.

◇정원=여러번 조금씩 물을 뿌려주기 보다 1주일에 한번 흠뻑 주면 여름철 한 주 동안에 2백25ℓ의 물이 절약된다. 한낮보다 아침 · 저녁에 물을 주는 것이 좋다.

◇기타=도로에 떨어진 나뭇잎이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호스를 사용하지 말고 빗자루 등을 사용하게 되면 5분 동안 1백12ℓ의 물을 아낄 수 있다.

건강백과

성인병 예방 식이요법

심장병과 중풍, 당뇨병 등 성인병은 이미 2천년 전에 쓰여진 한의서에 '고량진미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을 만큼 기름진 식사 습관이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된 식사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예방과 치료의 지름길이다.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체중 감소는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선 총 섭취 열량을 제한하고 식사는 항상 규칙적으로 일정한 때에 한다.

■염분 섭취를 억제한다.

소금은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생각만큼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싱겁게 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심장 질환이 있을 때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오르며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므로 조절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의 1일 염분 섭취 권장량은 10g 이하인 데 비해 현재 한국인은 평균 15~25g을 섭취하고 있다.

규칙적 식사로 표준체중 유지

소금 · 콜레스테롤 음식 삼가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피한다.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이 곧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조건 계란과 새우 같은 고콜레스테롤 식품을 삼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고지혈증 환자는 몸에 해로운 포화지방의 섭취를 초소화해야 한다. 음식을 통해 포화지방의 섭취가 5% 증가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은 약 17% 정도 높아진다. 육류보다는 생선이 저지방이므로, 동맥이 막히는 위험을 줄이는 등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현미 잡곡밥 과일 채소류가 좋다

섬유소가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등이 특히 심장병 예방효과가 크다.



◇한국청소년학회의 주최로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정책 기능의 합리적 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한 청소년 포럼이 열렸다.

"청소년청 설치 업무 일원화"

조영승교수 청소년학회 포럼서 주장

"21세기 청소년 업무의 비전을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업무를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청소년청'과 같은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1일 한국청소년학회 주최로 열린 '제16회 21세기 청소년포럼'에서 '청소년 정책 기능의 합리적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조영승교수(경기대)는 이렇게 지적했다.

조영승교수는 바람직한 청소년 업무 일원화 방안으로 △청소년 정책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청소년청' 설치, 운영 △보호 관련 기능 업무 문화관광부로 통합 운영 △보호 관련 기능 업무를 통합한 새로운 기구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불교계 대표 토론자로 참석한 선진규회장(한국청소년수련자시설협회)은 "청소년 수련시설만 보더라도 92년 당시 140개 밖에 안되던 것이 문화관광부의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현재는 433개로 늘어났다"며 "정책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을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부서가 설치, 운영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일 기자

파라미타 '서울 역사현장 순례' 운영

서울시 3천만원 지원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서울시청에서 실시하는 '2000년 서울시 청소년 프로그램'에 응모, '서울 역사 현장 순례' 프로그램 운영 단체로 선정됐다. 6월 6일에 개최되는 이 행사는 서울 거주 청소년들 6백여명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된 역사 현장을 순례한 후, 올림픽 공원에 모여 백일장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파라미타는 2천9백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는 신행과 봉사 활동에 참여할 청소년 회원의 손길도 기다린다. '밝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란 구호를 내걸고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파라미타는 현재 전국 3백여개의 분회에서 1만5천여명이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펴고 있다. (02)723-6165

청소년탐신

청소년 자원봉사 수기공모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는 4월 30일까지 '제3회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수기'를 현상 공모한다. 이번 수기 공모는 효행 실천, 근로 면학, 사회봉사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집한다. 부문별 당선작 3편과 우수작 2편을 선정해 상패와 소정의 장학금을 수여한다. 당선자 발표는 6월20일. (02)425-3002

'장애인의 날' 기념 백일장

'장애인 먼저' 실천중앙협의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2회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시, 산문, 독후감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입상자는 4월 20일에 발표하며 시상식은 27일에 갖는다. (02)761-9727

탑골공원서 어르신 위안잔치

조계사 청년회는 4월 30일 종로3가 탑골공원에서 '어르신 위안 잔치'를 벌인다. 자비행을 몸소 실천하자는 취지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불자가수회의 전통가요 및 민요 공연과 낙산 어린이집 새싹불자들의 재롱잔치 등이 열린다. (02)735-3724

보호아동 가족되실 분 환영

자양사회복지관은 경제 한파와 부모의 이혼 등 가정 문제로 인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의 구호 활동을 위해 '가족 인연 맺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등의 불미스런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복지관에서는 위탁가정의 환경을 철저히 조사한다. (02)458-1664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업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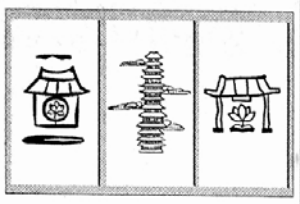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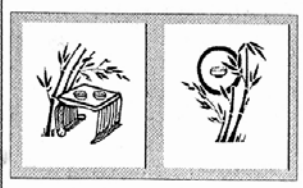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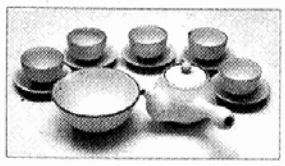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천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팔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31×26cm
재질- 청동
가격:₩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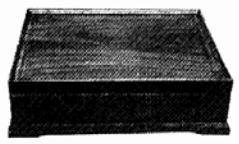
직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8×14×25cm
재질 - 청동
가격:₩250,000

다기함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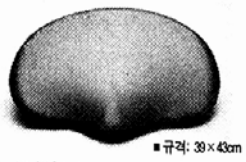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7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0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4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통+한방향+향꽃이



2셋트 구입시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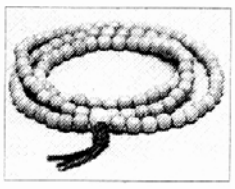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천연향방
악함 복주머니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격:
₩5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반야심경 지통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
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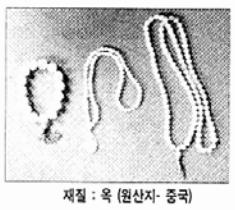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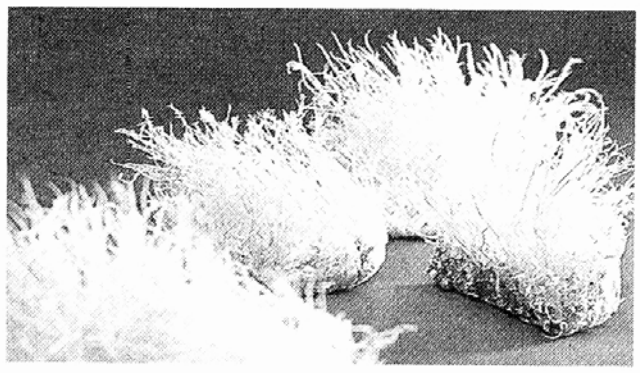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동충하초

■동충하초란 무엇인가?

동충하초는 겨울에 벌레상태로 있다가 여름이 되면 버섯이 된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써 동충하초균이 살아있는 곤충의 몸에 직접 들어가 발생하는 곤충기생성 약용버섯으로 에로부터 중국의 불로장생비약으로 결핵,황달, 강장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되어 왔다.
주로 병후의 신체조절, 보양등에 사용되는 한방 약제로 취급되어 왔으며 300년에 한번씩 핀다는 우담화에 비교될 정도로 길조의 상징으로 귀증하게 여긴 신비의 버섯입니다.

■탕으로 드실 때

동충하초 15g과 전복 40g을 넣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동충하초 술

1. 동충하초 50g에 소주 1.5l 비율로 담근다.
(과실주 담금용 소주)
2. 한달정도 지난 다음과 마신다.
3. 술을 하루 한번 작은 술잔에 한잔씩 그대로 마시거나 물로 약간 희석해서 마신다.
4. 동충하초 약술에 독특한 버섯 냄새나 단백한 냄새가 나는데, 마시다 보면 차츰 익숙해진다.

■동충하초 복용방법

1. 하루 복용량은 250cc이다.
2. 아침기상과 동시에 80cc를 공복에 복용한다.
3. 점심과 저녁 중간시간쯤인 공복시에 80cc를 복용한다.
4. 저녁 취침전에 80cc를 복용한다.

■동충하초 끓이는 방법

동충하초는 끓이기 전에 깨끗한 면보자기로 동충하초 50g을 잘 싼다.

1. 초당
- 50g(한봉)을 4.5리터의 찬물에 넣고 가스렌지의 중간 불로 2리터가량 될 까지 끓인다.
- 다 끓인 동충하초액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다.
2. 재탕
- 초탕을 끓였던 동충하초에 또 다시 4.5리터의 찬물을 넣고 가르센지의 중간불로 2리터가 될 때까지 끓인후 초탕에서 받아논 동충하초액과 혼합한다.
3. 마지막
1과 2로 만든 동충하초액을 혼합해서 또 다시 3리터가 될 때까지 가스렌지의 중불로 끓인 후 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고 10일동안 복용한다. 음용시 동충하초의 독특한 냄새가 거북하신분은 1과 2를 혼합해서 3리터~2.5리터 될 때까지 끓인 후 복용량을 100cc ~ 130cc 정도 복용한다.
또는 1번초탕에 동충하초 50g에 대추 1컵 영지 10g 감초 5g 을 첨가해서 끓인 후 복용한다.

■동충하초 보관방법

다습한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발생하여 버리게 되므로 건조한 곳에 저장 하십시요.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날개 CD



가격:
₩9,5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 각 68분

■ 가격:
각 ₩25,000

주목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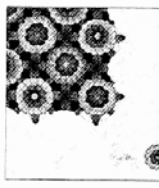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신경미 Flute 소품집(CD)



가격:
₩10,000
테잎 ₩5,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옹문사 대웅전 창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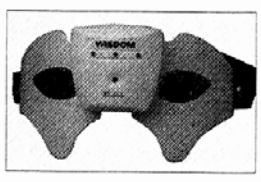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직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 격 : 25,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教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불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박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이렇게 들었다 — 절약

지구가 물(水)부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F)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2천5백만명이 물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물이 없어 사망하는 어린이만 하루 평균 5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 2025년에는 전세계 인구 75억명중 약 50%가 물부족으로 고생할 것이란 통계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OECD국가중 1인당 물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밝혀졌다. 1인당 물사용량이 선진국의 2배에 이른다고 한다.

조만간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물을 무한정 공급하던 정책에 안존할 것이 아니라,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국민의 소비의식 변화가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22일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우리가 무한정이라 여기며 흥청망청 쓰고 있는 물의 씀씀이를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으로 절약해 물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생활의 기본인 물의 절약부터 시작해 지나치게 소비하지는 않는지 자기 주위를 돌아보고 절약과 검소함으로 삶을 지혜롭게 가꾸고 대비하자.

사치않고 만족 알면 바른생활

▨그 시기가 임박해서야 비로소 기울이는 노력은 사실 마땅히 할일을 하지 않는거나 다름이 없다. 미리부터 기울인 노력이어야 할일을 다한 것이다. 〈밀린다 왕문경〉

▨무슨 일이나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될 우선순위를 따라 미리 준비하라. 막상 그때에 닥쳐서야 허둥대며 당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자타카〉

▨강물은 빨리 흘러, 한번가면 돌아오는 일이 없다. 사람의 목숨도 이러해서 죽어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법구비유경〉

▨어떤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라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사제경〉

▨어리석은 사람은 남에게 보시를 하려다 말고 "재산이 많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은 많이 모이기도 전에 수재, 화재 혹은 관청이나 도둑의 약탈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백유경〉

▨그윽한 산해진미 군침을 삼키지만 조절해 먹지 않으면 도리어 화가 되네. 학들이 장수함은 절식(節食)이 원인이니 그대 양을 알면 수명을 보존하리. 〈잡아함경〉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무가 필요할 때에만 나무를 구하고 풀이나 수레나 일꾼이 필요할 때에만 그것들을 구할지니라. 부디 스스로 금 은 따위의 보물들을 받지 말아야 하느니라. 〈잡아함경〉

▨이 몸이 영원한 줄 어이해 믿었던고. 수행을 멀리하고 낭비를 일삼으며, 익혀온 악업 습기 즐기기 다했더니, 노병에 짝 잃으니 후회해 무엇하리.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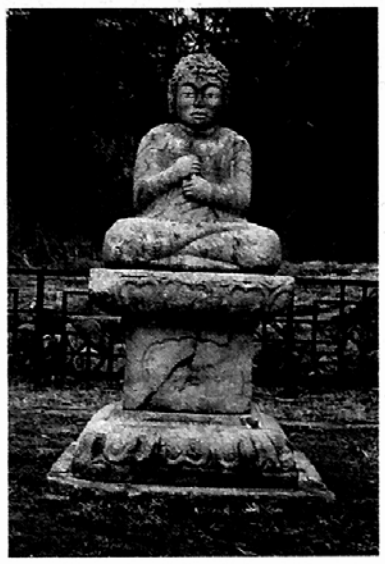
▨세존이시여, 제가 오늘부터 보리를 얻는 그날까지, 자신을 위해 재물을 받거나 모으지 않고 모든 재물은 가난하고 고생많은 중생들을 성숙시키는 데에만 쓰겠습니다. 〈승만경〉

▨비록 백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하느니라. 〈출요경〉

▨아무도 제가 벌어 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중의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인연이 맞아서 제게 오는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잘 보관하되, 제멋대로 낭비하거나 무가치하게 쓰면 안된다. 〈육방예경〉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과 손해됨을 잘 따져서 해야할것과 하지 않아야 할것을 잘 알아 시행하기 때문에 바다에 강물이 끊임없이 모여들 듯 재물은 나날로 늘어나리라.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 〈별역잡아함경〉

▨의복과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위해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선정에 들어 반성하면서 족한 줄을 알아 최소한의 것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법구경〉



◇돌부처님을 친견해 예불과 공양을 올리며 나들이를 겸할 수 있는 야외 법회에 참가해 보자. 실내 법당에서 봉행하던 것과는 다른 불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에 있는 석조 비로자나부처님좌상.

돌부처 찾아 떠나는 봄나들이

석불선양회 2일 원주지역 답사

야외에 방치돼 있는 돌부처님을 찾아 예불과 공양을 올리는 모임인 한국석불선양회(지도법사 최혜명)가 4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용운사지로 돌부처님 친견법회를 떠난다. 이날 공양을 받는 돌부처님들은 고려초 조성된 원주시 호저면 용곡리에 있는 석조비로자나부처님좌상과 그 근처에 산재된 소형불상 및 보살상들이다. 오후에는 원주시 판부면 금대2리에 있는 소쩍새마을을 방문해 원생들과 법회도 봉행하고 후원품도 전달한다. 석불선양회는 특히 소쩍새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고추장을 준비해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돌부처님 친견법회에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동참금 2만원. 참가문의 (016)267-7945

신행 캘린더

3월29일 (수)

■생명나눔실천회 창립 6돌 기념법회=생명나눔실천회는 오후 2시30분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 특별법회'를 봉행한다. 02)734-8050

3월30일 (목)

■대승회 창립 10주년기념 보각스님 초청 법회=대승회는 저녁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초청,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 법회'를 봉행한다. 02)736-4848

■천축사 무문관 시민선원 제1기 입방식=근세 선지식들의 근본 도량인 천축사 무문관이 오후3시 초발심자들을 위한 '시민선원 제1기 입방식'을 봉행한다. 02)954-1474

■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세미나=대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오후 2시 평송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자원봉사는 봉사학습'이라는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연다. 042)488-0732

3월31일 (금)

■좋은벗들, 정상모씨 초청 통일강좌=좋은벗들에서는 정상모이사(한겨레 문화센터)를 초청, 저녁 7시30분 정토회관 3층 강당에서 '분단 50년, 남북대화 50년'을 주제로 통일강좌를 마련한다. 02)587-8996

■지관스님 경전 특강=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저녁 7시30분부터 본원 강의실에서 지관스님을 초청, 〈경덕전등록〉 특강을 마련한다. 02)765-9602

■사찰 음식展 '현대인의 건강과 생식' 특강=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는 오후 2시 본원 강당에서 사찰음식전문가인 해봉스님을 초청, '현대인의 건강과 생식'을 주제로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회비는 1만원. 02)355-5961

■중리종합사회복지관 황매산 산행=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합천 황매산으로 산행대회를 떠난다. 주부 1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산행 이외에도 역사퀴즈대결, 인근 문화유적지 탐방 등도 곁들여 진다. 참가비는 1만원. 0551)231-8017

4월1일 (토)

■조계사 이이화씨 초청, '한국사속의 불교' 강연=조계사는 오후 3시 문화교육관에서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고문을 초청, '한국사에 나타난 불교의 두 얼굴'을 주제로 '제12차 열린 강연회'를 개최한다. 02)720-1390

■여래지답사회 향일암 순례=여래지답사회는 2일까지 무박2일간 장엄한 남해 일출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을 찾아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영취산 홍국사를 참배한다. 참가비는 5만5천원. 출발은 1일 밤10시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 02)3445-0202

■천태종 용주사 법당 기공식=천태종 포항 구룡포 용주사는 오전 11시 법당 신축 기공식을 갖는다. 0562)276-9151

■대불련 서울지부 원성스님 초청 새내기 프로포즈=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는 오후 3시 한양대 콘서트홀에서 신입회원들을 위한 '원성스님과 함께하는 38번째 프로포즈'를 마련한다. 02)732-0239

4월2일 (일)

■도피안사 김영태교수 초청 '광덕스님과 반야바라밀' 주제 특강=안성 도피안사는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광덕스님과 반야바라밀'을 주제로 특강을 마련한다. 0334)676-8700

4월4일 (화)

■터사랑 송광사·소록도 답사=터사랑답사회는 5일까지 무박2일간 고려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인 순천 송광사를 찾아간다. 돌아오는 길에는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로 유명한 소록도를 들러 본다. 02)725-1284

법회안내

제주발전 사경 법회



혜국 제주남국선원장 스님은 4월15일 오후1시 제주 관음사에서 '제주 발전 사경대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064)722-2829

법왕사 법화경 법문



인환 등국대명예교수 스님은 30일 오전 11시30분 대구 법왕사 대웅전에서 '경율론 삼장 백고좌 법회'에 초청돼 '법화경 제10품 법사품'을 주제로 법문한다. 053)766-3747

부산 포교원 법회



현각 화계사 국제선원스님은 4월8일 오후6시30분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새천년 한국불교'를 주제로 법문한다. 051)816-2241

'명상' 주제 다보강좌



정재각 前 동국대총장은 4월12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다보 문화강좌에 초청돼 '명상이야기'를 주제로 특강한다. 02)703-0108

게시판

알림

▲불광산사 보은법회=서울 불광산사는 4월1일 오전10시 대웅전에서 부처님과 부모은혜에 감사하는 '보은법회'를 봉행한다. 02)2276-0993

▲범어사 일요 정기법회=금정포교사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스님, 범어사 강주 덕민스님 등을 초청해 일요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051)866-7277

▲장애인 아동 언어학습=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학습 프로그램을 12월까지 개설한다. 교육 내용은 기본인지학습, 집단상담, 취미활동, 예절교육 등이다. 0443)652-0900

▲장애인 컴퓨터 무료교육=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18세이상 성인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 무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한글, PC통신, 인터넷 등이다. 02)852-0525

모집

▲컴퓨터 강사=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육할 컴퓨터강사를 모집한다. 02)385-1351

▲불교서적 오디오·CD=경북 청송 영천암은 신도를 교화할 수 있는 불교서적이나 불교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불교 관련 CD를 기증받고 있다. 0575)873-2724

▲미술교실 강사=개금복지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실 강사를 채용한다. 자격은 미술관련 전공 졸업자나 재학생. 051)893-5034

▲가사지원 자원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상담과 가정 방문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해 줄 자원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린다. 02)2203-3677

▲자원봉사자=두송복지관은 무료한글교실, 노인교실, 정신지체장애인 방과후 교실 등을 지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국제 자원봉사자=진각복지재단에서는 대학,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양식 1통과 부모님 등의서. 02)942-0144

▲불교청년회원=군산불교청년연합회는 신행활동을 함께 할 20세~35세 까지의 남녀 불자들을 모집한다. 0654)463-4611

▲보육교사 2급과정 수강생=중앙승가대학교 교육원은 영·유아 보육교사 2급자격 취득반 교육수강생을 모집한다. 1년과정. 02)929-5004

강좌

▲금강경 강좌=대구 정토회는 31일부터 6월2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법륜스님을 법사로 금강경 강좌를 개설한다. 053)744-3025

▲위빠사나=강남포교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7시부터 2시간 동안 3층 수선당에서 '부처님의 안반수의경 특강'을 주제로 위빠사나 강좌를 개설한다. 교재는 〈대념처경〉이며 김열권선생님이 지도한다. 02)539-2631

▲문화강좌=한국불교예술문화원은 4월1일부터 매주 화·금요일 문화원 강의실에서 서예, 사군자, 달마대사 그림, 반야심경 사경 등 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이 운장 법사가 지도한다. 02)2242-0255

▲기초교리·참선법=혜화등원호정사는 4월11일까지 '불교문화대학 제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기초교리전반, 사원예절, 사경, 기도하는 법, 참선법 등이다. 입학금은 수강료 포함 7만원. 02)744-3413

▲한국차문화특강 창업반 강좌=초의학술재단은 4월7일부터 제1기 한국차문화특강 창업반 강좌를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전통찻집 행다법, 차의 종류와 제다법 등이다. 02)732-2317

▲박물관 문화강좌=경북대 박물관은 한국전통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 과목은 '한국고대불교사' '불상과 불교 미술' '불탑과 불교 건축' 등이다. 053)950-6586

▲영어 경전반=약수암은 매주 일요일 낮 12시 '영어 경전반' 강좌를 개설한다. 교육 내용은 자타카와 〈법구경〉 등이다. 02)823-0011

화촉

▲영산법화사 합창단 지휘자 안병길씨는 4월12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조윤진씨를 신부로 맞아 화촉을 밝힌다. 011)724-6180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결

◆인간의 영운(命運)을 좌우하는 지리학(地理學)을 현실 생활에 합리화 시켜 생활해 나가면 내일의 안정과 희망의 행복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나갈 것이다.

저자는 생기론(땅기운)을 한국최초로 발견하였다. 국내 제일의 풍수지리서이다!

새 천년 새 풍수를 잡아라.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 당기운이 흩어진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 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머드 김용식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화제의 신간

최신 사주임상록

여기 주역(周易)을 숫자로 풀이한 혼천작괘법(渾天作掛法)의 적중률(的中率)에 놀라지 말라!

周易의 진수가 여기에 있다.
周易作名法에 이어 펼쳐낸 세계 최초로 수학, 과학, 의학등을 철학에 접목시킨 四柱臨床錄이다. 딱딱한 四柱풀이라기 보다는 純粹한 우리들의 周邊 이야기를 엮은 책이다.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작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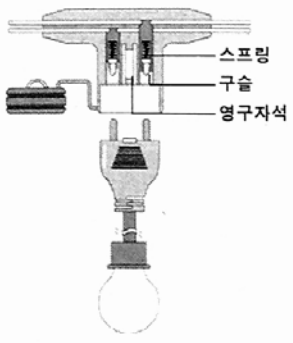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정가 40,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암,진호일 공저/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심심부 신국판/양장본/申坪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법류博士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법류博士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광 지음 /정가 8,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연등 배선의 혁신

연등배선의 혁신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연등배선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 일체형도 생산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주문시 간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특징
1.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2. 자석의 특성을 살려 배선의 설치 및 수거가 용이 합니다.
3. 영구자석을 사용하였으므로 자력이 강합니다.(자력2.5Kg)
4. 접촉불량이 없으며 감전의 위험이 없습니다.
5. 한국·일본 동시 특허 출원
6. 기존의 제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자석식)의 제품으로 사찰용도 전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 시공시 조광기를 설치하여 드립니다. ※

생각하는 기업
S2신성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공장 0341)988-1688
경기도 김포시 통진면 마송리 14-22

불교교양대 지역신행 '요람'

각종 강좌·법회…재가법사 길러내

군·복지시설 등 봉사활동도 앞장

불교(교양)대학들이 지역 신행의 요람이 되고 있다.

불교대학들이 불교 입문자들을 교육시켜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고유기능에서 더 나아가 동문·재학생들의 수행·포교·봉사활동의 근거지로서 지역불교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신행 중심지로서의 불교대학의 발전적 전형을 보여주는 곳은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 8년간 2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포교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온 영남불교대학은 대구지역 불교연합단체가 이루지 못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불교회관을 건립, 불자들의 문화공간과 시민선방을 제공하는등 지역신행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800여명의 고정 자원봉사자와 5천여명의 일일 자원봉사자가 움직이는 40여개의 봉사조직은 '1인 1봉사 갖기 운동'으로 복지와 봉사부문에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상담하는 '지혜의 전화'(053-474-0108)와 인터넷 불교대학(www.cyberbuddha.or.kr) 운영, 다도·불화그리기 등 14개 문화강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창건이래 동문들이 100일간 10만배 기도성취, 100일·1000일기도, 10년기도 정진결사(99년 음력 10월1일 시작) 등을 통해 신심을 키우고, '불교중흥, 나라발전, 자아성찰' 등을 발원한 것은 지역불교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다는 평가다.

불교신도가 많은 부산에서는 부산불교교육대학 등 3개 대학이 각각의 특징을 갖고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18년의 전통을 가진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이하우)은 전국 최다인 739명의 포교사를 배출해 다양한 법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총포교사회는 기수별로 국군통합병원, 해군3함대, 천마재활원 등 구역을 정해놓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12년간 배출한 2000여명의 졸업생들이 후원회원을 구성해 무의탁노인 무료급식을 펼치는 한편, 인터넷(bulgyo.or.kr)을 통한 신행안내, '날마다 좋은 날' 출판사를 통한 교도소, 군법당 문서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개교한 불교복지보건대학은 재학생 대부분이 지역 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유·무급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지역 불교복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호남지역에서는 전북지역의 전북·화엄·이리·군산·남원·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이 매년 10월경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는등 친목을 다지면서 지역 신행을 이끌고 있다.

특히 89년 개교한 호남 최초의 불교대학인 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보름간 3000배, 24시간 참선, 주력 10만번, 불교의식 실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전법사고시를 실시해 다양한 법회를 주관할 수 있는 200여명의 재가법사를 양성했다. '재적사찰 갖기, 온가족의 불자화, 정진하는 불자'를 목표로 참선반 합창단 청년회 자원봉사회 불교문화답사 경전독송회 새벽예불(철야정진) 등 7개 동아리 활동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해 수행하는 불자를 배출한 것도 눈에 띈다.

금산사, 전북불교회관과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화엄불교대학(학장 도영스님)은 1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된 '10바라밀 봉사단'의 노인무료식당 및 경로당, 전주소년원 봉사활동, 수해지역 복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밖에 목포불교대학과 광주불교대학, 율산불교교육원, 춘천 강원불교대학 등은 졸업생들의 참선·경전공부·봉사·답사·취미 등 소모임 활동이 왕성하며 대전 보현불교대학과 청주 충북불교대학은 수시로 여는 '큰스님 특강', '고승·명사초청 특강'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재경·천미희 기자 (jgkim@buddhapia.com)



◇영남불교대학은 21일과 22일 주(170명)·야간반(350명) 졸업식을 거행했다. 영남불교대학은 올 봄학기에 2천8백40명이 새로 입학했다.

대한불교 선각종 창종

종정 정업스님 추대

청정종풍과 불타의 자비정신을 구현하며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지향하는 대한불교 선각종이 16일 강진 옴천사에서 창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종정에는 영담 정업 대종사가 추대됐으며 총무원장에는 청삼 정암 스님, 종회의장에는 대운스님이 선출됐다.

영담 정업스님은 법어를 통해 "붙교의 정신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여기서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이루어 청정한 종풍을 확립해 불타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불국정토를 건설하자"고 당부했다.



◇정업스님



◇정암스님

한편 이날 법회에는 전남사암연합회장 수산스님, 선암사 교육원장 상명스님, 미타종 부종정 해우스님, 윤영수 강진군수, 천용택 새천년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위원장, 김희웅 강진경찰서장, 김승홍 강진군의회의장 등 지역인사와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 전화 (0638)433-2311

강진=주용직 지사장

세계 최대 미륵불상 조성

1백51m…2005년 印에 세워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이가 3배나 되는 세계 최대의 불상이 영국에서 제작돼 2005년 인도에 세워질 예정이다.

영국 세필드 주물개발센터 연구소가 제작하는 높이 500피트(151.5m)의 이 미륵불상은 개당 무게가 0.5t인 2평방야드(1.7㎡)짜리 동판 3000개를 관 모양의 철제 골조에 나사와 용접으로 연결해 만들게 된다.

옥슬리 연구소장은 "현대의 불가사의가 될 이 불상은 17층 높이의 좌대에 안치될 예정이며, 좌대 자체는 거대한 사원으로 이용된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충주 중원문화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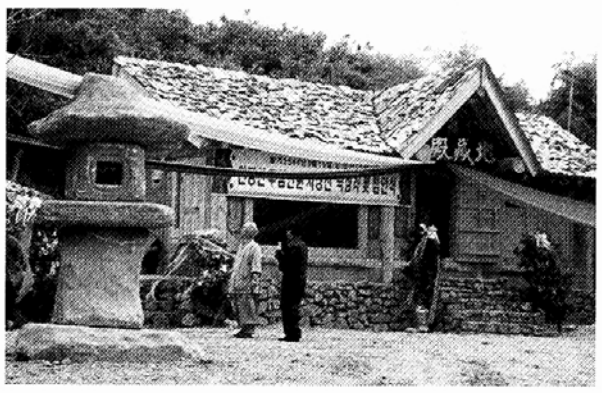
충주중원불교문화원(운영위원장 남창석)은 4월3일 오후 6시30분 충주문화회관에서 제주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을 초청, 개원법회를 갖는다.

충주중원불교문화원은 재가 불자들이 운영하는 신행단체로 교리강좌 및 경전공부와 함께 간병인교육 등을 통한 사회봉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천장산 무심선원 개원

영천 천장산 무심선원(주지 지담)은 19일 사부대중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원법회 및 지장전 낙성식을 거행하고 참선전문 수행도량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주지 지담스님은 개원 인사말을 통해 "평생 납자로서 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4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방과 연로한 수좌스님들이 기거할 열반당 등을 갖춰 참선전문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지담스님은 지난해 여름부터 천장산 기슭에 토굴을 짓고 용맹정진해 왔다. 김재경 기자



◇천장산 기슭에 문을 연 무심선원 지장전 전경.

보성 대원사 '한꽃선원' 개원

시민대상 참선·명상지도

전남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는 4월1일 오후2시 시민선방인 광주 한꽃선원을 개원한다. 지난 92년 5월부터 주말을 이용한 단기수련회를 진행해 온 대원사는 자비신행회와 교사불자회의 후원으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선방을 개원, 4월부터 참선 이론과 수행법을 지도한다.

주지 현장스님은 "정신적 방황과 고통속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 큰 자유와 행복을 얻었으면 한다"고 개원 동기를 밝혔다. 다음은 4월중 프로그램.

△4월1일 오후2시, '일과 수행의 통일'(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4월8일 오후2시 '좌선기공법 및 만트라 명상'(현장스님) △4월15일 오후2시 '육조단경'(광륜사 혜민법사) △4월22일 오후2시 '좌선법, 경행법, 호흡법'(대원사 혜진법사) △4월15일 '철야정진'(혜민법사) △4월26일 '1일 화두선 집중수행'(송광암 일선스님). (062)222-1165

김재경 기자

백련암 7일7야 정진

조계종 종정을 지낸 성철스님의 수행정진을 본받기 위한 칠일칠야 참선용맹정진이 17일 새벽 해인사 백련암에서 시작됐다. 성철스님 탄신일인 24일까지 참석자들은 '자기를 바로보자'고 강조한 성철스님의 뜻을 되새겼다.

日 한민족 불교봉사회 현판

관음사 입주…회장 원연스님

在일본한민족불교도자원봉사회는 7일 오사카시(大阪市) 이쿠노구(生野區) 경주관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원연스님(관음사 관장)을 새 회장에 추대하고 관음사 문화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해 오는 4월초 현판식을 갖는다.

원연스님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과 운영을 이루어 내는데 역할하겠다"고 전제하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음사 문화회관의 활용을 제안했다.

한민족불교도자원봉사회는 지난 95년 1월 고베대지진때 수습에 참여했던 불자들이 결성한 이후 매년 경도와인안잔치 불우이웃돕기 등 뜻깊은 행사를 벌여왔다.

오사카=최현규 지사장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신허)는 4월 9·11일(각 오전 10시) 금강계단에서 영철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를 거행한다. (0523)382-7182

쌍계사 육조봉찬회

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통광)는 보살계대법회 및 대장경정대불사, 육조봉찬회(六祖奉讚會)를 잇달아 개최한다. 고산前 조계종 총무원장을 전계대화상으로 열리는 보살계는 4월9일 오후2시에 입제, 4월11일 정오에 회향한다. 육조봉찬회는 4월10일 오후 8시, 정대불사와 육조종재는 4월11일 오전 8시부터 봉행된다. (0595)883-1901

범어사 일요시민법회

범어사 신도회(회장 박수관)는 26일부터 매주 일요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이 법회는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주관으로 마련된다.

태고종

제주불교교양대 졸업식

제주종무원(원장 수암)은 불교교양대학 제2기 기초교리 과정과 1기 중급과정 졸업식을 30일 오전 10시 30분 종무원사 3층 법당에서 개최해 수료생 89명을 배출한다. (064)752-2810

백진결사 30일 정기총회

백진결사(회장 일로스님)는 30일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제4차 정기총회를 개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한다. 사업계획과 관련 자정적 수행증진을 목적으로 한 회원교육 강화와 장학사업 확대 등 교육불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천태종

만리사 15일 법당 낙성식

동해 만리사(주지 행주)는 4월 15일 오전 11시 법당 낙성식 및 관음불상 봉불식을 봉행한다. 만리사 법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요사채, 식당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법당과 청년회 사무실이 들어선다. (0394)521-4940

총지종

홈페이지 전면 새단장



동영상을 포함한 멀티미디어적 사이트로 기존의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총지종의 행사와 법회, 게시판, 방명록 등이 들어있다. 또한 스승들과 신도들, 청소년 청년층의 채팅을 위한 대화방과 메일링 서비스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www.chongji.or.kr

무량종

종정직무대행 지은스님



16일 열린 정기 중앙종회에서 종정권한대행 겸 총무원장에 지은스님(부산 은암정사 주지·사진)을 추대하는 등 일부 임원진이 개편됐다. 또한 2000년 예산 2억7천5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편된 주요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원로원장 =장대범 △교육원장 = 이령관 △종회부의장=남만응·김대산 △문화원장=채지오.

복지종

사천왕사 대웅전 낙성

종정 법운스님은 경남 양산시 원동면 토곡산 사천왕사내 대웅전 낙성식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4월 2일 오전 10시 봉행한다. (0523)383-6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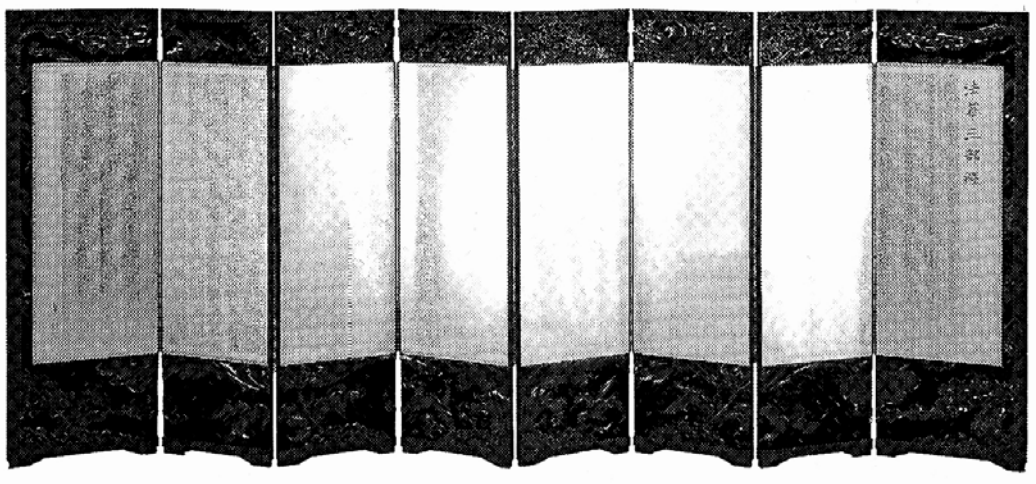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낭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주부신행담 스님과의 인연 ㊤



그림 · 이준석

유달리 허전했던 불기 2543년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들판의 새싹들과 산의 나무들이 계절을 잊지도 않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앞 다투어 싹이 돋아나고 생동하는 봄은 기다려지지만 그만큼 한해를 정리하며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인 11월1일은 해인사 길상암 명진 큰스님이 사바세계를 뒤로 하시고 열반에 드신 날이다.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기도만을 열심히 하시던 명진 큰스님. 스님은 붉은 낙엽과 함께 그 육체를 훨훨 벗어버리시고 무여열반의 길로 떠나셨다. 비록 육신이 곁에 계시지 않을 뿐 스님이 전해주신 가르침과 큰 자비심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알지 못할 허전함에 이번 기회를 통해 스님에 대한 추억들을 떠올리려고 한다.

시어머니는 절이 멀고 가까움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시는 분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우리집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송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스님들도 자주 집에 오셨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에게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다. 오히려 아무리 먼 절이라도 마다 않고 다니시던 어머니가 절에 가시면 며칠씩 걸릴 때도 있었다. 혼자 외로우신 시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가 원망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다. 물론 시아버지도 〈천수경〉에 〈금강경〉까지도 암송하실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이셨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전혀 변화가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길거리에서 108 염주를 주워왔다. 어느 분이 주인인지도 알 수 없고 그렇다고 내팽개쳐 둘 수도 없어서 가방 속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염주는 지금까지도 항상 가지고 다닌다. 어쩌면 부처님과의 인연은 그때부터 시작된 듯 하다.

그러다가 90년 정월에 시아버지께서 저녁식사를 드시고 난 후 갑자기 운명하셨다. 아버지는 평소에 열심히 부처님 경전을 외우신 공덕인지 어떠한 고통도 없이 돌아가셨다. 그때 해인사 길상암에는 음력 정월 7일부터 9일까지 정월기도를 올렸다. 마침 9일기도를 회향하셨던 명진스님은 피곤함도 잊으시고 버스와 열차로 밤에 우리집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까지 오셨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께 스님의 이야기만 들었지 직접 뵐 기회는 없었다. 대문에 들어서시는 스님을 보는 순간 범상치 않은 눈매와, 털모자에 털신, 장삼을 입으신 모습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검소함과 소탈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급하게 달려온 모습 같았다.

그후부터 남편과 나는 해인사 길상암을 한달이 멀다 하고 한걸음에 달려가는 마음으로 자주 갔다. 길상암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친견을 하며 절을 드리면 그전까지는 새벽예불 참여도 힘들게 느껴지던 나였는데 갑자기 가슴이 꽉 차오르면서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려서 어떻게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신심이 싹틀 무렵 명진스님은 모든 신도들에게 항상 다정하게 대하시며 앉으나 서나 큰 가르침을 주시었다. 법당에서 즐겁게 부처님 전에 예불을 드리는 스님을 뵌 분들은 "저렇듯 열심히 하시는 스님이 계시는구나. 우리가 인연이 늦었구나"라고 놀라며 정진을 새롭게 하곤 했다고 한다.

산소를 이장하다 말고 내려온후
집안에 교통사고가 잇달아
스님은 직접 기도를 올려주며…

어느 절이든지 부처님은 영험하시겠지만 부처님법을 전파하시는 스님이 열심히 수행하시며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여야만 그 도량이 영험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절을 찾은 신도들도 스님의 영향을 받아 바르게 생활을 하며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다 93년에 우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산소 이장을 하게 되었다. 음력 7월에 벌초를 하면서 이장을 하고 보니 주위에 소나무와 여러 나무들이 있어 포크레인도 동원하게 됐다. 포크레인이 산소 주위를 마구 파서 시간이 늦어져서 그대로 철수를 하고 내년 봄 한식 때 나머지 마무리를 하자고 회의를 한 다음 산을 내려왔다. 그런데 우환이 겹치기 시작했다. 산소를 마무리 하지 않고 내려온 후로 집안에 사고가 연거푸 일어난 것이다.

맨 처음 대전 시아주버님이 토요일 교통사고로 다리와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그후 다음주 토요일 똑같은 시간에 내 바로 밑 동서에게 대형사고가 일어나는게 아닌가. 너무도 끔찍한 사고였다. 그 다음 토요일 또 똑같은 시간에 시동생이 사고를 당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차가 크게 손상되었다.

그러다가 마침 길상암에 가서 스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니 명진스님께서는 직접 기도를 3시간에 걸쳐서 올려주시며 산소에 가서 이러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 산소에 찾아간 우리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저희들이 몰라서 잘못했습니다"하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참회를 하였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집안을 무사히 잠재우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성철스님이 열반하셨다는 보도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그때 참으로 명진스님이 우리 집안과 인연이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며칠만 늦게 길상암을 갔더라면 스님은 큰 절에 가셔서 성철큰스님 극락왕생을 기도드리셨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스님을 뵙지 못하게 되고 우리 집안은 사건에 사건이 거듭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성철스님 다비식날 우리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마비상태라는 뉴스를 듣고 오후 늦게 길상암에 갔는데 길상암에서 바라보는 백련암은 불꽃이 장관이었다. 백련암 성철스님 계신 암자에서 방광을 한 장면을 우리는 보았으니 참으로 영광이었다. 백련암에서 시작한 해같은 방광은 길상암 천진보탑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진 곳까지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퍼졌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하였고 명진스님은 "우리 스님 방광하신다"면서 천진스런 아기처럼 좋아하셨다. 그때는 비가 와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고 방광은 그 다음날 새벽 3시 30분 예불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못했음이 지금도 아쉬우나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그후 지난 94년 명진스님은 몇분의 신도분들과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가셨다. 미얀마는 그때 당시 개방된지 얼마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전혀 연고도 모르고 처음 가신 스님에게 공항에 마중나온 미얀마 종교성 외무부 장관이 스님을 알아보며 "동방한국에서 오신 스님이냐"고 하였단다. 알고보니 미얀마 우소비타 종정스님의 꿈에 '동방에서 큰스님이 오시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 장삼 방석 그리고 스님이 신으실 버선을 준비해서 주라' 하시는 선몽을 계속 내리셨다는 것이다. 명진스님은 너무도 뜻밖의 감격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스님께서는 신도 한분 한분마다 진신사리를 친견시켰는데 삼배를 드리고 난 다음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사리는 너무나도 환희심이 일었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 정진하신 스님이심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외국에까지 전파가 되었음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계속〉

김향숙〈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 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정성 작업성 내부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 화재사고를 예방
· 설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등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 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본사 영업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원기업
■ 인터넷: http://www.bulje.co.kr

※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불제 연등용 전선(케이블)



개국10주년
www.bbsfm.co.kr

4월 3일부터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젊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생각과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1시간을 늘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현재 21시간 방송에서 22시간으로 1시간 연장해 하루의 시작과 갈무리가 불교방송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일 불교방송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면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라디오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생방송 비율을 75%로 늘렸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살아 숨쉬는 정보가 제공되며 생동감이 넘쳐날 것입니다.
불교방송을 들으면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불교방송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개국 10주년을 맞는 저희 불교방송이 4월 3일부터 프로그램을 대폭 바꿨습니다.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달라진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격을 높혔습니다.
품격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신설하고 기존 프로그램도 포맷 변경으로 참신성을 추구했습니다.
불교방송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목탁소리, 풍경소리가 울리는 방송입니다.
불교방송을 청취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맑고 향기롭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청소년, 주부,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청취자들의 참여폭을 넓혔습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보다 쉬워질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대표 (02) 705-5114 / FAX (02) 705-5229